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

일러두기

이 책은 2019년 6월 28일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공동개최한 제2회 강원 고대 문화 연구 심포지엄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에서 발표, 토론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대 강원 대외교류

古代 江原 對外交流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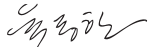
이 책은 6월 28일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의 성과물이다.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은 고고학과 문헌사 연구 성과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강원지역의 고대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3년간 강원지역 고대사 집중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발간된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는 강원지역을 포함한 중부지역 종족성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3세기 전후, 중도 문화시기와 삼국시대 강원도의 모습과 대외교류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을 담아내었다.

심포지엄과 이 책의 발간을 기획, 주관해 주신 강원학연구센터 장정룡 센터장님과 국립춘천박물관 김상태 관장님,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과 출판을 맡아주신 산책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12

강원연구원장 

목차

연구논문

- 009 중부지역 종족 연구경향에 대한 단상
김장석 / 서울대학교
- 035 옥저계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정체성과 대외 교류
강인욱 / 경희대학교
고영민 / 국립김해박물관
- 063 한반도 중부 지역의 한·예와 강원 영서 지역
전진국 / 충북대학교 연수연구원
- 087 삼국형성기의 대외교류
- 강원도 諸세력의 '역량' 검토 -
신광철 / 국립경주박물관
- 127 삼국 항쟁기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윤성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녹취자료

- 155 종합토론 녹취록
좌장 박순발 / 충남대학교
토론 김재홍 / 국민대학교
정인성 / 영남대학교
윤용구 / 인천개발공사
황보경 / 세종대학교 박물관
김창석 / 강원대학교

중부지역 종족 연구경향에 대한 단상

김장석



중부지역 종족 연구경향에 대한 단상

김 장 석
서울대학교

Contents

- I. 서론
- II. 세계고고학계에서의 물질문화와 종족성 논의
- III. 한국에서의 고고학자료와 종족성에 대한 인식
- IV. 중부지역 물질문화의 분포와 경계
- V. 가설 제시
- VI. 결론

I

서론

종족성(ethnicity)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¹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종족집단(ethnic group), 종족정체성(ethnic identity) 등을 들 수 있지만, 이것들 역시 정의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종족성이나 종족정체성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지만, 어떠한 일반적인 합의도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찌됐건 종족집단이란 인간집단을 구분하는 수많은 구분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는 혈연에 기반한 출자나 공동조상, 역사 및 전통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언어도 이 구분기준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가지고 있는 종족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고고학적 자료의 지역적 차이가 과연 과거의 종족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것이 그 집단의 분포와 경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이를 바탕으로 문헌에 나오는 종족명과 물질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고학연구자의 입장에서, 종족과 고고학자료의 상호관계에 대해 그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학사적으로 살피고,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히 검토한 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의 종족성 형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가설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본 발표에서 사용하는 종족성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ethnicity를 번역한 말로서, 개인과 집단이 우리와 타자의 개념으로 종족을 구분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사회적, 심리적 현상을 총칭하는 말이다(주9의 Jones 1997 참조). 민족이나 국민의 특징과 성격 등을 일괄하여 표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민족성’, ‘국민성’ 등과 같이 차별이나 단정적 편견의 소지가 있는 용어들과는 용례상, 의미상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종족성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들고, 게다가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이 용어를 흔히 이용하므로 여기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II

세계고고학계에서의 물질문화와 종족성 논의

1 학사적 고찰

19세기-20세기 초 고고학과 인류학은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고고학과 인류학은 인간의 일반적 문화발전과정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현존하는 인간 집단을 가장 저열한 것으로부터 고차원적인 것까지 배열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인 아보리진, 아프리카 흑인집단 등을 인간문화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유럽의 문화를 가장 발전한 단계의 것으로 놓은 후, 여러 현존집단을 그 양극단 사이를 잇도록 배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회다윈리즘(Social Darwinism)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경향에서 이용하였던 인간문화의 분류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이었으며, 인종과 문화의 발전단계를 직접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들에 인종적 편견과 제국주의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²

이후, 진화론에 대한 열기가 식고 고고학적 연구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간취할 수 있는 각종 집단들의 기원과 출자, 전파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른바 문화사고고학(Culture-Historical Archaeology)이 주류를 이룬다. 문화사고고학의 기저에는 고고학적 자료가 과거의 인간집단을 변별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각종 원주민 ‘부족(tribe)’의 조상들을 고고학자료를 통해 간취하고 이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유럽에서는 현대민족의 조상들과 고대문헌에 나오는 종족집단들을 고고학자료를 통해 알아내고자 하였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유럽고고학자인 고든 차일드나 구스타프 코시나 등이 이러한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대표적 연구자들이다.³

문화사고고학에 있어서 문화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규범(norm)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규정되었다. 한 ‘문화’는 규범(또는 정신적 틀 mental templet)을 공유한 ‘종족’에 의해 영위된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전제는 이

2 Trigger, B.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Trigger, 위의 책

시기의 고고학에 있어서 당연한 전제이자 사실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학계에서는 ‘문화에 대한 규범적 시각(normative view of culture)’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문화적 정형성을 통해 이 규범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추출하여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분포를 갖는 ‘고고학적 문화’를 설정할 수 있다.⁴ 또한, 일단 고고학적 문화가 설정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설화상으로 알려졌거나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종족들과 연결시켜 이들이 어디에 분포하였으며, 언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강고하였다. 이 시기 고고학에 있어,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고고학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문화사고고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즉 고고학자료는 특정종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분포의 정형성을 통해 특정집단의 분포와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이 그리 명료한 작업이었던 것은 아니다. 물질문화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어떤 스케일에서 규정하느냐, 그리고 물질자료의 형식분류를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 어느 집단과 고고학자료를 연결시킬 것이냐가 학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 서남부지역의 경우 학자들이 모여 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고(이른바 Pecos Conference), 미국 중서부지역에서는 이 지역만을 위한 분류체계(McKern System이라 불림)가 고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를 위계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학자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Ford, Rouse가 대표적 학자).⁵ 이러한 연구경향은 비단 이 시기 서구고고학에서만 발견되지는 않는다. 주지하듯, 중국의 區系類型論 역시 물질자료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각각을 어느 수준의 인간집단과 연결시킬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과정주의 고고학(Processual Archaeology)은 문화사고고학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물질자료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종족집단이나 제작전통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위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물의 형태는 물론 유물복합체의 구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면서, 문화사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규범성에 대한 믿음’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르드와 빈포드 간에 발생한 유명한 무스테리안 논쟁은 문화사고고학과 과정주의고고학의 충돌을 대표하는 예인데, 보르드가 유물구성의 차이를 집단의 차이로 단순규정해 버린

4 Willey, G. and J. Sabloff, 1993,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third edition, W. H. Freeman and Co.

5 Willey and Sabloff, 위의 책.

것에 대한 빈포드의 반발로부터 시작되었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⁶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이 특히 문화사고고학의 물질문화와 종족집단의 직결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서 이 연결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선언’적 주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⁷ 특히, 고대문헌에 나오는 종족의 분포 및 강역과 이동경로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유럽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당연시하는 고대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을 향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이 영국의 데이비드 클라크이다. 클라크 역시 문화에 대한 규범적 생각과 특정유물을 특정종족집단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그래도 물질문화의 차이를 통해 과거 인간집단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적어도 유물복합체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은 어느 정도 과거의 집단을 추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⁸ 그는 ‘종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물복합체 수준에서 순수히 고고학적으로 집단을 변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클라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그의 주된 연구 목적이 유럽대륙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데인족’, ‘마이킹족’ 등의 유물복합체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클라크는 이전 시기 문화사고고학자들의 접근법이나 종족과 물질자료의 비과학적 연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사고고학의 전제를 암암리에 이어 받되 그 방법을 세련화,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 고고학은 이른바 탈과정주의(Post-processual Archaeology)의 문제제기에 의해 또 다른 변화를 겪는다.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문제제기는 당시의 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이론에 영향을 받은 바 큰데, 이에 따라 당시 일반적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화두 중 하나였던, 과정주의고고학에서는 금기어였던 ‘종족성’과 ‘정체성’이 다시 주요연구과제로 떠오른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탈과정주의의 종족성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과 접근, 그리고 종족성에 대한 생각이 1950년대 이전 문화사고고학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탈과정

6 Binford, L. R., 1973, Inter-assembly variability: the Mousterian and the ‘functional’ argument. In C. Renfrew ed. *The Explanation of Culture Change*, pp. 227–254. Duckworth.

7 Watson, P. J., S. LeBlanc, C. Redman, 1971. *Explanation in Archeology: An Explicitly Scientific Approach*. Columbia University Press.

8 Clarke, D. L., 1968. *Analytical Archaeology*. Routledge.

주의 고고학 역시 과정주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기반한 문화사고고학의 특정물질자료와 종족집단의 일대일 연결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 클라크도 비판대상에 오른다.⁹ 그들은 물질문화와 집단을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허상과 편견의 소산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대신 정체성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구속하고, 종족정체성이 어떻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손쉽게 이용되거나 변용될 수 있으며, 언제 어떤 경우에 개인이 그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고고학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인간이 새로운 물질적 양식을 창조, 모방하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이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탈과정주의의 문제제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에게도 곧바로 수용되었으며, 이제는 세계고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이 되었다.

2 실제 사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질자료의 양식적 차이(또는 고고학자료의 형태적-기술적 차이나 유물복합체의 차이)가 인간의 종족집단이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이후 곧바로 많은 민족지적, 사회학적 사례의 조사와 중세시대 이후의 고고학적 연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례조사는 거의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이루어져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모든 고고학자들이 이 사례들을 통해 배운 것은 ‘물질문화의 차이가 종족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가’, ‘물질문화의 분포경계가 종족집단의 경계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는 것은 실제적 차원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토기와 각종 도구의 형태와 제작기술, 옷 입는 방식, 식생활 및 관련도구, 주거형태 등이 완전히 다르고 그 분포경계가 명확함에도 동일한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고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물질문화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으로 인식하면서 경쟁 또는 긴장관계에 놓인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간에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집단의 토기제작방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다른 토기를 만들고 생활방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례에서는 한 마을에서는 이런 토기를 만들던 사

9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Routledge.
Gosden, C. 1999.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Routledge.

람이 다른 마을로 이주하고서는 다른 형태의 토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 집단으로부터 여러가지의 토기제작 방식을 습득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토기를 제작하는 사례 등도 보고되어 있다.

또한, 여러 문화요소 중 어느 것이 종족집단을 가장 잘 구별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일반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민족지 조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설사 문화의 특정요소를 통해 종족구분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구분기준이 어떤 사례에서는 주거형태,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옷 입는 방식, 또 다른 경우에는 토기문양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사 한 시점에 물질문화 일부 요소가 종족성을 표상하는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준이 무의미해지고 다른 기준에 의해 다르게 종족간 차별화가 진행되는 사례, 즉 한 시점에 유의미하였던 구분기준이 바로 다음 세대에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되는 사례 역시 수많이 보고되어 있다.

한마디로, 물질문화의 차이가 종족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셸 헤그먼의 표현에 따르자면, "어떨 때에는 그러하고 어떨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¹⁰ 결국 이러한 연구성과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문화의 공간적 차이와 집단의 차이 사이의 관계는 결코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물질문화의 차이가 곧 집단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또는 차이를 보여야만 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아무리 연구과정상의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유물복합체와 집단을 연결시키려는 데이비드 클라크의 접근 역시 실제로는 어떠한 과학적-경험적 근거도 확보할 수 없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즉, 물질문화와 종족집단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도 일반화시킬 수 없고, 전제되어서도 안되는 문제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1) 왜 어떤 경우에는 물질문화의 차이가 종족성을 보이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 (2) 연구자에게 간취되는 물질문화상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주어진 맥락 하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10 Hegmon, M. 1998. Technology, style, and social practice: archaeological approaches. In *The Archaeology of Social Boundaries*, Edited by M. T. Stark, pp. 264–280.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III

한국에서의 고고학자료와 종족성에 대한 인식

한국원삼국시대 이후의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종족성이라는 말을 매우 즐겨 쓰고 있지만, 실제로 종족성 자체를 다룬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신, 제목이나 키워드에 이 단어가 들어간 연구의 거의 대부분은 문헌이나 고고학자료를 이용해 특정 종족에 실체를 부여하여 경계를 짓고, 특정시점-특정공간에 있는 일군의 고고학 자료가 문헌에 나오는 어떤 종족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를 ‘판정’하는 작업이었다. 즉, 한국역사고고학과 고대사에서의 ‘종족성 연구’라 함은 ‘종족 판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서 물질문화의 차이 또는 특정 고고학유물의 차이를 바탕으로 종족을 설정하거나 문헌에 나오는 종족명을 일대일 연결시키고 나아가 경계선까지 찾으려 하는 시도의 문제점, 허구성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비판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도외시되면서 실제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고고학 연구사를 통해 왜 그러한지를 알아보자.

1 1980년대까지의 논의

한국고고학사의 이른 시기 고고학의 주 연구대상은 역사시대였다. 일제시대의 조사가 주로 삼국의 수도였던 경주나 평양 등지의 역사시대 유적에 집중되기도 하였거니와, 한국고고학의 태두인 삼불 김원용 교수의 초기연구가 가장 천착하였던 부분 중 하나가 신라토기와 가야토기의 변별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¹² 다른 참고자료가 없었던 선사시대의 연구보다는 문헌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역사시대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되었을 것과, 그 연구가 문헌기록과 그곳에 나타나는 집단명칭을 적극 이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60년대 후반들어 김원용의 주 연구대상이 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 및 청동기시대 형성까지 확대되었지만, 선사시대 연구목적과 방법론 역시 역사시

11 예를 들어,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그 외에도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여러 서적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12 김원용, 1960, 신라토기의 연구, 을유문화사.

대 연구의 그것과 다르기 어려웠다. 한민족의 형성 주체가 어떤 종족이었는지, 이 종족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최대관심사였음은 그의 저작에서 잘 드러난다.¹³ 즉, 한국고고학의 형성시점부터 고고학적 자료는 집단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이용되고 있었으며, 역사시대의 경우에는 문헌사료에 나오는 집단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변별하는가가 고고학의 주된 목적이자 부여된 임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처음부터 한국 역사시대의 고고학은 문헌사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으며, 역사고고학의 임무가 역사기록을 물질적으로 증거해내는 데에 있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역사기록을 이용하면 이 시기의 편년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인 바, 문헌사와 고고학의 상호의존 및 증거 상호제공자로서의 결속은 단단해질 수 있었다.

역사시대 고고학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별 이견 제시없이 지속되다가, 1980년대 말 들어 공고화 및 세련화된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연구자는 데이빗 클라크의 assemblage 개념을 도입, 적용한 박순발이다. 박순발은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토기군을 구분하는 최상위 기준을 제작기술로 삼고 이것을 유형(클라크의 assemblage)이라 설정한 뒤 이것을 제작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⁴ 이것은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백제토기(몽촌유형)와 고구려토기(구의동유형)를 변별해 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유형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몽촌토성의 발굴보고서에서는 기술전통의 차이가 집단을 변별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에 바탕한 고구려토기와 백제토기의 변별은 학사적으로 중요하다.

2 중도유형문화의 설정과 예계집단

이후, 박순발의 유형 개념은 차츰 변화하면서 적용례가 늘어나는데, 기술전통보다는 여러 문화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일군의 조합으로 유형이 설정되기 시작한다. <죽석분구묘, 여/철자형 주거지, 중도식무문토기>의 집합으로 설정된 중도유형은 이것의 대표적인 예이며,¹⁵ 박순발은 이를 선사시대로도 확대적용하여 ‘미사리유형’, ‘혼암리유형’ 등을 명명한다.¹⁶ 박순발의 원래 몽촌토성 출토토기의 유형 설정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박순발의 이후 연구

13 김원용,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4 박순발, 1989, 한강유역 백제토기의 변천과 몽촌토성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박순발,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중도유형문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6.

16 박순발, 1999, 혼암리 유형 형성과정의 재검토, 호서고고학 1.

박순발,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과, 호서고고학 9.

와 그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에 의해 설정된 여러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물질문화와 생활방식 및 정체성을 공유한 인간집단’이다.¹⁷

박순발의 중도유형 설정의 가장 큰 목적이 마한 및 한성백제와 구별될 수 있는 濊系 집단의 설정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도유형을 설정하면서 박순발의 유형 설정 방법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필자가 이해하건대, 첫째 중도유형의 설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식무문토기가 서울은 물론 마한의 영역이라 생각되는 충청지역까지 분포하고 있고, 둘째 이미 그가 이전에 행한 원삼국시대 편년에서도 중도식무문토기의 비율이 시간적 편년의 근거로 사용된 바 있어, 적어도 이 시기에는 토기제작기술만이 집단변별의 절대기준이 되기는 어려웠던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묘제와 주거지도 유형설정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도유형의 설정방법은 이전의 몽촌유형과 구의동유형의 설정에 비해 데이비드 클라크의 원래 방법에 좀더 충실하다.

박순발의 중도유형 설정과 한성양식(또는 몽촌유형)과의 대비가 학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한성백제 성립기에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세력, 즉 마한, 백제, 말갈을 고고학적으로 깔끔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고고학과 고대사 양 분야 모두에서 삼국사기의 집단명칭과 고고학적 자료는 밀접히 결합되면서 상호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진다. 중부지역의 발굴이 증가하고 자료의 양이 급증하면서 원래 박순발이 제시한 중도유형의 설정기준들의 지리적 분포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지역성이 차츰 간취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철자 주거지와 좁석식분구묘의 분포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고, 마한이라 통칭되었던 경기남부와 호서지역에서 묘제상으로 선명한 지역차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성과를 바탕으로 박순발이 원래 제시하였던 중도유형의 정의와 그를 통한 마한과의 대비만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도유형의 정의 자체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의견, 육각형주거지의 분포나 주거지 내부시설 형식의 분포를 통해 예계집단의 범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의견, 지역적 다양성을 감안할 때 중도유형분포권이라 일괄되었던 지역을 세분해야 한다는 의견, 문헌 기사를 재해석하여 북쪽지역을 한예로 따로 구분해 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

17 선사시대, 특히 청동기시대 연구에서의 무리한 유형설정과 이의 과도한 남용은 발표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고 있다.¹⁸

설정 초기에 비교적 명확하였다고 생각되었던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와 각 문화요소 조합의 선명성이 자료증가에 따라 모호해지고 다양성이 간취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중도유형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중부지역의 예계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중도유형이 수정되거나 세분되어야 한다면, 예계집단이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문헌에 나오는 이 시기 중부지역 종족집단은 마한, 예, 맥의 3례에 불과하여,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감안할 경우, 연결시킬 수 있는 종족후보군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종족명들을 조합 또는 분리하여, 한예 또는 영서예, 영동예, 예맥, 더 나아가 신분고국 등으로 후보군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후보군의 수는 물질자료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기에 한참 부족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고고학과 고대사가 즐겨 사용해 왔던 연구방법, 즉 고고학자료와 문헌상의 종족의 일대일 대응을 통한 상호지지는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된다.

중부지역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집단이 많았을 것이라는 권오영의 견해는 합리적이다.¹⁹ 하지만, 백제의 성장 및 확산과정 설명에 삼국사기의 기록과 거기에서 거론되는 집단들의 상호관계가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종족이나 집단이 고고학적으로만 설정된다면 고대사와 고고학의 현재의 밀월관계는 깨지게 된다. 문헌사료에 나오지 않는 집단을 역사학적인 설명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고대사에서 즐겨 탐구하는 주제인 집단강역을 더 이상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는 물질문화의 동질성은 한 (종족)집단을 의미하고, 상이성은 서로 다른 집단을 의미한다는 전제를 고수하는 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중도유형이 예계집단을 의미한다는 박순발의 견해는 또다른 논쟁거리를 파생시켰는데, 한국고고학에서 종족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기원지 논쟁이다. 중도식무문토기가 서북지방에서 기원하였는지, 아니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기

18 이와 관련한 제견해 중 일부만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박종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

송만영, 2018, 중도식 주거 외출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고고연구* 26.

19 권오영,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원지로 하는지의 논란이 대표적이다.²⁰ 이 역시 일단 새로운 물질문화가 파악되면 그 다음 연구절차는 그 기원지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한국고고학 특유의 진파론과, 종족집단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딘가에 혈연적 기원이 최초형성된 원향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IV

중부지역 물질문화의 분포와 경계

물질문화의 분포는 지역에 따라 점이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비교적 뚜렷한 경계를 보이기도 한다. 위에 논하였듯 이 경계가 종족의 경계나 차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물질문화가 비교적 선명한 경계를 보인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나아가 이 경계가 변화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를 살피기 위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청동기시대부터 한성백제 탄생시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되짚어 본다.

1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차령 이남에 송국리문화가 형성된 이후, 남부지방의 송국리문화 분포권과 그 이북의 공렬토기 분포권의 경계는 비교적 선명하다. 최근 송국리문화의 요소가 경기남부에서 보이고 있고, 심지어 강원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경계는 한국선사시대 그 어떤 케이스보다도 선명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양 문화가 일정 경계를 사이에 두고 갈등 또는 경쟁하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되 물질문화만 다르게 유지하였던 것인지, 생계경제에서의 차이가 이 경계를 발생시켰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며, 추후의 연구대상이다.

20 예를 들자면, 박순발,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유은식, 2011, 동북계토기로 본 강원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과 계통, 한국기독교박물관지 7.

이 시기 중부지역에서 특기할만한 양상으로는 특정지점으로의 인구밀집의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유적의 규모에서 서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청동기시대 전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일부지점에 대규모 취락이 등장하고 이 취락의 규모는 다른 취락을 압도한다. 유명한 중도유적 및 인접한 여러 유적은 물론이려니와, 화천, 인천 검단지구, 화성 등지에서 보이는 대규모의 취락들은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에 중부지역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에 왜 인구밀집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구밀집은 밀집지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예를 들어, 공간적 범위는 좁되 강도가 높은)의 형성을 유도하였을 것임은 추측할 수 있다.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이 이전 시기의 송국리-공렬 간의 경계와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상향조정되고 있고, 반드시 세형동검과 같은 맥락에서만 원형점토대토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학계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의문스러운 것은 이전 시기 송국리분포권이었던 호서와 호남지역의 그 많은 분묘유적에서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됨에도 불구하고 원형점토대토기 단순취락의 발견이 극히 희소하며 상당수의 원형점토대토기 비분묘유적은 대체로 실체가 불분명한 구상유구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반면, 공렬토기 분포권이었던 중부지역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순취락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분묘와 청동기의 밀도는 남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원형점토대토기가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에 모두 등장하기는 하지만, 공반유물과 취락정형 및 분묘밀도에서 두 지역간의 차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덜 선명함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중부지역에서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간혹 서해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아주 간헐적으로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 수와 밀도는 남해안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적어도 중부지역에서는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2 원삼국시대

남한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 들어 고고학 자료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종족의 명칭이 중국측 사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물질문화요소들의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두어 이 시기의 특징을 들만 꼽자면, (1)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중부

지역과 그 이남 지역 사이의 물질문화의 분포경계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것과 (2) 경기, 강원, 호서, 호남에서 지역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여, 그의 한 예로 이른바 중도유형이라 지칭되는 물질문화가 중부지역에 설정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위에 논하였듯,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큰 틀에서 차령산맥 또는 경기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물질문화 분포상에 차이가 간취 가능하였지만, 원삼국시대 들어서면서 이 경계는 큰 의미를 잃게 되며, 물질문화는 매우 새로운 분포 양상을 보이면서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중부지역으로만 한정한다고 해도, 주거지상으로는 사주식, 여/철자, 방형, 원형주거지 등이, 분묘상으로는 분구묘, 주구토광묘, 단순토광묘, 층석분구묘 등이 지역에 따라 비교적 분명한 경계를 지니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면서 공존한다. 토기상으로도 경질무문토기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차이를 보인다. 각 요소의 분포가 매우 복잡한 것은 맞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분포의 경계가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달라져, 이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동서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차령산맥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제 더 이상 물질문화분포에 절대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완전한 물질문화분포권의 재편은 아마도 외적 조건의 큰 변화와 내적반응이 복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어찌됐건, 이러한 물질문화 각 요소 분포양상의 복잡성은 지역적 다양성의 급증이라는 양상과 관련될 수 밖에 없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한과 예를 구분하여 대비하는 정도에서 이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최근 10여년간 자료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간취되는 물질문화상의 다양성은 단지 마한과 예를 구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바 있듯,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묘제, 주거지형태, 토기 등 각 문화요소의 지역적 분포 및 경계가 일관적이지 않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며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다는 점이다. 만약 여러 요소가 일관되게 공반하는 분포를 보인다면 그나마 이 분포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문헌사료에 나오는 종족명과 대응시킬 최소한의 단초나마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원삼국시대 경기, 강원, 호서, 호남의 경우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3 궁금한 점

물질문화를 얼마나 세분하느냐,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어 구분하느냐에 따라 구분의 결과물과 그 분포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간집단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이것을

차치한다고 해도, 어느 분류결과가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문헌상 나오는 여러 (종족) 집단과 대응시키느냐에 대한 정답은 결코 원론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묘제는 전통성이 강한 것이니 이걸 구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거지는 일반인들이 항상 사는 것이니 이걸 구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토기 제작기술이 더 우선적인 구분기준이 되어 한다는 것, 또는 식문화를 구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일련의 주장이 있기도 하여 왔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에 앞서 종족집단 구분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위의 주장 중 하나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경우는 매우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더 잘 적용될 수 있으며, 아예 위의 모든 요소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종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례가 많음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1) 원삼국시대 들어 새로이 발생하는 물질문화 분포권의 완전 재편과 (2) 세부적 다양성의 증가를 인간집단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원삼국시대 들어 호서, 호남 및 경기서부와 남부가 묘제, 토기, 주거지 모두에서 지역적 차이가 이전 시기에 비해 급증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고고학적으로 볼 때 세부적 지역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일괄적으로 마한 분포지역으로 고고학, 고대사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고 사료상(특히 삼국지)에서도 그리 표현되는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마한 동일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지탱하고 있었으며, 아니라면 왜 동일종족으로 이해되어 왔나?

둘째, 한성백제의 등장지역으로 지목되는 서울지역은 원삼국시대 물질문화상으로 볼 때 경기남부 및 호서지역, 그리고 인천지역과 달리 주거지와 분묘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주거지 형태를 볼 때 중도유형으로 일컬어지고 더 나아가 종족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한강상류와 영서지역과 더 많이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의 한성백제는 마한의 일원으로 역사기록에 등재되어 있는가? 또 왜 유사한 주거문화를 보이는 영서지역과의 갈등기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반면 물질문화상 차이를 보이는 마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문헌상에 나타나는가?

V

가설 제시

1 종족성, 정체성, 동화와 구별짓기

위에 논한 바 있듯, 정체성과 종족성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가변적인 개념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타자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구분기준은 그리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회 내에 일종의 실체로 존재하면서 구성원 전원에게 공유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 사회 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 개인은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정체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뀐다. 위에 말한 바 있듯, 종족성은 혈연 또는 출자가 동일하고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 실체라기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현상이라 칭하는 것이 안전하다.²¹

한편,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종족성이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범주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느냐에 좌우되기도 하며, 편견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스케일 상으로 이 범주는 세분되기도 하며 대별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내린 상대방의 정체성이나 종족의 규정이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권오영이 적확히 지적하였듯 타자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를 규정할 수 있다.²²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라 간주되거나, 그들이 아시아인은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중국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때 분개하는 경우는 많다. 또한 우리가 그 많은 아프리카인을 하나의 단위로 일괄하면서 동일한 특징을 부여하는 편견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터키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고 터키를 칭찬하다가, 그 사람의 국적은 터키이며 터키영토 내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터키정부와 국민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쿠르드족이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는 타자의 출신집단을 규정하거나 칭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느 집단 출신이냐를 우선적으로 규정한다.

21 Jones, 앞의 책.

22 권오영, 앞의 글.

이렇듯, 종족성이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실체로 인식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이로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과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를 그들의 일원으로 규정하고자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인정여부에 상관없이), 반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의 공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이 사회 내적으로 계급적 갈등이 있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내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내선일체’나 ‘대동아공영권’이니 하는 구호가 강조되었던 것 역시 정체성의 정치적 이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내에도 매우 잘 알려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구별짓기(distinction)와 동화(同化, assimilation)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²³ 이 개념을 이용하여 다니엘 밀러(Miller)는 구별짓기와 동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도의 토기 변화과정을 민족지적으로 추적한 바 있다.²⁴ 그는 엄격한 카스트 계급사회인 인도에서 최하층민이 자신의 신분상승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 자신보다 위 계급의 토기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하자(동화), 위 계급에서는 최하층민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구별짓기) 다시 그 위 계급의 토기를 제작사용하고(동화), 다시 그 위 계급에서는 또 구별짓기를 위해 그 위 계급의 토기를 모방제작하며, 최상층에서는 다시 스스로를 하위계급과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토기를 제작이용하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전략으로서 동화와 구별짓기가 사회전체의 토기 형태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정체성과 종족성의 형성은 상당수의 경우 우리와 타자를 동화하느냐 구별짓느냐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서 사회적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내(또는 우리)가 누구와 같고 싶고 누구와는 구별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이해득실과 정보에 따라 그리고 정치-사회-경제적 전략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만약 범주화에 관련된 상황과 이해득실 관계가 변한다면, 그리고 타자가 나에게 대한 정보가 변한다면, 이 범주화의 결과물 역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기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스케일에서 우리 또는 타자를 범주화하는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이해진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주화 작업이란 있

23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24 Miller, D. 1985. *Artefacts as Categories: A Study of Ceramic Variability in Central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을 수 없으며, 고정되고 항구여일한 정체성이나 종족성 역시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 말은 곧 종족적 정체성의 의도적 형성이 이념적 지배전략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집단이데올로기의 형성, 출자집단의 새로운 지정 및 혈연적 관계 강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통만들기 등이 흔히 동원되는 세부전략임은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은 물론 고고학과 역사학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2 마한, 백제국, 중도유형

위의 일반적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위의 두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권오영은 사료에 등장하는 마한은 적어도 4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⁵ 이 중 여기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권오영의 첫번째 의미의 마한, 즉 삼국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한이다. 적어도 중도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이 의미의 마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은, 마한은 묘제, 주거지의 극심한 다양성 및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왜 일괄적으로 마한이라 칭해졌는가?

원삼국시대 들어 새로이 발생하는 이 지역성은 이전 시기에 보이던 물질문화의 분포상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데, 분구묘와 사주식 주거지가 서해안을 따라 호남지역부터 한강하류역까지 보이는 양상은 이전 시기에 비해 서해를 중심으로 한 인적, 물적 교류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천, 김포 등으로부터 크게 보아서는 남해안의 늑도를 잇는 해상교류망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며, 서북한, 중국, 일본 등지의 유물이 몇몇 교류거점 유적에서 나타난다는 연구는 많다. 발표자 역시 장란형토기와 U자형토기의 유입이 서해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²⁶ 또한, 멀게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카넬리안 구슬의 호서, 호남지역 분포는 서해를 통한 해상교류망의 광역성까지 보여준다.²⁷ 본 발표자가 보기에, 이러한 서해를 통한 대내외적 교류망의 형성이 청동기시대 이래 초기철기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중부지역 대 호서-호남지역 간 물질문화상의 비교적 뚜렷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원삼국시대 들어 오히려 남북보다는 동서의 물질적 차이가 좀더 선명해지는 것은 새로운 지역성의 형성에 서해안로부터의 거리(즉, 해상교류망에의 참여 용이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25 권오영, 2010, 위의 글.

26 김장석, 2012, 남한지역 장란형토기의 등장과 확산, 고고학 11-3.

김장석, 2014, 중부지역 격자문타날토기와 U자형토기의 등장, 한국고고학보 90.

27 허진아, 2018,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 석제 카넬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중국과의 해상교류망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중국측은 적어도 이들 교류파트너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을 것이고, 삼국지의 마한은 해상을 통한 교류망에 참여하는 일련의 남한지역 서쪽의 일군의 집단을 중국측에서 부르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삼국지에 마한에 54국이 있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적어도 중국측에서는 이 54국이 서로 다른 ‘종족’으로까지 인지되지는 않았거나 이들 제세력을 구태여 세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즉, 마한에서는 묘제, 주거지 등 여러 부분에서 지역적 차이가 확실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알 필요도 없었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범주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마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묘제나 주거지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을 동일 종족이라 생각하는 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위의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서울에 위치한 국가성립 이전의 伯濟國을 고고학적 증거만을 바탕으로 마한의 일부로 놓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인접한 김포와 비교할 때에도 물질문화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국은 왜 경기서부와 남부, 그리고 호서 등지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영서 지역과 차별되게 마한 54국의 일원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물질문화상만 놓고 종족을 판정한다면, 그리고 마한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종족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여/철자 주거지가 분포하는 서울지역을 마한의 일부로 놓기는 쉽지 않다. 만약 위에서 필자가 추측한 바와 같이 대중국 해상교류망에 참여한 일군의 세력을 마한이라 삼국지에서 칭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성립 단계 이전의 백제국이 해상교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고고학적 증거도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데, 국가성립 이후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물품의 발견이 급증한다. 이에 대해 한성백제가 국가성립과정에서 대중국 교섭망을 장악한 결과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완전장악까지는 몰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교류망에 참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즉, 이전 시기 백제국에 비해 대중국교류 및 주도권의 정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伯濟國은 성장단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서해를 통한 대중국 교류망 참여를 시도하고 그 정도를 높여갔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서해교류망 참여의 준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측에 마한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정치적 전략, 다시 말해 마한 동화 전략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 형태가 무엇이었던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해상교류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마한 세력과 연합을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삼국사기에서 보이듯 백제가 마한주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일

련의 정치적 제스처가 이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독자적으로 대중국 접촉을 시도하면서 마한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을 수도 있다.

백제국의 마한 동화 전략은 필수적으로 중도유형집단과의 구별짓기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 전략 이전 시점에 서울지역 주민이 물질문화의 많은 부분을 공유한 동쪽의 한강상류 및 영서지역 주민과 종족적 정체성까지 공유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거리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영서지역과 서울지역의 여/철자형 주거지의 분포지역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아무리 백제국이 마한으로 자신을 동화시키고 자신들과 구별짓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주거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즉, 백제국의 지배층이 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마한동화-탈중도유형 전략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초기시점부터 이 전략이 모든 주민의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일거에 바꾸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을 마한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울이 마한지역에 속하는지 예의 영역에 놓여 있는지를 판정하고자 하는 연구도 없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그 자체로 잘못 던져진 질문일 수 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종족적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백제국의 對중도유형 구별짓기 전략 채택은 어쩌면 영서와 한강상류지역의 집단들에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 왔을 수 있다. 따라서, 대외교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야기시켰을 것이며, 이것은 지리적 여건상 해상보다는 육로를 통해 개척되어야 했을 것이다. 가평, 춘천 등 영서지역에서 한강하류역보다 낙랑과의 육로를 통한 교류의 증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반작용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사료상에 보이는 예의 백제와의 갈등도 어쩌면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만약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한성백제의 성립과정에서 서울지역과 차별되는 중도유형만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더 나아가 종족정체성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것은 서울 이동 및 영서지역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나 종족간의 분화라기 보다는 백제국의 구별짓기 전략의 결과물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후, 한성백제가 국가단계로 접어들고 노동력징발 및 조세수취체계가 갖추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성백제 중심지와 영서지역의 관계는 또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한성백제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또다른 전략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법천리, 하화계리, 원천리 등의 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VI 결론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서 종족성이라는 말이 즐겨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연구들이 종족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 물질문화 영위자의 종족을 판정하려는 시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서 물질문화와 종족집단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론과 불가피론이 양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는 대체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후자는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 초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헌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이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자를 연결시키지는 것이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다. 고고학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문화의 지역성은 결국 그 원인이 설명되어야만 하는 대상인데, 종족치는 지역성 유발의 중요한 후보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문헌에 나타나는 제 집단(종족이 되었건, 정치체가 되었건 간에 상관없이)은 이 해석에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물질문화의 지역성은 종족을 의미하므로 그 경계를 통해 종족의 분포를 알 수 있다”는 말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문제는 고고학자료는 문헌상의 종족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며, 이것이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 단정하는 것이다. 어차피 한정된 수의 문헌상 종족명을 고고학 자료와 연결시키면서 일종의 등식을 만들다보니 무리수가 남발되는 것이다.²⁸ 이른바 위의 부정론은 사실 물질문화와 종족집단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연결 강박관념과 그로 인한 억측적 단정의 비합리성,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연구방법이자 연구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

28 돌이켜 보건대, 북한과 중국의 고고학자료가 고고학계와 고대사학계에 유입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전반 경 이러한 접근법이 본격화된다. 중국에서는 구계유형론을 통해 고고학자료와 집단을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북한 역시 1960-70년대 고조선 연구에서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와 같은 고고학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을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북한과 중국의 자료와 연구성과가 유입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수교로 중국의 고고학자료를 실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문헌의 부족으로 난관을 겪고 있던 고조선이나 초기고구려의 연구에 고고학자료가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대사학계에 퍼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문헌상에 등장하되 그 실체가 불명확했던 여러 종족들(예를 들어, 선비, 오환, 동호 등등)의 실체와 분포범위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정의하고 證史하려는 확신에 찬 시도가 당시의 고대사는 물론 고고학계 신진/소장 연구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것을 필자는 지켜보아 왔다. 이 시도가 고조선이나 초기 고구려 연구에서 중요한 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고고학과 고대사 상호간에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이 작업이 시도되었던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제기이다. 따라서, 부정론과 불가피론이라 칭해지는 두 입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원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사안이되, 불가피성만을 내세울 때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고대문헌에 나오는 종족명과 사건을 고고학자료와 일대일로 연결시키려는 연구는 물론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영국의 고고학자 티모시 챔피언은 “역사기록의 독재(the tyranny of the historical records)”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바 있다.²⁹ 그에 의하면, 역사기록의 독재란 물질자료에 기반한 고고학연구가 문헌기록에 의해 원천적으로 종속되며, 연구질문과 증거의 전체적 개념들이 역사기록에 의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또 존 모어랜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고고학은 역사학의 시녀(Archaeology is the handmaiden of history)”라는 조롱섞인 말로써 비판한 바도 있다.³⁰ 고대사 및 초기역사시대 고고학의 연구조건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유럽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각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문헌에 나오는 종족과 그 경계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필자는 문헌을 가장 최우선적인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고대사학계에서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종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종족이 분석의 단위로 이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상당수의 고대사 논문에서 마치 종족은 현재 국가사회에서 여권을 부여받은 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암암리에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강역과 경계는 명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적 전제와 함께 문헌에 나오는 몇 줄의 서술을 바탕으로 영토를 추정하고 경계를 긋는다. 필자는 고대사에서 애용되는 역사지리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이 방식의 과도한 남용과 확대해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모순되기도 하는 문헌상의 기록을 역사지리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이러한 논쟁은 특정지점이 어느 종족의 영토였는가 하는 식으로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매우 역설적이게도, 집단의 경계, 집단의 포괄 범위 및 내용, 집단의 명칭, 구

29 Champion, T. 1990. Medieval Archaeology and the Tyranny of the Historical Record. In *From the Baltic to the Black Sea: Studies in Medieval Archaeology*, edited by D. Austin and L. Alcock, 79–95. London: Unwin Hyman.

30 Moreland, J. 2006. “Archaeology and Texts: Subservience or Enlighten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5: 135–151.

성원의 출자 등이 얼마나 쉽게 변용되고 정치적으로 재구성되는지는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물질문화의 지역성은 선사-역사를 통틀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 지역성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종족)집단의 차이는 이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간취되는 이러한 지역성은 이것이 왜 발생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지, 집단판정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역사가 '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많이 보아 왔다. 물론 삼국시대의 토기는 매우 훌륭한 집단판정의 도구이며, 그 분포를 통해 우리는 삼국시대의 여러 면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경우가 그리하니 물질문화의 특징요소가 원천적으로 모든 집단판정에 좋은 도구가 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며,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점은 수많은 민족지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학사 초기에 종족과 물질문화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차후의 연구를 위한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고학자료는 증가하고 있으며 세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물질자료의 시공간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인지되고 있지만, 불행히도 고대사의 문헌기록, 특히 종족명 및 국가명과 관련된 기록이 지금보다 현저히 풍부해지지 않을 것 같다. 즉, 고고학자료와 문헌기록의 양적 괴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지만, 양자를 일대일 대응시키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하는 한,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던져지는 연구질문 자체는 지금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물질자료가 좀더 유용한 새 연구질문을 창출하고 답하는 데 이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_____,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 김원용, 1960, 신라토기의 연구, 을유문화사.
_____,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장석, 2012, 남한지역 장란형토기의 등장과 확산, *고고학* 11-3.
_____, 2014, 중부지역 격자문타날토기와 U자형토기의 등장, *한국고고학보* 90.
- 박순발, 1989, 한강유역 백제토기의 변천과 몽촌토성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중도유형문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6.
_____, 1999, 혼암리 유형 형성과정의 재검토, *호서고고학* 1.
_____,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_____,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 박중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
- 송만영, 2018, 중도식 주거 외출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고고연구* 26.
- 유은식, 2011, 동북계토기로 본 강원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과 계통, *한국기독교박물관지* 7.
- 허진아, 2018,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 석제 카벨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 Binford, L. R., 1973, Interassemblage variability: the Mousterian and the 'functional' argument. In C. Renfrew ed. *The Explanation of Culture Change*, pp. 227-254. Duckworth.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mpion, T. 1990. Medieval Archaeology and the Tyranny of the Historical Record. In *From the Baltic to the Black Sea: Studies in Medieval Archaeology*, edited by D. Austin and L. Alcock, 79-95. London: Unwin Hyman.
- Clarke, D. L., 1968, *Analytical Archaeology*. Routledge.
- Gosden, C. 1999.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Routledge.
- Hegmon, M. 1998. Technology, style, and social practice: archaeological approaches. In *The Archaeology of Social Boundaries*. Edited by M. T. Stark, pp. 264-280.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Routledge.
- Miller, D. 1985. *Artefacts as Categories: A Study of Ceramic Variability in Central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land, J. 2006. "Archaeology and Texts: Subservience or Enlighten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5.
- Trigger, B.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P. J., S. LeBlanc, C. Redman, 1971. *Explanation in Archeology: An Explicitly Scientific Approach*. Columbia University Press.
- Wiley, G. and J. Sabloff, 1993,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third edition, W. H. Freeman and Co.

•

옥저계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정체성과 대외 교류

강인욱·고영민



옥저계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정체성과 대외 교류

강 인 옥 경희대학교
고 영 민 국립김해박물관

Contents

- I. 서론
- II. 시기별 옥저계 문화권의 전개
- III. 고찰
- IV. 결론 : 동아시아 속 중도식토기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I

서론

본고에서 강원도의 초기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중도식토기문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강원도가 한국 고고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해석의 틀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강원도는 기존의 삼국과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고고학적 해석에서 언제나 비껴왔다. 문명의 중심보다는 축고 험난한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고, 유적과 유물의 해석에 대한 기본 틀은 언제나 삼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의 행정구역이 반드시 과거의 영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원도는 남한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삼국 중심의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거의 잊혀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남한 고고학의 편중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역사 기록에서 고대 강원도 지역의 주민들은 애매하게 예맥이나 말갈이라는 사람으로만 단편적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명칭은 모두 중복되는 것으로 보통 예맥은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와 고조선 계통의 주민을 일컫는다. 그리고 말갈은 발해의 기층세력으로 연해주와 송화강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다른 지역에 살던 예맥과 말갈이 뜬금없이 강원도로 부회되었다는 조선 후기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결 없이 학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춘천지역의 고대 문화 전시를 하면서 예맥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바로 춘천지역을 대표하는 맥국에 대한 표기 때문이었다. 춘천지역은 맥국, 강릉 일대는 예국이 있었다는 간략한 기록뿐 여전히 전반적인 역사 체계에 대한 설명 부족은 최근에 맥국에 대한 여러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동을 대표하는 예국과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맥국의 존재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열띤 지역사회의 논쟁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집단이 있는지 조차도 거의 모른다. 강원도 예맥에 대한 논쟁은 얼마나 우리가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를 재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실제 고고학계에서도 강원도 지역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듯 하지만, 사실 편편일률적이다. 주로 낙랑, 백제, 신라 등 기존에 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를 확장해서 살펴보는 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고고학적 통념을 잠시 접어두고 지역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위치는 사뭇 다르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따라 북한을 거쳐 북방 유라시아와 이어지는 교류의 중심이었다. 후기 구석기시대 이래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연해주와 같은 납작밑토기를 사용했다. 정선 아우라지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는 한반도 최초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시베리아의 청동기 기술이 전래된 것이다. 이후 온돌을 최초로 사용한 두만강 유역의 옥저 문화도 강원도의 철기시대로 이어졌다. 지금 알려진 것도 이 정도이니, 앞으로 강원도와 이웃한 북한에 관한 연구가 심화된다면 선사시대 교류의 중심지인 강원도의 진면목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다.

강원도 고고학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우리나라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의 문제는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 있다. 모든 선진적인 문화를 한나라와 낙랑군으로 대표되는 중국 쪽에 찾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강원도는 변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 강원도의 사람들이 말갈이나 예맥으로 불린 것도 그들의 진면목을 도외시키고 변방으로 간주했던 인식이 남아있던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과연 현재 남한 고고학계의 시각을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중도식토기문화로 대표되는 강원도 지역 고대 문화의 형성과 그 정체성을 밝힐 수 있을까 극히 회의적이다. 중도식토기문화라는 개념이 제기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강원도는 한반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구제발굴로 자료가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자료의 증가가 강원도 고고학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는지는 회의적이다. 현 단계에서 단순히 자료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강원도 고고학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과 교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강원도는 북쪽으로 환동해 지역으로 접했다. 그들에 대한 이해 내지는 해석의 틀을 고민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고고학적 자료의 축적만이 이루어진다면 그 해석의 유효성은 기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비유컨대, 현재의 중도식토기문화에 대한 인식은 신라고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남의 금관가야를 연구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강인욱)는 누차에 걸쳐서 중도식토기문화를 환동해 문화의 거시적 안목에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기존 견해를 종합하여 소개하고, 그 해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맥과 말갈로 대표되는 쉽게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개념의 혼종에 대한 지리-환경적 해석을 하겠다. 이를 통하여 중도식토기문화권을 동북아시아의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시기별 옥저계 문화권의 전개

1 단계(기원전 4~3세기) 환동해 지역 옥저계 문화권의 형성

경질무문토기, 은돌, 잡곡농사, 평지에 발달한 마을이라는 옥저(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특징은 연해주에서 기원전 4세기에 등장했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현지 자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 연대에 대해 회의를 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러한 견해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심증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일일이 비판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옥저계문화가 적어도 기원전 4세기에는 널리 퍼졌다는 점이 최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강인욱 2018). 러시아 연해주 니콜라예프카(Nikolaevka) 유적에서는 축각식 동검과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위나라에서 사용되는 ‘칠원일근(漆垣一鉞)’이라는 화폐가 발견되었다. 전국시대 중원의 위나라가 짧은 기간 사용했던 ‘칠원일근’이라는 원전(圓錢)이 연해주에서 발견된 것은 적어도 기원전 4~3세기에 중원과의 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연해주 니콜라예프카 성지(크로우노프카문화) 출토 위나라 화폐 칠원일근

또한, 길림 장백현 팔도구에서 발견된 인상여(蔞相如, 기원전 270년경 활동)의 동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자료는 ‘옥저’라는 세력이 사서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이미 기원전 4세기경부터 세형동검을 기반으로 등장하여 한반도, 부여 문화권, 그리고 중원지역과 교류했음을 실증한다. 흔히 문헌사의 입장에서는 옥저가 처음 형성시기부터 부여 또는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만 본다. 하지만, 처음 집단이 형성되었을 시기부터 특정한 국가에 복속되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사서에 독립된 집단으로 기록된다는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 아닐 수 없다.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옥저는 고구려나 부여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부터 연해주와 두만강 일대에서 웅거했던 큰 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극동지역과 중원과의 교류는 기원전 4세기를 기점으로 고조선이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연해주 등의 내륙지역과 네트워크를 잇던 후기 고조선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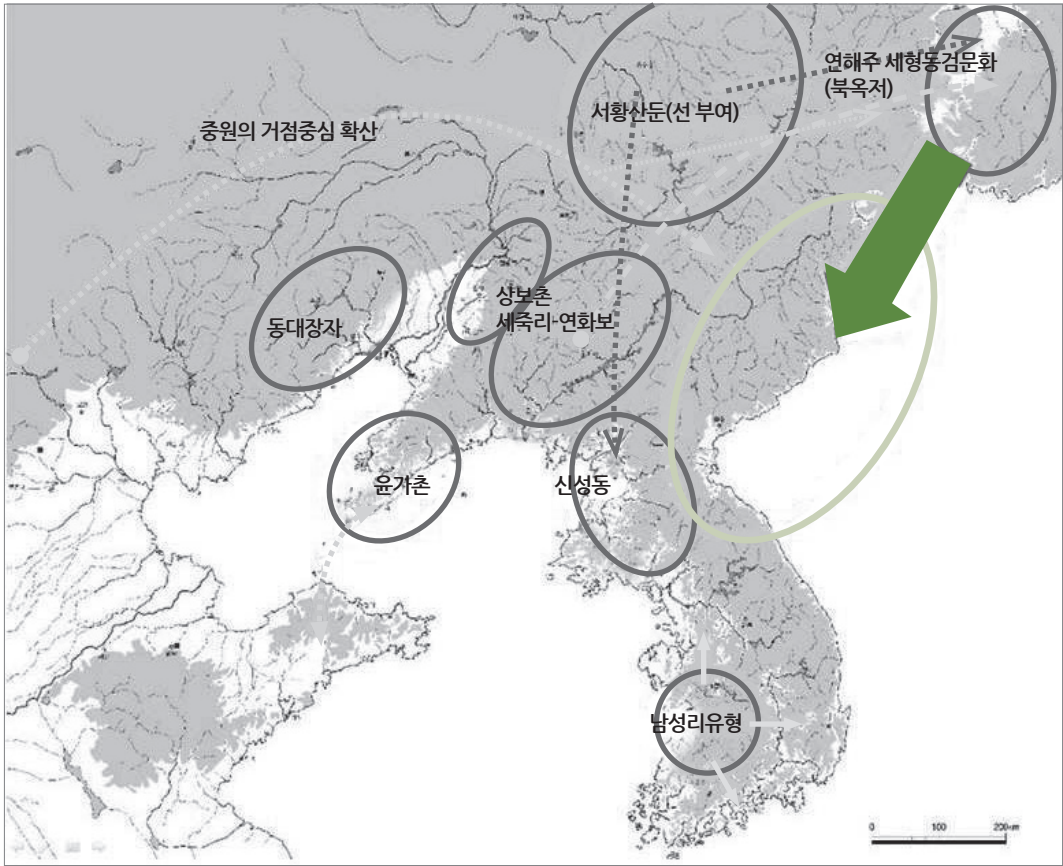


그림 2 기원전 4~3세기 옥저계문화권의 원거리 네트워크(회색 권역)와 문화권의 확산(녹색 화살표)

옥저계문화의 형성과 그 세력을 재평가하는 이유는 그 강력한 문화의 영향력과의 관계있다. 옥저계문화의 등장 시기인 기원전 4세기경에 처음 등장한 외구들식 주거지는 기원전 1세기경에 서쪽으로는 자바이칼의 흥노, 고구려,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반도로 널리 확산되었다. 한편 옥저의 경우 한반도 중부지역의 중도식토기문화와 토기제작기법, 기형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를 들어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기후의 한랭화 및 북방 읍루지역 사람들의 남하, 한사군의 설치 등 이 지역의 변동으로 옥저계의 문화가 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동해안 일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동예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서 어디까지가 동예이고 옥저인가에 대한 다소 탁상공론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자료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정확히 어디까지가 특정 집단임을 규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두만강 유역을 일대로 발달한 새로운 잠곡농사에 기반을 둔 옥저계문화가 중원과 원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두만

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단계(기원전 1~서기 2세기): 옥저계 문화권의 확산과 중도식토기문화의 등장

연해주와 연변일대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형성된 옥저계(크로우노프카)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1세기경부터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두 지역간 문화요소는 토기, 주거지, 온돌, 철기 등 문화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실제 주민의 이주에 의한 문화 확산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확산은 대규모 이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리적인 환경으로 문화의 교류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동했으며, 특수한 기후적 조건이 큰 요인이었다. 대체로 기후한랭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잡곡 농경의 대응을 한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생계 방식은 동해안 지역에 잘 들어맞았다. 이를 필자는 적응잠재력(preadap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강인욱 2007). 비슷한 조건의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생계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이후 한강 중부지역으로 확산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옥저계문화의 생계 모델은 흑룡강 동북지역 삼강평원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강원도의 중도식토기문화는 환동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설명할 때 그 성립배경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러한 철기문화의 확산에는 전반적인 기후한랭화와 잡곡농경이라는 문화적 기반이 깔려 있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도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문화요소가 발견되는데, 바로 사천 늑도의 온돌을 들 수 있다. 사천 늑도 유적은 기원전 2~1세기 대이면서 온돌이 시설되어서, 현재까지 남한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온돌유적이다. 온돌이 거의 필요 없을 한반도 남부지방, 그것도 국제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한 섬에서 온돌이 나왔다는 정황은 주민집단의 남하에 따라 한반도 남부지방에도 크로우노프카 문화 계통 주민들의 영향으로 온돌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각 지역은 국가로 성립되며 각 집단 간의 상호교류권(interaction sphere)이 성립되어서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즉, 자신들의 지리적 환경에 근거한 생산경제의 유리함뿐 아니라 교역과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성립된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본격화되는 낙랑과 한반도 남부지방의 교역, 그리고 변한 지역의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루트의 발달은 연해주 지역과 한반도 동해안에서 출토되는 중국계 유물로 알 수 있다. 또한 낙랑, 한계유물, 풀체식 철부, 타날문 토기, 와질토기, 야요이 토기 등이 중도식토기문화에 대량으로 유입되어서 중도식토기문화의 사회발달에 따른 교류 상이 증대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외 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이 강력한 중도식토기문화권의 세계로 재편됨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삼강평원지역에서는 곧토령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장광재령의 동흥문화와 함께 여러 옥저계문화가 복잡하여 형성한다. 또한, 두만강 유역의 옥저계문화의 중심지는 고구려의 거버넌스로 재편된다. 전반적으로 옥저계문화의 재편기라고 할 수 있다.

3 3단계(서기 2~5세기): 옥저계 문화권의 분기

1) 삼강평원 거대 성지와凸자형 주거지의 출현

삼강평원의 칠성하(七星河)유역과 러시아 경내 아무르 중류지역은 대규모 성지가 발달해서 기존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를 계승하였다. 삼강평원 내의 거대한 성지를 축조한 사람들은 부여-옥저 계통의 문화인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강인욱(2015)에서 삼강평원의 옥저 문화는 두만강 유역에서 발흥한 옥저 계통의 문화가 장광재령을 넘어서 복잡하여서 삼강평원으로 유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옥저 계통의 복잡 증거로는 목단강 유역에 존재하는 부여/옥저 계통의 문화인 동흥문화(東興文化)로 대표된다. 동흥문화에서 옥저계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은 흑룡강 오상(五常) 백기(白旗)유적에 잘 드러난다(그림 3). 백기유적의 수혈주거지는 수혈의 깊이, 벽체 처리, 규모 등은 삼강평원의 곧토령문화와 유사하지만, 토기 상에서는 홍개호 일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동령 대성자 유적과 같은 단결문화 출토의 양이부호, 외반구연호,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곧토령문화의 표지적인 토기 기형인 외이파수호도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의 경우는 홍개호 이남 우수리강 일대의 단결(團結)-크로우노프카 문화, 목단강 유역의 동흥문화(東興文化)는 물론, 부여계 문화와도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여 옥저-부여계 문화의 토기양식을 이룬다.

이렇게 옥저 계통의 문화가 복잡하는 과정은 옥저계 문화가 동해안을 따라서 한반도 동해안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 비교된다. 크로우노프카 문화 주민집단은 추위에 대한 적응잠재력이 높으며, 잡곡농사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 수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들의 남진은 한반도 중부 지역의 중도식토기문화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특성이 비단 남쪽으로만 확산되지 않았고, 홍개호 및 목단강 유역으로도 진출해서 동흥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옥저계 문화는 홍개호와 목단강 유역에서 머물지 않고 삼강평원까지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이유는 삼강평원의 지리적 조건에 있다. 삼강평원은 비록 고위도상으로는 비교적 북쪽에 있다. 게다가 강가의 저지대로 범람이 잦기 때문에 고대 이래로 사람은 이 지역의 점유와 퇴거를 반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한랭·건조화 되는 시기에는 강가의 범람지대가 매우 비옥한 흑토 지대로 변하게 된다. 옥저계 문화의 확산에는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한랭건조한 기후임을 감안하면, 옥저계 문화가 삼강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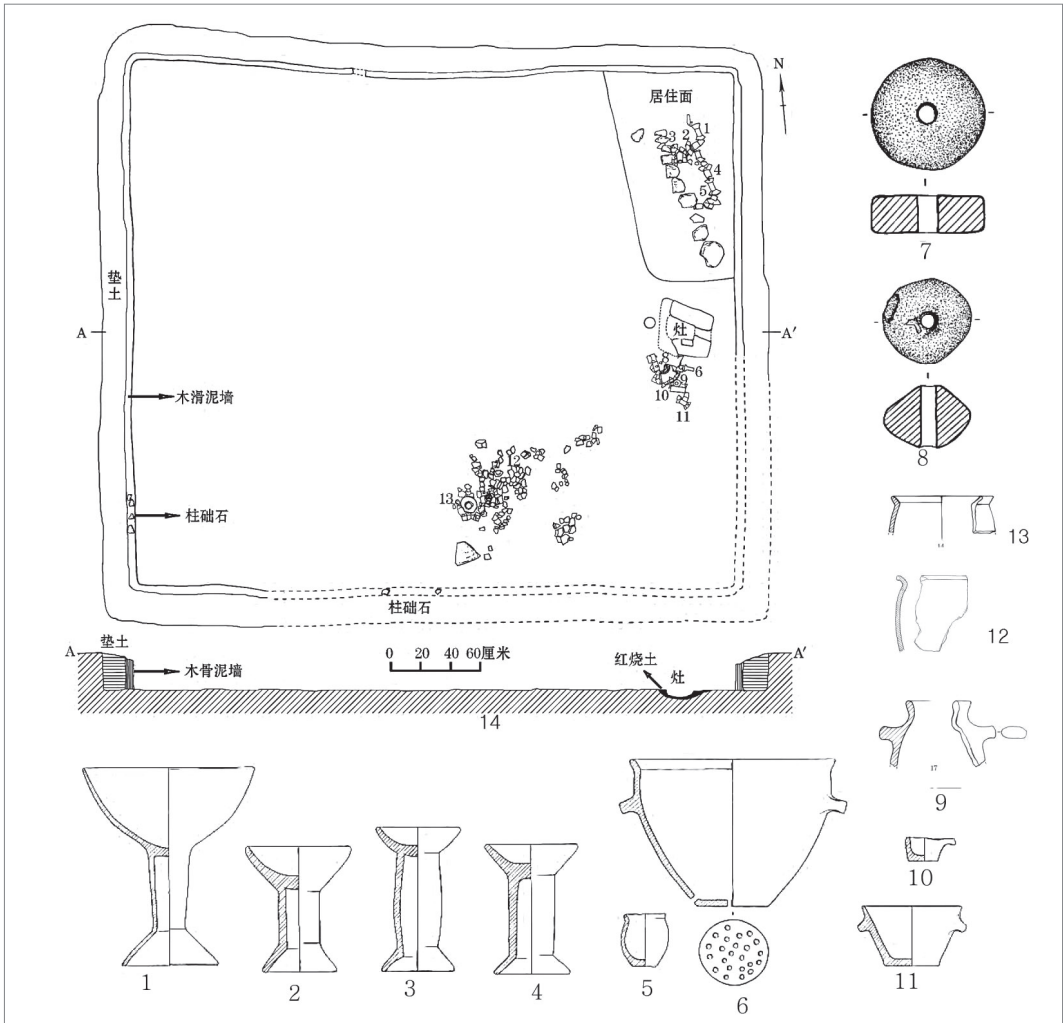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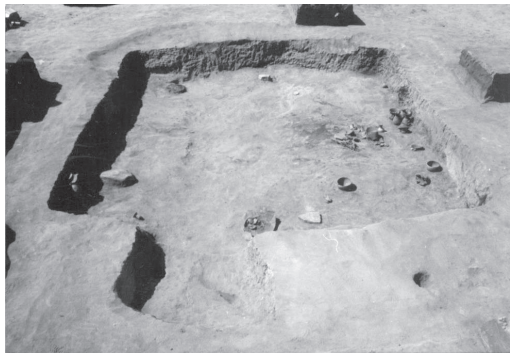


그림 3 흑룡강성 오상 백기 유적의 옥저계 문화 토기

원으로 복상할 조건은 충분하다. 즉, 목단강 지역의 동홍문화가 북상하여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확산되었고 곧도령문화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용한 곧도령문화 집단은 이후 부여 세력이 거의 자취를 감추어서 공백으로 남는 서기 2~4세기에 도 독자적인 집단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옥저계의 온돌이 삼강평원의 봉림 문화에 보이는 점도 추위에 고도로 적응한 이 지역 주민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삼강평원에서 기원전 1세기~서기 4세기 대에 번성한 대표적인 성지인 봉림성지에서는 이러한 옥저계 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발굴되었다. 봉림성지는 크게 전기의 곧도령문화와 후기인 봉림문화로 나뉜다. 그 중 봉림문화에서 동해안 중도식토기문화에 보



11호 주거지



10호 주거지



13호 주거지



15호 주거지



13호 주거지

그림 4 봉림성지에서 발굴된凸자형 주거지

이는 철자형(凸字形)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대표적인 철자형 주거지 출토유적인 봉림성지 유적에서는 모두 27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그 중 9기의 주거지에서 정형화된 온돌이 설치되었다. 그 중 철자형 주거지는 모두 5기이다.(그림 4) 이들 주거지의 양상은 1m 가까이 이르는 깊은 수혈, 아궁이와 온돌의 발달, 저장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과 저장용 토기라는 특징들을 공유한다.

철자형 주거지의 자세한 양상은 봉림성지의 철자형 주거지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 보고된 29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도면은 출입구 쪽을 간단히 마무리 지은 것이어서 사진의 느낌과 상당히 다르다. 문은 북쪽으로 나있으며 남북 길이는 4.55~4.8m이며 동서는 5.6m로 동서가 약간 긴 편이다. 수혈의 깊이는 0.35~0.4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문지 역시 남아있는 것은 넓이 1.3m, 높이는 1.5~1m에 불과하다. 비슷한 주거지는 연해주 크로우노프카(Krounovka)-1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나(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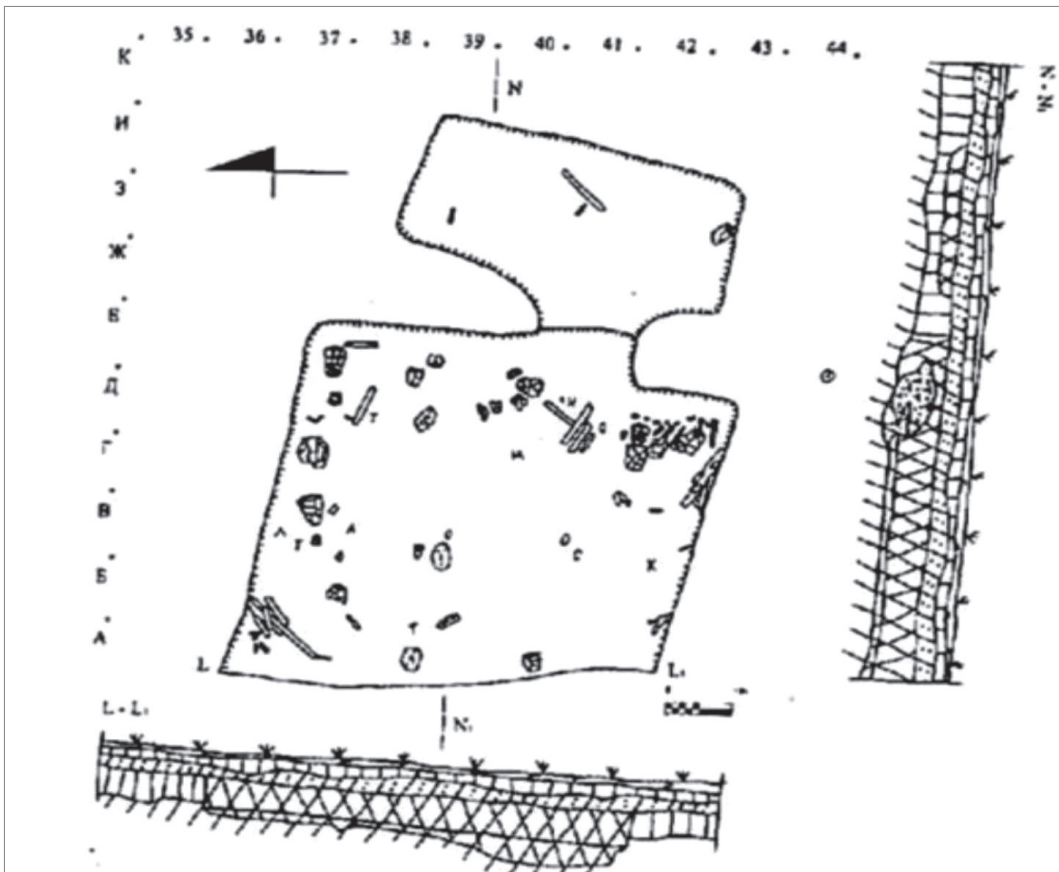


그림 5 크로우노프카 84년도 발굴 여자형 주거지



그림 6 봉림성지 출토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좌측)과 곤토령문화식 토기(우측)

역시 발굴 기술의 한계로 문지 쪽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하튼 강원도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천km 정도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서기 3세기를 전후하여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주거지가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한 전파나 주민의 일방적인 이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는 환동해 지역의 옥저계 문화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실제 삼강평원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옥저계 토기(그림 6)도 이러한 옥저계 문화 확산의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

필자는 여자형 및 철자형 주거지의 등장이 단순한 주거기능의 보장이 아니라 겨울에 합리적인 보온을 위한 일종의 격벽과 같은 시설이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온돌 역시 기후가 한랭한 지역에서의 적응 방식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한랭한 기후에서 정착생활을 하기 위하여 깊은 수혈이 아닌 얇은 수혈을 파고 대신에 온돌로 기능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한다. 새롭게 발달된 주거 양식은 곧바로 같은 옥저계 문화권으로 확산되었다. 즉, 동일한 지역 내에서 서로 밀접한 정보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이들은 기층 경제의 유사성으

로 연결되었다.

2) 서기 2~5세기 두만강유역 옥저계 문화의 종언과 말갈의 등장

중도식토기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1세기에 등장해서 서기 4세기 대까지 별다른 문화의 변동 없이 지속된다. 서기 3세기를 전후로 해서 유적이 급증하는 상황이 간취되는데, 이 단계의 주요한 변화는 옥저계 문화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또한, 삼강평원은 곧도령문화의 뒤를 이어서 봉림문화가 번성한다. 이와 같은 상황과 반대로 옥저계문화가 가장 번성했었던 두만강 유역에서 옥저계 문화는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두만강 유역의 옥저계 문화의 쇠퇴는 이어서 말갈 계통의 문화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이 시기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옥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하는 시기인 관구검(또는 毋丘劼)이 침공하는 서기 3세기 때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관구검 일파는 고구려 동천왕을 추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옥저 세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에 집중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관구검의 침략으로 3천여 인이 희생되었으며 옥저의 읍락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했다. 또한 『북사』 「고구려전」에는 서기 242년에 왕기(王頎)가 옥저 천여 리를 횡단하여 숙신의 남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왕기가 부여에 갔다는 기록이 보이는바, 왕기는 남옥저에서 북옥저를 거쳐서 부여로 갔음을 의미한다. 초기 옥저 세력에 대한 고고학적 문화의 변화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폴체(읍루)문화의 남하로 야기되었다. 고지에 방어성 토루를 만들고 호전성이 강했던 폴체 문화는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중심지로 침투해서 두 문화가 혼합된 ‘올가문화’로 바뀌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을 볼 때 올가문화가 연해주 일대에 널리 확산되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서기 1세기 사이에 옥저 세력의 중심은 연해주 남부에서 다른 지역, 즉 훈춘 일대로 이동했다고 생각된다. 훈춘 일대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대외관계도 바뀌어서 부여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고 대신에 고구려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두만강 유역에서는 서기 4세기 이후에 백산말갈 세력이 성장한다(강인욱 2018). 백산말갈 세력은 크라스키노 성지의 발굴로 이 지역의 올가 문화 계통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두만강 유역의 문화변동을 이루는 큰 계는 관구검의 침략으로 대표되는 사건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북옥저 계통의 문화(=크로우노프카문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고지의 방어성 취락과 철제 무기의 급증 등으로 대표되는 말갈문화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III

고찰

1 옥저계 문화의 시기별 형성과 전개

필자는 중도식토기문화의 발흥과 전개를 환동해 지역의 경질무문토기에 기반한 옥저계 문화의 발흥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보았다. 강원도를 포함한 옥저계 문화의 확산과 분포 양상은 크게 3단계로 정리된다.

1단계(기원전4~1세기)에는 두만강~함북~연변 일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집단¹으로 발달한 시기이다. 이 때에 두만강 일대의 세력들은 전국시대 중원 제후국들과 상당히 밀접한 교역을 했다. 이 시기는 고조선의 네트워크가 모피교역 등을 통해서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이지만, 옥저계 문화와 고조선의 관련성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자적으로 부여를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근거리 교역 및 중원의 여러 지역과 원거리 교역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2단계(기원전 1세기~서기 2세기)는 옥저계 문화가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시점이다. 북쪽으로는 장광재령을 넘어서 동흥문화를 비롯해서 삼강평원의 곤토령문화로까지 확대되었다. 남쪽으로는 한강유역에서 중도식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아마 강원도 북부 지역 조사가 미진한 지역으로 연구가 확대되면 중도식토기문화의 형성은 그 연대가 더 소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옥저계 문화가 발달했던 두만강 유역 일대에는 오히려 옥저계 문화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폴체(읍루계)문화의 확산이다. 전쟁의 스트레스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옥저계 주민들의 입지와 생계에도 큰 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다만, 이들은 강력한 전쟁으로 한쪽 집단을 몰아내는(驅逐) 양상은 아니다. 둘은 문화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올가문화’로 재창조되기 때문이다.

1 이들의 명칭에 대해서 문헌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옥저, 선(先)옥저 등의 명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만강 유역의 한랭한 기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서 거의 700~800년 가까이 존속한 성공적인 문화를 굳이 특정한 하나의 민족 이름에 규정짓는 것은 오히려 그 고고학적 함의를 축소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2008년도에 특정한 민족이름이 아닌 ‘옥저계 문화’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새로운 고고학 자료는 필자의 주장대로 옥저계통의 문화가 문헌의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넓고 광범위했음이 증명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들을 옥저계문화로 규정짓고 환동해 지역의 철기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두만강 유역 옥저계 문화 쇠퇴의 또 다른 원인으로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의 책성 설치와 지배를 들 수 있다. 문헌상 상당히 일찍 고구려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두만강 유역 일대로 미침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때를 기점으로 옥저계 문화의 쇠퇴가 보인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물질문화에서 고구려 계통의 흔적은 전혀 없고, 대신에 풀체계만 득세를 한다. 필자는 이를 서기 4~5세기 이후에 이 지역에 등장하는 백산말갈의 형성과 연결시켜본 바 있다. 즉, 고구려는 일부 지배 관리만을 제외하고 호전적이며 이 지역에 생계기반을 둔 읍루(이후 말갈로 전화)계의 주민들을 기반으로 지배를 했다고 본다.

3단계(서기 2~5세기)는 두만강 유역에서는 옥저계 문화가 완전히 소실된다. 그리고 읍루계 문화는 말갈계 문화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즉, 유적의 수가 급감하고 정착 잡곡농사 경제는 완전히 소멸한다. 이러한 계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문헌사로 본다면 관구검의 침략을 들 수 있다. 실제 관구검은 고구려의 배후기지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며 철저히 그 마을들을 파괴했다. 이러한 기존 경제적 기반을 파괴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말갈세력이 이 지역에서 발흥하는 것은 지속적인 고구려의 배후기지, 그리고 위나라의 침략으로 대표되는 국제 정세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한편, 서기 2~5세기대에 옥저계 문화는 북쪽의 삼강평원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했다. 삼강평원에서는 곧도령문화의 뒤를 잇는 봉림문화 단계에서 거대한 복합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풍납토성보다 거대하며 9개의 성벽을 이어서 쌓는 방어기능이 극대화된 봉림성지의 규모는 그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삼강평원의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옥저계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춥지만 비옥한 평야에서는 잡곡농사를 하는 능력을 극대화된 옥저계 문화의 '적응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된 결과이다. 더욱이 부여계의 약화와 극북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중심지인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중도식토기문화는 번성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 영향을 준 흔적은 있지만 대규모의 이민이나 영역적 지배의 흔적은 신라 후기에서야 등장한다. 삼국의 간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도식토기문화의 기본적인 물질문화상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도식토기문화의 주민이 독자적인 복합 사회를 형성하여 국가로 나아가기엔 삼국이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2 예맥과 말갈 : 강원도 삼국시대 전기에 대한 재인식

중도식토기문화는 두만강 유역과 달리 강원도와 삼강평원 일대에서는 서기 2~5세기에 계속 번성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강원도에서 예맥과 함께 또 다른 계통으로 등장하는 말갈의 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말갈의 실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다. 그들은 대체로 서기 5세기경부터 연해주와 송화강 일대에 뚜렷한 토기형태(말갈관)과 온돌이 없는 장방형 주거지, 토광묘 등으로 규정된다. 과연 고고학적으로 규정된 말갈이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말갈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필자는 예맥계와 말갈계는 위에서 말한 잠곡농사에 기반한 정착민과 수렵과 채집에 기반한 집단이라는 두 상이한 경제에 따른 차이에 가깝다고 보았다.

먼저 감안해야할 점은 문헌사적 선입견이 없이 강원도의 고고학적 상황을 본다면 말갈과 예맥 또는 예와 맥을 구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상황은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즉, 영동과 영서, 또는 강원도의 어떠한 중도식토기문화를 보아도 이렇게 뚜렷하게 두 집단으로 구분 지을만한 어떠한 고고학적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고학적 자료가 보여주는 이 지역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원도 지역의 상황은 강원도에서 예맥과 말갈이라는 집단이 혼재하는 차이를 역으로 잘 설명한다. 서기 4세기 이후 옥저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두만강 유역 일대에는 관구검의 침략 이후 완전히 사회체제가 재편되어서 말갈 세력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의 옥저계 문화는 이때에도 강원도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옥저계 문화가 삼강 평원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지역에 거대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놀라울 정도로 문화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두만강 유역과 강원도 사이에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도 지역에서 말갈과 예맥의 용어가 혼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한다. 한편, 말갈과 함께 예맥이라는 명칭이 강원도 지역에 부여된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옥저계 문화는 부여 및 고구려의 기층 문화와 유사성을 보인다. 비슷한 지리, 자연적인 환경에서 수렵과 채집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말갈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맥’을 등장시킨 것이다.

즉, 강원도 지역의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두 개념인 말갈과 예맥이 공존하는 것은 환동해 지역 옥저계 문화권의 주민들이 시공간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세계 경제를 선택하며 살아가던

과정이 누층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강원도의 예맥과 말갈의 상황을 보기 위해 먼저 두만강과 삼강평원 지역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보자.

1) 두만강 유역 말갈문화의 등장

서기 2~3세기를 전후하여 원래 옥저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연해주 남부~두만강 일대에서 그들의 세력은 완전히 와해가 되고,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재편된다. 또한, 관구검의 침공은 남아있는 거대한 마을을 이루어 집약적인 잡곡농사를 하는 옥저계 문화를 완전히 일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이후 이 지역에서는 수렵과 채집이 강한 말갈계 문화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대신에 그러한 외부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남쪽의 강원도 일대와 삼강평원 일대에는 그 문화가 계속 번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산말갈은 고구려의 거버넌스가 지속되는 가운데에 옥저계 주민이 지속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생계 경제가 교체되며 등장했다.

필자는 강원도 말갈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만강 유역 일대에서 고구려의 거버넌스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백산말갈의 존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만강 지역에 옥저계 문화가 해체되고 백산말갈 계통의 문화가 등장하는 과정은 옥저계와 말갈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서기 2세기경까지 북옥저는 읍루계통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올가문화로 존속했고, 관구검의 침략 이후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는 와해되었다. 서기 4세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말갈 문화가 등장했다. 관구검의 침략은 토착 사회에 큰 위기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옥저 계통의 문화(크로우노프카 계통)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갈문화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잡곡농경에 기반을 두어 평지에 마을을 이루는 옥저의 마을 대신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는 말갈 계통의 문화가 연해주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취락도 고지에서 방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물질문화에서도 철제 무기가 급증하여서 새로운 경제와 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이 지역이 고구려의 지배 하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는 한편으로는 부여계 이주민을 책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지와 사원지로 읍기는 등의 사민정책도 동원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계경제의 패턴을 바꾸거나 대량의 주민 이주는 시도하지 않았다.

고고학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책성의 주요 중심지인 백산말갈 지역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이타인’의 묘비로도 엿볼 수 있다.

이타인은 고구려로부터 사성이 된 고구려인으로 642년 발발한 연개소문의 정변에 공적을 세워서 책성의 옥살로 되었다. 이후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으로 이주하여서도 본인이 책주(즉, 두만강 지역)의 고구려인 출신이라고 묘비명에 남길 정도로 정체성이 뚜렷하다. 즉, 이타인의 묘지처럼 이러한 토착문화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일부로서 강력한 소속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백산말갈은 이 지역 토착민들인 북옥저와 읍루계통의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 성립되었다. 두만강 일대는 서기 1~7세기 간에 고구려로부터 지배되었지만, 직접적인 지배라고 볼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그리고 연해주 남부 대표적인 발해 성터인 크라스키노 성지의 고구려 시기 문화층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일부 토기와 올가문화(연해주 폴체문화)가 발견되었다. 즉,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북옥저-백산말갈로 이어지는 토착민의 물질문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타인의 묘지처럼 이러한 토착문화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일부로서 강력한 소속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말갈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문화는 결코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니었으며, 또 무조건 고구려·발해와 배치되는 세력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말갈계 고고학적 문화 역시 시대와 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구려와 발해로 대표되는 예맥계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것이다. 극동지역의 두 민족집단의 계통인 부여-옥저-동예로 이어지는 예맥계와 읍루-말갈로 이어지는 통구스계는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비슷한 상황을 책성-백산말갈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중도식토기문화에 도입하면 말갈과 예맥의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상이한 두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큼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강원도의 말갈도 삼국시대 이후에 사용된 것이니, 명백하게 집단을 다르게 보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간 강원도의 중도식토기문화의 연구에서 그 물질 문화가 두 집단으로 나뉠 정도로 시간과 지역적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2) 삼강평원 지역의 봉림문화와 말갈

한편, 두만강 일대가 극도로 생계경제를 바꾸는 상황에서도,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생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 백제 등의 세력이 일부 미친 흔적은 있지만 기층 문화에서의 차이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 그 세력의 확장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삼국의 팽창으로 강원도와 한강 유역 주민들은 생계 경제를 유지하였지만 그들을 통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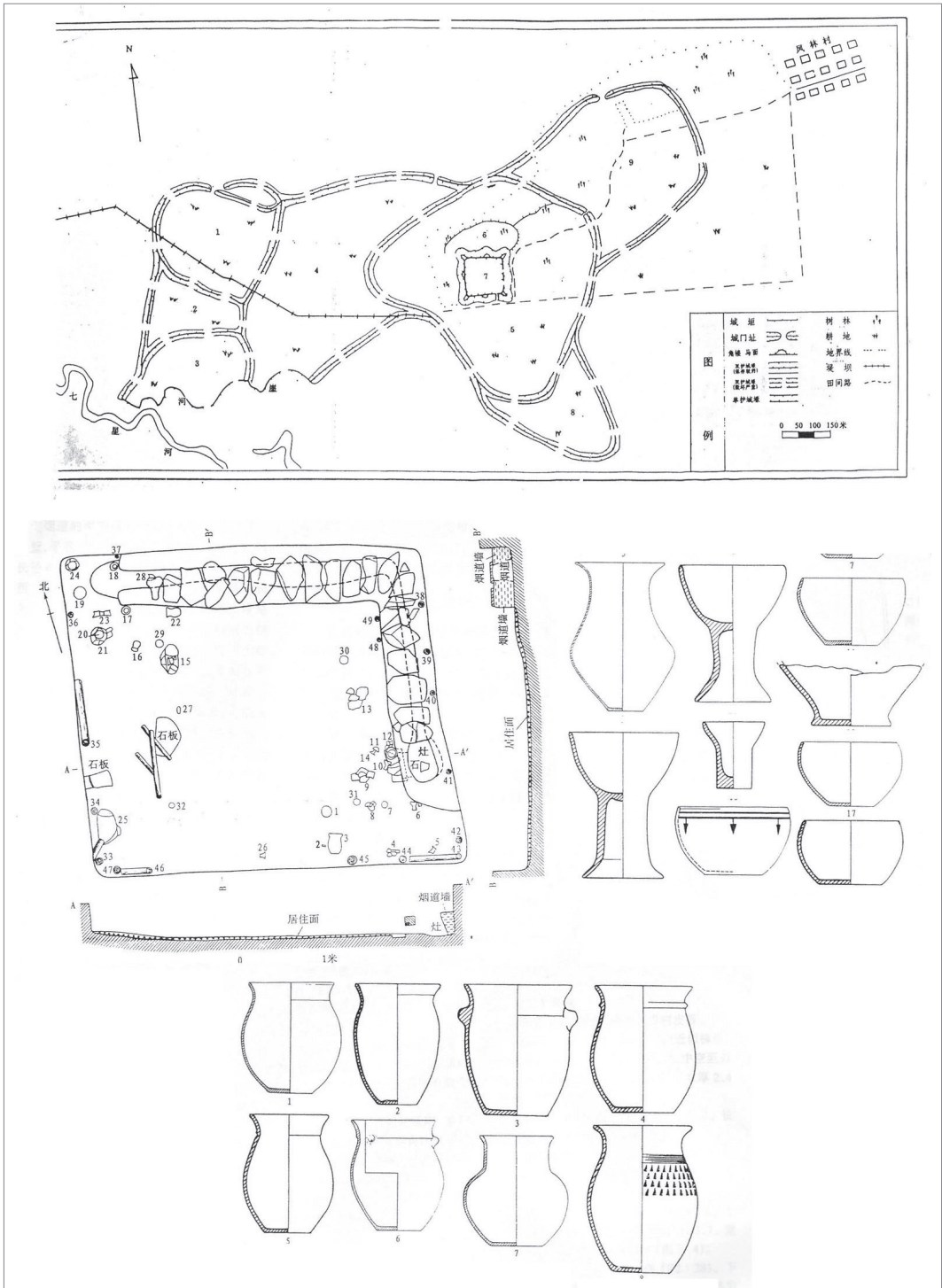


그림 6 봉림성지 평면도위, 은돌주거지(중좌), 각종 토기(중우 및 하)

옥저계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정체성과 대의 교류 _ 강인욱 · 고영민

복합적인 거대한 정치체로 나아가는 데에는 일정 정도 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외부세력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다른 옥저 문화권에서는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환동해 지역에서 서기 2~4세기에 가장 번성한 문화를 이룬 것은 삼강평원의 봉림문화였다. 이 지역은 워낙 춥고 소택지가 많아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1월달 평균기온이 영하 21~18도에 달하고, 1년에 7~8개월이 겨울인, 그야말로 동토지대이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경부터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부여와 옥저 계통의 주민이 거대한 성터를 만들어서 살았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대형인 봉림성지의 경우 높이가 4m에 달하며 성벽의 둘레가 6.3km이다. 성벽의 둘레는 백제 풍납토성의 3배 크기이다. 단순히 규모가 큰 것만이 아니다. 봉림성지는 가운데는 궁궐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몇 차례에 걸쳐 성벽을 쌓았다. 실제 외적이 침략할 경우 미로 같은 성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삼강평원의 봉림문화는 1998~2002년의 5년 사이에 전체평원의 1/15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지역을 조사했고, 그 결과 봉림성지를 비롯하여 200여 기의 성지가 발견되었다.² 그러니 전체 삼강평원에는 고구려나 부여 못지 않게 거대한 문명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궁벽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 비결은 삼강평원 일대의 비옥한 토양에 있었다. 삼강평원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거대한 흑토지대가 발달해 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옥저계 문화권은 추운 겨울을 건디는 온돌을 만들고, 주변의 호전적인 말갈 세력을 막아내는 생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왔다. 따라서 삼강평원이라는 북위도이지만 비옥한 흑토지대에서 잡곡을 키우며 그들만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³ 이러한 삼강평원이 두만강 유역 및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에 차이는 명확하다. 다른 지역은 삼국의 영향과 견제로 복합사회로 발달하지 못했지만, 삼강평원은 다른 세력의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복합사회로 발달할 수 있었다. 봉림문화는 서기 6세기를 전후로 해서 말갈 세력과 기후의 변화 등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봉림문화의 발흥은 중도식토기문화를 포함하는 옥저계 문화가 결코 변방의 소규모 문화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3 환동해 옥저계 문화의 소멸과 중도식토기문화

환동해 문화권은 후기 구석기에서 초기 철기시대를 포괄하여 동해를 중심으로 아무르유

2 이 지역은 고위도이기 때문에 지표면 상에 환호, 수혈, 성지 등이 잘 남아있다. 따라서 지표조사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수의 주거지와 성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3 최근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삼강평원에서 벼농사를 시작했고, 그 쌀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다고 한다.

역~연해주~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아우른다. 필자(강인욱)가 처음 제안하고 김재윤에 의해 더욱 정립된 개념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 일대의 고대 문화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동해 문화권은 그들이 처한 지리환경으로 규정된다. 시호테-알린 산맥에서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맥으로 서쪽지역과 자연적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경한다.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동쪽에는 짧고 수량이 비교적 적은 하천이 흐르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되었다. 따라서 집약적 농경보다는 사냥·채집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의 복잡화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문화권은 비슷한 기후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에 설정할 수 있으나, 환동해 문화권은 고도를 달리해서 한대~온대에 걸쳐서 상정된다. 이는 이와 같은 주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리적 요인과 함께 수직적인 주민집단의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동해안의 해안은 극히 일부지역(연해주 표트르 대제만 일대, 두만강 하류, 원산만 일대, 울산 일대)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발달하지 않았다. 즉, 패총과 같은 집약적인 해양 문화가 발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곡농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동해 지역의 상대적으로 고립되며 독특한 지리환경은 그 고대 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퉁구스-만어계통의 민족이 사슴 목축과 수렵·채집을 주요 생계 경제로 해서 삶을 영위했다. 이들은 역사 기록에 확인되는 고구려에 복속된 흑수말갈 또는 더 이전의 읍루·숙신의 후손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의 민족들 문화가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은 환동해 지역에 고구려, 부여,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백제나 신라 등의 세력이 진출한 이후에도 이 지역의 생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대량의 이주민들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동해안도 마찬가지여서, 신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힘을 미치는 서기 5세기 이전에는 중도식토기를 주축으로 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지리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인 공통성이 높았을 것이고, 이는 문화권의 설정으로 이어질 정도의 문화교류가 가능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수렵과 채집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험난한 산악지역과 강가의 비옥한 잠곡농사가 발달하는 조건으로 환동해 지역은 수렵/채집문화와 잠곡농사가 공존하며 병존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잠곡 농사 문화(옥저와 동예의 예맥계)와 수렵채집이 강한 문화(읍루와 말갈계)로 대별된다. 문제는 이러한 생계 경제의 변화가 주민의 교체가 아닌, 이 지역의 토착 주민들의 생계 전략의 변화가 기반인 점이다. 이제까지의 고고학적 연구를 종합해볼 때 고구려와 같은 강력한 거버넌스가 이 지역을 지배한 시기에도 대량의 이주나 주민교체는 없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기 4세기경이 되면서 두만강 유역의 폴채문화는 말갈문화로 대체되고, 강원도 영동-영서지역은 팽창하는 신라세력의 구도 하에 편입되어 간다. 중앙집권국가의 등장으로 환동해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은 점진적으로 사라져갔다.

IV

결론

동아시아 속 중도식토기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강원도의 중도식토기문화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의 양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 대신에 낙랑, 삼국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고고학의 목적은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고고학적 조사는 편년 및 사회상의 복원이라는 고고학적 맥락의 규명이 주요한 목적이며, 사서의 집단과 비교는 다양한 고고학적인 해석 중 하나이다. 이제까지 강원도의 중도식토기문화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배경에는 바로 삼국 중심의 사고 체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서의 비정은 추가되는 고고학적 자료 및 사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고학적 문화는 ‘송국리문화’, ‘중도식토기문화’ 등의 지역 명을 따른 고고학적 명칭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고고학과 민족의 비교는 과거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교가 고고학의 목적은 아니며,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동아시아 고고학에서 사서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각각 고고학 및 문헌자료가 주는 한계를 감안하여 자료에 맞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강원도의 중도식토기문화를 소략한 역사 기록에다가 무리한 비정을 진행하거나, 삼국과 낙랑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연구 방법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환동해지역권을 중심으로 삼강평원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지역의 옥저계문화를 일별하였고, 이들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 초기 철기시대~삼국시대 초기에 이르는 지역의 또 다른 문화를 일구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옥저문화는 지역별로 그 차이는 크지만 대체로 기원전 4세기에서 서기 5세기까지 700~800년 가까이 존속해 왔는데, 크게 4단계를 거쳐서 발달된다. 1단계는 기원전 4세기경 옥저계

문화가 발흥하며 중원 및 고조선과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2단계는 기원전 1세기 경 한반도 동해안까지 이르는 환동해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두만강 일대에는 옥저계와 대비되는 읍루계(폴채문화)가 형성된다. 3단계는 기원전 1세기~서기 1세기로 고구려의 거버넌스가 두만강 유역에 미치고, 강원도와 삼강평원 일대에서는 본격적으로 옥저계 문화가 발달한다. 4단계는 서기 2~4세기로 고구려의 진출 및 관구검의 침략으로 두만강 유역의 문화는 수렵과 채집의 성격이 강한 말갈계로 재편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기존의 문화를 유지했다. 하지만, 삼국의 발흥으로 복합사회로 발전하는 데에는 장애가 있었다. 이 시기 가장 북쪽인 삼강평원에서는 옥저계 문화가 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동해 지역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하였던 옥저계 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며 본고를 마치겠다.

첫 번째 중도식토기문화권은 결코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북쪽으로는 삼강평원에서 연해주, 백두대간을 걸쳐 강원도로 이어지는 한랭 잠곡 문화권을 대표한다. 이 문화권은 필자에 의해 환동해문화권으로 제안된 지역을 대표한다. 한반도 서부 및 남부와 달리 험난한 고원지대와 지리환경에 따라 이들은 남북을 따라 문화권을 공유하며 비슷한 생계경제를 영위했다.

두 번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특징으로만 알려졌던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 온돌, 토기들은 연해주 일대의 크로우노프카문화는 물론 북쪽으로 삼강평원까지 발견된다. 이 거대한 지역의 주거문화에 발견되는 상사성은 단순한 주민의 이주 또는 전파로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랭한 산악 지형에서 그들의 생계 경제는 자발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 잠곡농사, 그리고 철기라는 중도식토기문화의 조합은 적어도 지난 3천여년 간에 환동해 지역 일대에 널리 분포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중도식토기문화권의 해체는 삼국의 형성과 발전, 특히 고구려의 형성과 발전 시기와 맞물린다. 옥저계 문화는 두만강 유역에서 시작되어서 남북으로 확산되었는데, 대체로 서기 1세기를 기점으로 그 세력은 약화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만강 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확장과정도 관련이 있다. 아울러, 서기 3세기 관구검의 침략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 세력의 큰 변화는 옥저계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이후 두만강 유역의 옥저계 문화는 말갈계통으로 재편되어서 사라졌다. 반면에 그러한 외부의 영향이 덜한 삼강평원과 강원도 일대는 옥저계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서기 5세기를 전후하여서 각각 말갈의 세력과 삼국의 세력으로 포함되었다.

네 번째 강원도의 삼국시대 초기에는 예맥과 말갈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세 번째 이

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저계 문화권이 시간차를 두고 해체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즉, 두만강 유역은 이미 옥저계가 해체되고 말갈계가 4세기 이후에 등장하는데, 같은 시기 여전히 삼강평원과 강원도는 옥저계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두만강 유역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은 완전히 상이한 문화가 아니었다. 고구려의 거버넌스가 연해주에 미친 이후에도 연해주 일대에서는 말갈 계통의 문화가 유지되었다. 이는 결국 예맥과 말갈은 계통적으로 아예 다른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자연 지리적 환경에서 다양한 생계 전략의 선택 속에서 탄생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강원도에서 극동을 따라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은 대량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어있다. 예맥과 말갈이라는 다른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주민을 보는 것은 문헌사적 선입견이 개입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접어두고 고고학적 현상만 바라본다면 강원도 중도식도기문화에서 말갈에 이르는 그 시기에 결정적인 문화의 교체나 주민의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식도기문화와 강원도의 정체성은 단순한 편년의 문제는 아니다. 험난한 산악지역에서 잡곡 농사를 지으며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던 또 다른 세계였다. 기존 삼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여 환동해 문화권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들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애매한 예맥 또는 말갈로 대표되는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벗을 수 있다.⁴

4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은 비단 중도식도기문화뿐 아니라 말갈계와 발해계로 양분되는 발해문화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인욱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강인욱, 2007,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확산과 전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_____, 2008, 「동아시아 고고학 고대사·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7.
- _____,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 _____, 2009, 「한동해선사문화권의 설정과 분기」,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 _____,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진」, 『한국고대사연구』 제64집.
- _____,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집.
- _____,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 최신 연해주 남부 세형동검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99호.
- _____, 2018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동북아역사논총』 제61호.
- 고영민, 2012,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성지 출토 토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服屬」, 『고구려발해연구』 32집.
- 김은국, 2017, 「연해주 발해 영주성의 최근 발굴성과와 분석」, 『2017 Asian Archaeology 최신 발굴자료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노태돈, 200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22.
- 노혁진, 2004, 「도식토기의 유래에 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19집, 호남고고학회.
- 데레비안코 AP, 2000, 「폴체문화와그동아시아철기시대문화의형성에서의역할」, 『東아시아1~3世紀의考古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제9집.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으로 본 지역 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강원학 연구총서 11집,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박경철, 2012,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동북아역사논총』 38집.
- 박노석, 2003, 「고구려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 『한국사상과 문화』 제20집.
- _____, 2013,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만주연구』 15집.
- 박준형 외, 2019,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강원학학술총서 11집,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박진석, 2008, 「高句麗柵城遺址三考」, 『東北亞歷史論叢』 20집, 동북아역사재단.
- 방학봉, 1999, 「고구려 책성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 3집, 경기사학회.

- 배근홍, 2010, 「당(唐) 이타인(李他仁) 묘지(墓志)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집.
- 브로잔스키 저, 정석배역 1997, 『沿海州의 考古學』, 학연문화사.
- 심재연, 2007, 「강원도 도식토기 문화에 보이는 동북지방 요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 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_____, 2018,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마을 양상」,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강원학술총서 11집,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문자』 11집.
- 양시은, 2012,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집.
- 余昊奎 & 李明, 2017, 「高句麗 遺民(李他仁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5집.
- 이민수, 2017, 「고구려 유민 李他仁의 족원과 책성 육살 수여 배경에 대한 고찰」, 『대구사학』 128집.
-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집.
- 李宗勛, 1998, 「高句麗柵城遺址一考」, 『先史와 古代』 10집, 韓國古代學會.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제70집.
-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東北亞歷史論叢』 38집, 동북아역사재단.
- 정석배, 2009,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말갈-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35집.
- _____, 2013, 「연해주 남서부 지역 말갈유적들의 토기」, 『한국전통문화연구』 12집.
- 한규철, 2015, 「三國과 渤海史에서의 靺鞨」, 『한국사학보』 58집.
- 한지선, 2018, 「한성백제기 강원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강원학술총서 11집,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 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
- 홍형우·강인욱, 2004, 「러시아 극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제문제-별째 문화를 중심으로」, 최몽룡·김경택 편저,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 干志耿, 1999, 「三江平原漢魏城址和聚落址的若干問題」, 『北方文物』 3期.
- 喬 梁, 2010, 「靺鞨陶器的分區·分期及相關問題研究」, 『邊疆考古研究』 8輯.
- _____, 2010, 「三江平原北部女真陶器的編年研究」, 『北方文物』 1期.
- _____, 2014, 「關於靺鞨族源的考古學觀察與思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4卷 2號.
- 劉曉東, 2007,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 强, 1986, 「沃沮、东沃沮考略」, 『北方文物』 1.
- 林 芸, 1986, 「肃慎、挹婁和沃沮」, 『辽海文物學刊』 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外, 2006, 『海拉爾謝爾塔拉墓地』, 科學出版社.
- 陳建貢, 2001, 『中国砖瓦陶文大字典』, 中华书局.

- 白杵勳, 2004, 「靺鞨社會の形成」, 『鐵器時代の東北アジア』同成社
- 宋玉彬, 2015, 「试论佛教传入图们江流域的初始时间」, 『文物』11期
- 马正元, 1992, 「焦作汉墓出土“山阳”铭文陶器」, 『中原文物』1期
- 李 强, 1986, 「沃沮、东沃沮考略」, 『北方文物』1.
- 林 法, 1986, 「肃慎、挹娄和沃沮」, 『辽海文物学刊』1.
- 田立坤, 2016, 「吉林琿春发现的燕系瓦当之背景」, 『學問』6期
- 黑龍江省佳木斯市文物管理站, 2002, 「黑龍江樺南縣小八浪遺址的發掘」, 『考古』7期
- 黑龍江文物考古研究所, 2006, 「黑龍江綏濱同仁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七星河—三江平原古代遺址調查與勘測報告』, 科學出版社
- _____, (趙永軍·田禾·張偉·許永杰), 2013, 「黑龍江友誼鳳林城址2000年發掘報告」, 『考古學報』4期
- _____, 2000a,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1998年發掘簡報」, 『考古』11期
- _____, 2000b,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二號房址發掘報告」, 『考古』11期
-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2004, 「黑龍江省友誼縣鳳林古城址的發掘」, 『考古』12期
- Park, Dae Jae, 2013, “The Interchanges between Kogury and Sun-Wu and Under the Fruit Hors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8 No.1.
- АндрееваЖ.В., 1977, Приморье в эпоху первобытнообщинного строя. Железный век(1тыс. до н.э.— VIII в. н.э.). М.: Наука, 1977. 240 с (안드레예바, 연해주의 선사시대—철기시대).
- АндрееваЖ.В., КлючевН.А., 1987, Послание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А нучино I(по материал ам раскопок 1986 г.)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ревоыбитной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 его Востока(препринт).-Влади восток: ДВО РАН СССР(안드레바 끌류예프 철기시대 유적 아누치노1(1986년 자료를 중심으로).
- АндрееваЖ.В. и др. Синие Скалы,—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ССР,—2002(안드레예바의 시니예 스텝르이.
-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6, Илоу и воцзой: Новый взгляд на старую загадку// Изв. Вост. Ин—та Дальне вост. гос. ун—та. 1996. № 3. С.34-142(브로단스끼 1996,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옥저 와 동예.
- Вострецов, Ю.Е., 2005, Взаимодействи морских и 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адаптаций в бассейне Японск ого моря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 ы, гипотезы,—Владивосток,—Дальнаука,—(보스뜨레쯔프, 2005, 동해 연안의 해양경제와 농경 경제의 적응 상호 관계)
- Никитин Ю.Г., 2000, Исследование памятников кроун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долине р. С уйфун// Впре д.-В прошое. К70-летию Жанны Васильвны Андреевой(니키틴 2000, 수분하 유역의 크로우노프 까 유적 연구).
- Коломиец, С.А., Пам}ятники польцев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общности Юг 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 // Росс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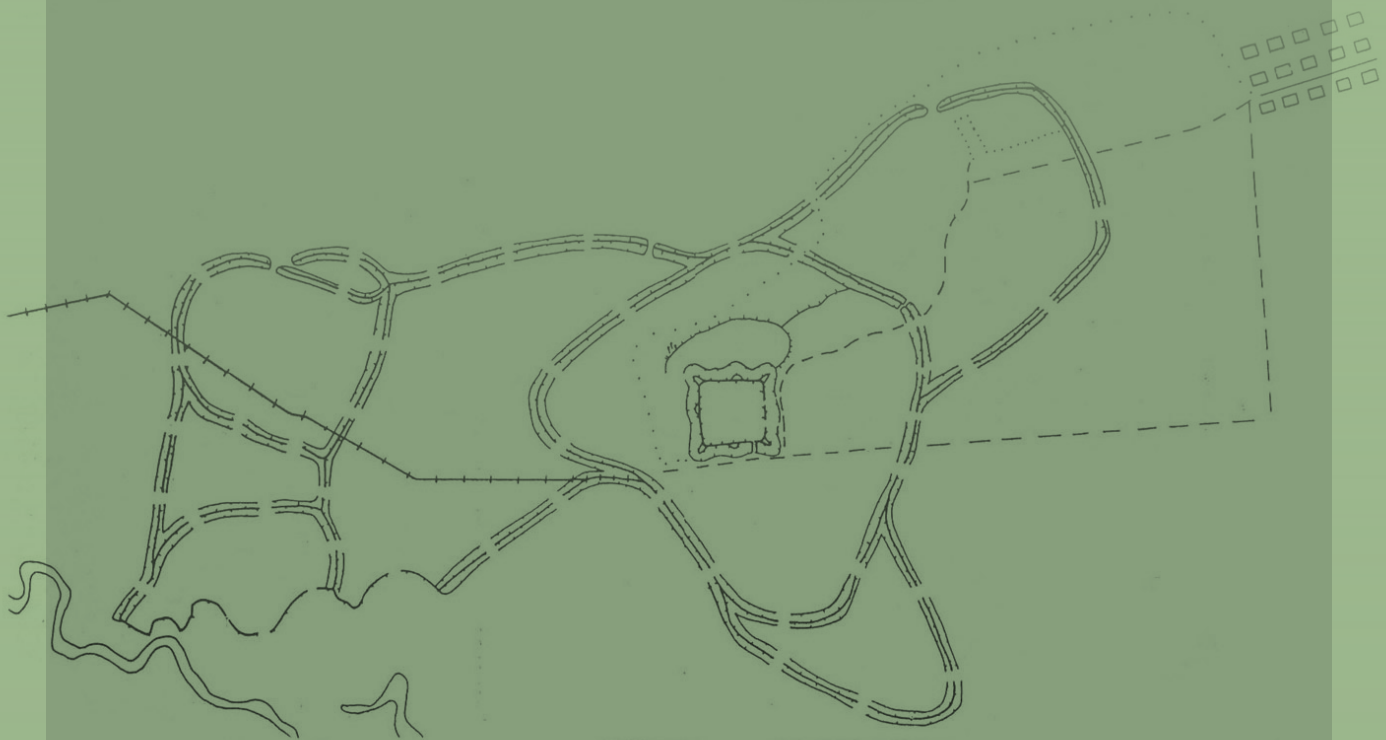
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 Владивосток, — Дальнаука, — (2005 콜로미예츠, 2005, 러시아 남부지역 별채문화 공동체)

Окладников А. П., Бродянский Д. Л., 1968, Многослойное Олений1 в Приморе(오플라드니코프외 1968, 연해주 올레니1 다층위 유적).

Окладников А. П., Бродянский Д. Л., 1984, Кро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Археологияюг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Новосибирис Наука(오플라드니코프 · 브로단스끼 1984, 꼬로우노프까 문화)

한반도 중부 지역의
한·예와 강원 영서 지역

전진국



한반도 중부 지역의 한·예와 강원 영서 지역*

전진국
충북대학교 연수연구원

Contents

- I. 머리말
- II. 2세기 후반의 ‘한예강성’
- III. 3세기 전반 교역 체계의 변화
- IV. 240년대의 정세와 백제의 성장
- V. 강원 영서 지역의 진한
- VI. 맺음말 -족속 표기와 실체에 대한 이해-

* 이 글은 2019년 6월 28일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고대 강원외교류” 심포지엄의 발표 요지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와 담론』 92에 게재된 논문 「삼국지 한전에 기술된 한반도 중부 지역」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한반도 중부 지역 안에서 백제가 고대 영역국가로 들어서기 이전의 정세는 삼국지 한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삼국지 한전을 바탕으로 한 시대상에 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 그 시대상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계에서 주도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헌자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거의 모든 사료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문헌사료를 대상으로 그간 밝혀지지 않은 시대상을 제시하거나, 참신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고고학계의 연구는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료 또한 계속해서 축적되어가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적인 유물·유적이 간간히 발견되면서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기도 한다. 최근 춘천 중도를 비롯한 한강 중상류 유역의 대대적인 발굴조사,¹ 영산강 유역에서 조사된 기원전 3~2세기에 해당하는 주구묘와 석관묘, 유리구슬과 貨泉 꾸러미, 그리고 백색토기 등이 그와 같은 대표적 사례이다.²

이러한 물질자료의 발견은 정치체의 등장과 교역에 대해 새로운 역사상을 보여주며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문헌사료에 대한 해석 또한 이러한 고고학 연구 성과를 접목시켜 시도한다며 설득력을 더욱 보강하며 역사적 실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고학 물질자료의 증가와 주변 연구의 성장은 문헌에 대한 해석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따라서 하나의 문헌자료를 두고 시대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문헌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 글에서는 삼한 시기에 해당하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 한반도 중부 지역의 시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은 『삼국지』 한전 안에서 한반도 중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대외관계 기사가 몰려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의 고고학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문헌을 해석하며, 가능한 넓은 시야에서 전체적인 시대상

1 김무중,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 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중부고고학회 2017년 학술대회 논문집』 ; 권도희, 2017, 「원삼국~한성백제기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중부고고학회 2017년 학술대회 논문집』.

2 정인성, 2018, 「마한과 낙랑·대방 그리고 고조선」 ; 이영철, 「마한 고지의 신자료 성격과 의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을 그러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당시 한반도 중부 지역 정세 파악과 이후 백제가 성장하는 대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삼국지 동이전 안에서 강원 영서 지역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기사를 가려보고, 그를 통해 그 지역의 종족성과 교류의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2세기 후반의 ‘한예강성’

위만조선 멸망 뒤 그 중심지인 서북한 지역은 漢의 낙랑군이 설치된다. 그 뒤 중국 문헌에 기재된 한반도 중부 지역에 대한 기록은 낙랑군에서 있었던 일, 또는 그들이 수집한 정보가 주를 이룬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낙랑군에 이웃한 한반도 중부 지역의 주민은 韓과 濊로 지칭되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다음의 기사이다.

〈가-1〉 환제와 영제 연간(147~188년) 말년에 韓과 濊가 강성하였는데,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백성이 韓國으로 많이 유입되었다.³

〈가-2〉 영제 말년에 韓과 濊가 함께 왕성하였는데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고난스러웠고 韓으로 유망하여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⁴

위의 사료는 2세기 중반 한반도 중부 지역 토착세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파동 및 주민의 이동까지 짧은 기사 안에 많은 사건이 응축되어 있다. 그로 인해 문헌 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 연구에서도 종종 인용하여 물질문화와 결부시켜 역사적 해석으로 이어졌다. 기술된 순서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환제와 영제 연간(147~188년)의 말년” 또는 “영제 말년”이라 하여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 시기 後漢은 외척과 환관의 전횡이 계속되고 황건의 난(184) 이후 각지의 무장이 쫓겨나는 등 왕조 말기의 혼란한 시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요동 지

3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4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韓, “靈帝末, 韓濊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역에서는 고구려가 점차 성장하며 요동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또 그와는 별개로 189년 公孫度이 요동태수로 부임한 뒤로는 공손씨가 그곳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⁵ 그에 따라 낙랑군 역시 漢의 직접적인 지배 및 원활한 통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고립되어 갔다.

“순제와 환제 때(126~166년)에 고구려가 자주 요동을 침범하며 부임해 가는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⁶ 함은 이 시기 낙랑군 운영이 고구려에게 제약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曹操(155~220)가 임명한 낙랑태수 涼茂를 공손탁이 잡아 두고 보내지 않은 사건도 이 시기 낙랑군의 약화 및 고립을 짐작케 한다.⁷ 위의 사료에서 “군현이 한예의 강성함을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 함은 그와 같은 낙랑군의 사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어 “한과 예가 강성하였다”는 대목을 보겠다. 이 부분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韓濊’라는 표현이다. 즉 한과 예가 하나의 주민집단 및 종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종족 및 주민집단을 연칭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때의 한예는 낙랑군을 둘러싸고 있는 토착의 주민집단이다. 즉 한반도 중부 지역의 주민을 일컫는 하나의 범칭 또는 대명사로 판단된다.⁸ 그리고 삼한과 낙랑군과의 관계를 중시해 본다면, 이때의 ‘韓濊’는 ‘韓地 내의 濊民’ 또는 ‘군현에 가까운 마한의 여러 나라(近郡諸國)’를 말하는 지역적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⁹ 따라서 이때의 ‘韓濊’라는 표현은 낙랑군에 이웃한 나라 및 종족에 대한 통칭의 의미도 있으며, 실제 황해도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 한과 예가 공존하는 정황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쓰고 있는 사료 <가-2>의 『후한서』에서는 “한과 예가 함께 왕성하였다(韓濊並盛)”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한과 예는 별개로 파악해야 하고, 실제 어느 정도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위의 두 사료 뒷부분에서 군현의 유민이 유입된 곳을 ‘韓國’ 또는 ‘韓’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사료 <가-1>에 이어지는 대방군 설치 기사에서는 대방군 설치 뒤 “왜와 한(倭韓)이 대방군에 속하게 되었다” 하여, 한이 왜

5 공손탁이 요동태수로 부임한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102쪽.
 6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鄉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7 『三國志』卷11 魏書 袁張涼國田王邴管傳 第11 涼茂, “轉爲樂浪太守, 公孫度在遼東, 擅留茂, 不遣之官. 然茂終不爲屈.”
 8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42쪽.
 9 윤용구, 2018,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10쪽.

와 연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칭된다고 하여 반드시 공존하거나 밀접히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정황은 이때의 예는 『삼국지』 예전의 대상인 낙랑군 동쪽의 예족 일부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기사는 최종적으로 군현의 백성이 옮겨간 곳이 ‘韓國’이라 한 바와 같이 주로 韓과 관련되어 있어 한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기사 전체적 맥락은 낙랑군에서 있었던 일을 낙랑군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사건의 발단은 군현 이웃 세력 한예의 강성이며, 군현의 이웃으로는 남쪽에 (삼)한만이 아니라 동쪽의 예도 있었던 것이다. 즉 오늘날의 평안남도 남동쪽과 황해북도 북동쪽 지역의 토착 주민집단을 상징해 볼 수 있겠다.

한과 예는 생업이나 묘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족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두 족속 및 문화권의 접경지대라 할 수 있는 군현 인근 지역에서 혼재가 이루어지고, 더 지나서는 백제의 주민이 되어갔다.¹⁰ 위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韓濊’는 아직 백제의 주민으로 편제되기 이전이다. 낙랑군과 그 이웃 지역에서 실제 한과 예의 족속이 혼재되어 가는 단계는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완전히 동화되어 하나의 족속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예’의 표기와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들의 존재 양상은 <광개토왕비>의 ‘新來韓穢’ 수묘호 부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0년 정도 뒤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 쓰인 <광개토왕비>를 통해서 보면, 그 시기에도 한족과 예족은 구분되었고 부락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¹ 사료 <가-1·2>에 등장하는 한과 예 역시 완전히 동화된 하나의 집단 내지 권역을 일컫는 범칭이기보다, 실질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주민집단 및 나라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한다. 두 족속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질적이며 분리되어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지만, 사료의 전반적인 맥락은 구분해서 보아야 하겠다.

다음으로 그들이 강성하였고 이를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는 문맥의 정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 측의 사료이다 보니 낙랑군을 주체로 하여 군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과 예는 객체이며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과 예가 강성하게 된 계기 및 그 실상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없다. 단지 한예의 강성을 군현이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10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115~128쪽.

11 전진국,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 『고구려발해연구』 48, 11~29쪽.

“한예의 강성”이라 함은 그 나라들이 소소하게 낙랑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사료 <가-2>의 『후한서』에서 “(낙랑군의) 백생들이 고난스러웠다”는 구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소소한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군현에서는 이를 능숙히 대처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백성이 고난스러웠다는 문맥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한예의 강성”은 단순히 군현에 이웃한 중부 지역 토착세력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군현을 침략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계에서는 ‘낙랑의 쇠퇴’를 ‘낙랑군 중심의 교역망 쇠퇴’로, ‘한예의 강성’을 ‘마한 중심의 교역망 형성’으로 연결하여 보기도 한다.¹² 이는 경기·충청 지역과 영남 지역 유물의 상관성 및 교류의 양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하나의 방증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강성하였다고 하는 한예는 군현과 가까이 붙어 있는 세력이었다. 이를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마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구절은 한과 예의 공격으로 인해 군현이 소란스러워지자 그 군현의 백성이 ‘한국’ 또는 ‘한’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때 군현의 백성이 옮겨 갔다고 하는 ‘한국’·‘한’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고고학계의 연구를 참고하며 다시 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정리하면, 2세기 후반 한반도 중부 지역은 낙랑군의 고립과 쇠퇴, 반대로 그에 이웃한 한·예 나라들의 성장과 군현 공격, 그 혼란 속에서 황해도 지역 군현 주민이 남쪽 한지로 옮겨가는 시대상을 차례로 그려볼 수 있겠다.

III

3세기 전반 교역 체계의 변화

『삼국지』 한전에서 낙랑군 주변의 한과 예가 낙랑군을 공격하고 그 주민이 이탈한 사건 뒤에 이어지는 기사는 요동의 공손씨에 의한 대방군 설치 기사이다. 그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한국고고학보』81, 104쪽.

〈나〉 건안 연간(196~220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으로 하고, 공손모와 장창 등을 보내 유민을 모으며, 군사를 일으켜 韓과 濊를 치니 옛 백성이 점차 드러났다. 그 뒤 倭와 韓이 마침내 대방에 속하였다.¹³

건안은 후한의 마지막 연호로, 중앙에서는 조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요동에서는 공손씨가 자립하여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는 시기였다. 요동에서 공손씨 정권이 들어서자 후한 정부는 그 지역을 絶域으로 여겨 방치하고, 나아가 낙랑군을 비롯한 해외의 일을 공손씨 정권에 위임했다.¹⁴ 따라서 대방군의 설치 이전 이미 낙랑군에 진출하여 그곳의 행정권을 접수한 일이 먼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낙랑군을 접수한 공손씨 세력은 한예의 공격과 많은 주민의 이탈로 황지화 된 낙랑군 내의 남쪽 지역을 대방군으로 하여 새롭게 재편하였다 하는 것이 위 사료의 맥락으로 파악된다.

대방군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둔유현 이남이라 하였다. 둔유현은 황해도 황주로 비정되고, 그 남쪽에 자비령이 있어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룬다고 한다.¹⁵ 자비령의 바로 남쪽은 봉산군으로, 그곳에는 지탑리토성이 있고, 그 토성에서 서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서 대형 벽돌무덤[磚室墓]과 ‘帶方太守張撫夷’ 글귀가 새겨진 명문전이 발견되어, 그 일대가 대방군의 군치로 비정된다.¹⁶ 『진서』 지리지에 기재된 대방군의 속현을 보면 南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현(帶方, 列口, 長岑, 提奚, 含資, 海冥)¹⁷ 모두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낙랑군의 속현이므로¹⁸ 낙랑군 남부도위 관할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한 시기에 대해서는 건안 중(196~220년)이라 하였다. 이를 좀 더 좁혀 추정해보자면, 공손강이 정권을 승계한 시기가 204년이고 207년 曹操(155~220년)가 요서의 柳城을 공격하여 요동의 공손씨를 위협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하므로,

13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14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絕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15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18~121쪽.

16 吳永贊,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출판사, 101쪽.

17 『晉書』卷14 志 第4 地理上, “平州, … 帶方郡公孫度置, 統縣七, 戶四千九百. 帶方·列口·南新·長岑·提奚·含資·海冥.”

18 『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樂浪郡(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有雲鄣). 縣二十五, 朝鮮·謂邯·涓水(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含資(帶水西至帶方入海)·黏蟬·遂成·增地(莽曰增土)·帶方·鬲望·海冥(莽曰海桓)·列口·長岑·屯有·昭明(南部都尉治.)

204년에서 207년 사이에 대방군이 처음 설치되었다고 판단한다.¹⁹

대방 지역으로 새로이 세력을 넓히고 군을 두는 과정은 “공손모와 장창을 보내 유민을 수집하고 군대를 일으켜 한예를 치니 옛 군현의 백성이 점차 드러났다”고 하는 구절로 서술되어 있다. 군대를 일으켜 한예를 쳤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앞서 환영지말에 낙랑군을 공격했던 한예를 20년 정도 뒤에 공손씨가 반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그 토착세력과 낙랑군 그리고 그 군현을 새로이 접수한 요동의 공손씨 세력 사이에서 소소한 전쟁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부분에서 “구민이 점차 드러났다(舊民稍出)”고 하는 문구는 전체적인 문맥에 적합하지 못하고 해석에 난해한 면이 있다. 앞에 “유민을 수집했다(收集遺民)”고 하는 문구와 사실상 중복이며, 전쟁을 한 뒤의(興兵伐韓滅)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여러 연구에서 “옛 군현의 백성이 점차 돌아왔다”고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出’자에 ‘돌아오다’라는 뜻은 없으며, 그러한 용례로 쓰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하여 군현은 일부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漢에서 이주한 집단과 서북한 지역 토착 호족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하층의 주민 이탈은 지속되었다고 판단한다.²¹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 이탈한 군현의 백성이 스스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손씨 군대가 다시 잡아왔다고 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稍出’이라는 표현에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舊民稍出’ 역시 ‘收集遺民’과 마찬가지로 옛 낙랑군 영역에 거주하면서 군현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 주민들을 조사하여 다시 대방군의 편호로 넣었던 상황을 기술한 문구로 판단한다.

공손씨가 이 시기 대방군을 설치한 이유는 요동의 안정적인 지배와 한반도의 여러 세력(나라)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²² 즉 낙랑군은 고구려와 그 배후기지로 할 수 있는 동옥저·동에 방면에 대한 정책에 주력하고, 대방군을 새로 두어 韓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倭까지 이어지는 교섭 창구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는 요동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 구축에 따라 동이와 해외의 일 또한 중추적 위치에서 새로이

19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116~118쪽.

20 국사편찬위원회, 2007(복간2쇄),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1, 신서원, 285쪽 ; 김창석, 210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고고학』 13-2, 49쪽.

21 李成珪,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22~125쪽.

22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진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 36, 7~8쪽.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²³

이후 중국 사료의 기술상 한반도 중부 이남의 나라들은 대방군의 견제를 받거나 그를 통해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그 뒤 倭와 韓이 마침내 대방군에 속했다”고 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나타난다. 대방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屬’으로 표현되고 있다. ‘屬’의 표면적 의미는 內屬, 臣屬과 같이 ‘지배-종속’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를 고찰하고, ‘屬’의 여러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지배-종속’ 또는 내속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와 더불어 『삼국지』 동이전에 쓰인 ‘屬’의 사례를 살펴보면, ‘邊郡 소관의 소속’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즉 入貢과 그에 대한 頒賜 등을 관할하는 창구를 의미한다.²⁴ 즉 실질적인 정황은 정해진 교섭의 창구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방군이 설치된 뒤로 그 남쪽에 있는 한과 왜의 교류는 대방군이 담당하였으며, 그 나라들 또한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대방군에 와서 중국과 교류하는 정황을 기술한 문구라 할 수 있다.

그 뒤 後漢 멸망 이후 曹魏가 중원 지역을 장악하자, 낙랑군과 대방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먼저 조위 정부는 236년 관구검(? ~ 255년)을 유주자사에 임명한 뒤부터 요동의 공손씨 세력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238년 司馬懿(179~251)가 관구검의 유주군과 합세하여 공손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곧이어 낙랑·대방군마저 점수한다. 그에 대한 정황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다〉 경초 연간(237~239년)에 명제가 몰래 대방 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두 군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韓國의 신지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벼슬을 주었다. (한족의) 풍속은 의책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들도 군에 가서 조알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어,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1천여 명이나 된다.²⁵

이 사료는 앞 장에서 살펴본 대방군 설치 기사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230년대 曹魏는 요동의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킨 뒤, 곧이어 낙랑군과 대방군의 태수를

23 吳永贊,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출판사, 186~189쪽 ;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124~125쪽.

24 西嶋定生, 1999, 『倭國의 出現』, 東京大學出版會, 155~159쪽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195쪽.

25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임명하고 두 군을 접수하였음을 볼 수 있다. 낙랑·대방에서도 공손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직접지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낙랑·대방군을 접수한 조위의 군 태수는 삼한의 수장들에게 인수를 내려주고 읍장의 벼슬을 더해 준다. 이는 삼한의 수장들을 대대적으로 포섭하는 하나의 유화책이며,²⁶ 군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 뒤 의책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들 또한 조알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는 삼한의 수장들뿐만 아니라 하호로 지칭되는 사람들 또한 수장과 같이 복장을 차려입고 군에 들어갔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의책을 입고 군현을 드나드는 사람이 1천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1천명에 이르는 하호들은 권위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장층이라 하기보다는 군현에 들어가 장사를 하기 위한 상인층이라 봄이 타당하다.²⁷ 조알은 군현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 또는 사가의 수식이고 실상은 상업적 교역이며, 의책은 군현에서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여인’이라는 수치는 과장의 표현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삼한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고 군현과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삼한 전시기에 걸쳐 유지된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세기 전반 조위의 진출과 적극적인 포섭 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⁸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위의 사료에 의하면 230년대 후반기 조위가 낙랑·대방군을 접수한 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교류가 빈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다.

IV

240년대의 정세와 백제의 성장

3세기 전반 안정된 한반도 중부 지역의 정세는 240년대 중반에 들어 다시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삼국지』 안에서 그러한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를 모아 제시

26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진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 36, 7~8쪽.

27 김병준, 2019,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교역」 『이야기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1쪽.

28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交역』, 一潮閣, 268쪽.

하면 다음과 같다.

- 〈라-1〉 정시 6년(245) 낙랑태수 劉茂와 대방태수 弓遵은 영동예가 [고]구려에 속해있어, 군대를 일으켜 쳤다. 不耐侯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였다.²⁹
- 〈라-2〉 [정시] 7년(246) 봄 2월 유주자사 毋丘儉이 고구려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穢貊을 쳐서 모두 깨뜨렸다. 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각 種落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³⁰
- 〈라-3〉 부종사 오림은 낙랑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臣憤沽韓(國)이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다. [궁]준이 전사하였지만 두 군은 마침내 韓을 섬멸하였다.³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위는 요동의 공손씨 세력을 무너트리고 낙랑·대방군을 접수한다(237~239년). 요동과 낙랑·대방군을 장악한 조위는 240대 들어 요동 지역을 먼저 공격해 온 고구려를 되받아친 뒤 대대적인 정벌을 단행한다. 공손씨 토벌에 이어 고구려 전쟁을 담당한 유주자사 관구검은 요동 방면에서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고, 남쪽의 낙랑·대방군으로 하여금 동에 지역으로 나아가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하게 한다. 사료 〈라-1〉은 그와 같은 낙랑·대방군의 출정을 전한다.

낙랑·대방군의 동에 출정은 단순히 고구려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군현 가까이에 있거나 출정의 길목에 있는 삼한의 나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지만, 사료 〈라-2〉에서 “한나해 등 수십국이 種落을 거느리고 투항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을 전한다.

사료 〈라-3〉 역시 조위의 고구려 공격과 관련되어 있다. 부종사 오림은 유주자사 관구검의 대리인 격으로, 낙랑·대방군의 동에 출정을 지원하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파견된 인물로 판단한다.³² 진한 8국의 교역권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붙인다는 강압적인 조치 또한 그와

29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 第30 滅,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滅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30 『三國志』卷4 魏書 三少帝紀 第4 齊王, “七年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穢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31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憤沽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32 이정빈, 2017, 「崎離營을 통해 본 마한 諸國과 曹魏」 『백제학보』22, 70~74쪽.

같은 군사력 증강에 기반한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 마한의 신분고국이 군현을 공격하여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진다.

신분고국은 최근 철제 무기류가 많이 출토된 김포 운양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 유역에 비정하기도 한다.³³ 전쟁의 경과를 신분고국이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滅韓’이라 한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패하여 이후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승리한 군현의 요구에 따라 교역권 또한 조정되어 진한 8국은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여 낙랑군과 교류하게 되었을 것이다.

진한을 경상도 지역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보면, 이후 진한 8국의 교섭은 동해안 또는 소백산맥을 넘어 북상하여 낙랑 동쪽의 濊貊을 거쳐 낙랑군에 들어가는 내륙 교통로가 설정된다.³⁴ 한편 진한의 위치를 ‘馬韓之東’에 바탕하여 충북과 강원 영서 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본다면,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³⁵ 그리고 각각의 견해에 따라 한반도 중부 지역 중 강원 영서 지역이 교통로의 거점으로 발전하거나, 적어도 그 지역의 정치체는 대방군이 아닌 낙랑군과 교역하여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는 결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 240년대 중반 한반도 중부 지역은 조위와 고구려의 전쟁에 따른 파동, 직접적인 기리영전쟁, 진한 8국 교역체제 변경 및 한나해 등 수습국의 낙랑 투항 등과 같은 여러 사건이 중첩되었다. 3세기 전반 전쟁의 소강상태와 활발한 교역이 상정되는 약간의 안정기를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중부 지역은 중국 측의 정세 변화 및 고구려 전쟁과 연동되어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기리영전쟁 이후 『삼국지』 한전 안에서 삼한의 사정을 보여주는 연대기 기사는 더 이상 기술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후 마한의 정세는 백제의 건국 및 성장이 대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료에는 그에 대한 정황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劉宋의 范曄(398 ~ 445)이 쓴 『후한서』에 이르러서야 마한 중 백제가 주요 국가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삼국사기』의 경우 백제의 건국 및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한 안에서 또는 마한의 한 나라로써 백제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33 김길식, 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백제문화』 50, 166쪽.

34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126~135쪽.

35 전진국, 2018,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67~75쪽.

36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韓,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왜곡되어 있다.

온조왕 27년(9)에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하거나,³⁷ 당시 한강유역의 일대 사건이었던 신분고국과 중국 군현의 전쟁 기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이왕 13년(246) 낙랑·대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틈을 이용하여 낙랑 변방 주민을 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³⁸ 사료 <다-1>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기사 안에서도 백제와 낙랑·대방군 사이에 마한의 다른 나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한은 온조왕 때에 이미 멸망하였다는 설정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3세기 후반에 이르러 흑색마연토기 재질의 한성백제 토기 양식의 등장이라던가, 풍납토성의 축조 등과 같은 물질문화의 변동을 통해서 보면 그 시기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이웃한 마한의 나라들과 다르게 고대 영역 국가로 성립되어 가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³⁹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 백제는 고이왕 때(234~286년)로 대방과 혼인관계, 左將 설치, 개간 사업, 그리고 6좌평 16관등으로 대표되는 체제정비 등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6좌평 16관등의 체제 정비가 고이왕 때 완성되었다고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기사가 고이왕 때에 몰려 있는 것은 백제사의 전개 과정에서 왕권강화 및 영토 확장 등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음을 반영한다.⁴⁰

240년대 중반은 관구검의 고구려 공격, 한나해 등 수십국의 낙랑 투항, 기리영전쟁, 진한 8국 교역체제 변경 등과 같은 여러 사건이 중첩되었던 혼란기였다. 그리고 이후 시기의 한반도 중부 지역은 백제의 성장이 대세인 흐름으로 전개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기리영 전쟁에서 패한 신분고국의 쇠퇴는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유일하게 마한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낙랑·대방군의 잇따른 동예 출병과 고구려와 대립관계 형성, 진한 8국 분할부터 시작되는 대방군의 위축 역시 백제가 3세기 후반 이후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240년대 중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벌어진 한차례의 파동과 그에 따른 이후의 결과는 백제가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하는 외부적인 계기이며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7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27年, “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秋七月, 築大豆山城”

38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 第2 溫祚王 27年, “秋八月,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39 박순발, 2013, 「백제, 언제 세웠나 -고고학적 측면-」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한성백제박물관, 97~135쪽.

40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82~85쪽 ; 문창로, 2007,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고이왕대의 체제정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2 -백제의 기원과 건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20~321쪽.

V

강원 영서 지역의 진한

3세기 중반 백제의 성장에 대해 한국학계는 실질적인 건국연대로 보는 시각이 통설과 같다. 그 뒤 기마민족 남하 또는 시조 구태 전승에 바탕하여 4세기 왕실 지배세력 교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발전을 상정한다.⁴¹ 3세기 중반 이전에 백제 영역은 한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넓게 보아도 오늘날 경기도 권역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기 한반도 중부 지역 안에서 백제와 함께 또 한 축의 세력권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곳은 그 동쪽의 가평·춘천 일대의 북한강 유역, 더 넓게 보면 강원·충북의 영서 지역이다.

최근 북한강 유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평·홍천·춘천 일대에서는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걸쳐 많은 유물·유적이 조사되었다.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고, 이웃 지역과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북한강 수계에 있는 같은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 그 권역은 한반도 중부 지역 안에서 다른 유적과 비교해 볼 때에도 3세기 이전의 유물·유적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하나의 문화권이다. 특히 춘천 분지 안에서는 청동기시대 중후기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크고 정제된 무덤과 청동기 위세품 그리고 이후 철기시대의 각종 토기와 철기 유물 등에 비추어 보면, 청동기시대부터 대규모의 주민집단이 존속하였고 국가의 존재까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⁴³

『삼국사기』에서 춘천 지역은 백제 초기 동쪽 경계로 기술되어 있는 走壤, 이후 신라의 牛頭州·牛首州·首若州·朔州 등으로 확인된다.⁴⁴ 또 백제본기에서 백제의 동쪽과 북쪽에 이웃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靺鞨’과 ‘樂浪’ 역시 그 지역의 주민 및 세력권을 말하는 것으로

41 김기섭, 2018, 「백제의 국가 형성 및 주민 구성 연구 동향과 논점」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43~55쪽.

42 이형원, 2016, 「춘천의 청동기시대 취락」 『고고학과 문헌으로 본 춘천문화의 정체성』, 한림고고학연구소 ; 김무중,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 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중부고고학회 2017년 학술대회 논문집』, 7~22쪽.

43 李亨求, 2015, 「春川 中島의 古代 共同體社會」 『한국고대사탐구』 21, 371~433쪽 ; 김창석,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신라문화』 46, 15~16쪽.

44 『삼국사기』에 기술된 신라시대의 춘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전덕재, 2009,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91~103쪽.

볼 수 있다.⁴⁵ 그러나 3세기 전반 한반도 지역 전체를 조망한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이 지역이 어느 부류,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 사서에 입각하여 그 지역의 종족성 및 문화권을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때 韓·濊·貊 중 어느 족속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嶺西濊⁴⁶와 貊國·貊族⁴⁷으로 보는 견해가 크게 대립하는 경향이며, 일부 마한의 범위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⁴⁸

‘(영서)濊’의 종족명으로써 그 지역 문화권을 설정하는 견해는 『삼국지』 예전의 ‘濊’와 『삼국사기』에 종종 등장하는 ‘穢’와 ‘靺鞨’에 바탕한 바 크다. 더하여 고고학 물질자료로 呂·凸자형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그리고 기단이 없는 돌무지무덤[葦石式積石塚]이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라 하여 이를 중도형문화권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삼국지』 예전의 濊는 위만조선(낙랑)의 동쪽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춘천 일대의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장하여 보기 어렵다.⁴⁹ 예전에서 영서와 영동의 구분이 되었던 단단대산령은 강원도 태백산맥이 아니라, 함경도 지역의 낭림산맥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⁵⁰ 경북 포항 영일에서 수습되어 濊의 남쪽 끝 범위를 설정하는 표식이 되었던 유물 ‘晉率善穢伯長’ 도장 역시 최근에는 발견된 곳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그것을 근거로 濊의 남쪽 끝을 확정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게 되었다.⁵¹

중도형문화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유물·유적이 한강·임진강 하류 유역에서도 종종 발견되어 이를 곧 濊의 범위라 한다면, 사실상 마한 50여국 중 하나인 백제까지 濊의 범위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주거지 유적의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중부 지역의 경우 드나드는 시설이 안쪽의 주거 공간과 수평이라는 공통적 특징, 육각형 주거지의 분

45 金起燮, 1991,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보이는 靺鞨과 樂浪의 位置에 대한 재검토』 『청계사학』 8, 3~16쪽.
 46 朴淳發,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 『백제연구』 26 ; 文安植, 1996, 「嶺西濊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的 背景」 『동국사학』 30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 51 ; 東潮, 2009, 「『三國志』東夷傳의 文化環境」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30~31쪽.
 47 金澤均, 1985, 「春川 貊國設에 關한 研究」 『백산학보』 30 · 31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126~129쪽 ; 최복규, 2007, 「춘천지역의 유적과 맥국」 『강원인문논총』 17.
 48 김무중, 2006, 「마한 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權五榮, 2010,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49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 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50 金俞禹, 1995, 「蓋馬大山과 單單大領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 18, 180~182쪽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112~113쪽.
 51 심재연, 2019, 「고고학적 조사로 본 “晉率善穢伯長” 銅印의 출토지 신빙성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1.

포라는 점에서 영동 지역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같은 예계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⁵² 토기의 경우 경질무문토기와 계통 및 생산 주체를 달리하는 낙랑계 각종 타날 문토기 또한 많이 발견되어 단독의 토기 문화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맥’·‘맥국’으로 그 지역의 정치체 및 문화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보겠다. 이들 견해의 가장 유효한 근거 사료는 810년경에 작성된 賈耽의 『古今郡國志』에서 춘천(朔州)의 족속을 ‘貊’이라 한 사례이다.⁵³ 더하여 『삼국사기』에는 고대 춘천 지역에 있었던 나라와 관련된 하나의 전승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나라를 ‘貊國’으로 칭하였다.⁵⁴ 이 두 문헌에 입각하여 이후 고려·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맥’·‘맥국’으로 인식하였음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⁵⁵

그러나 가담의 『고금군국지』는 3세기 때의 예·맥과 관련해서는 1차 사료라 할 수 없다. 『삼국사기』의 ‘貊國’ 또한 고구려와의 연고성에 근거하여 후대 신라인들이 지칭한 바이므로 실질적인 명칭이라 보기 어렵다.⁵⁶ 이 또한 낙랑·말갈·예와 같이 후대 인식의 한 경향이라 보아야 하겠다.

강원 영서 지역의 종족성 및 문화권을 예 또는 맥으로 규정하는 논의는 모두 『삼국지』 동이전을 1차 사료로 하며 가장 기본적인 준거로 한다. 즉 『삼국지』 동이전에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 주민의 종족성 및 문화권에 대해서는 한·예·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그중 강원 영서 지역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확답을 찾기 어렵고 논자에 따라 견해가 분분하였던 이유는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기사 또는 그곳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을 명확히 뽑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앞의 사료 <가-1·2>에 등장하는 ‘韓國’과 ‘韓’에 주목하고자 한다. 후한 환제와 영제 연간(147~188년) 말년에 韓과 濊가 군현을 공격하자 그 군현의 많은 백성이 『삼국지』에 의하면 ‘韓國’, 『후한서』에 의하면 ‘韓’으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즉 2세기 후반 낙랑 유민의 삼한 유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물질문화가 변동되고

52 권오영, 2018, 「백제의 국가 형성과 부여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68~174쪽.

53 『三國史記』卷35 雜志 第4 地理 2, “朔州, 賈耽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盖今新羅北朔州”

54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17年, “秋九月,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 貊國渠帥以兵要曲河西, 敗之, 王喜, 與貊國結好”

55 춘천문화원, 2018, 「춘천의 청동기시대」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4, 고대문화』, 331~447쪽.

56 김창석, 2018, 「맥조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확산되는 양상과 결부하여 고고학계에서 그 위치에 대한 고증을 시도한 바 있다.

2세기 후반 영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덧널무덤[土壙木槨墓]과 臺附長頸壺의 계통을 서북한 지역의 문화와 연결 지어 위의 사료를 해석하는 견해와,⁵⁷ 중부 지역에서 낙랑계 유물이 확산되는 정황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⁵⁸ 두 견해 중 특히 중부 지역에서 2세기 후반 이후의 낙랑계 유물이 급증하는 양상은 최근의 발굴 성과와 그것을 활용한 여러 연구에서 더욱 뚜렷이 확인되는 경향이다. 춘천 우두동·근화동·울문리, 가평 대성리 일대의 북한강 유역에서 낙랑계 타날문토기와 각종 철기 유물로 다양하게 확인된다.⁵⁹

이와 같은 고고학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환제와 영제 말년에 낙랑 주민이 옮겨간 지역을 비정해 보자면, 오늘날 춘천 일대의 북한강 유역이 유력하다. 그리고 위 기사에 의하면 그들이 옮겨간 곳을 ‘韓國’ 또는 ‘韓’이라 하였으므로, 적어도 『삼국지』에서는 그 지역을 (영서)濊나 貊이 아닌 韓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국’·‘한’, 즉 삼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더하고자 한다. 영서에 및 중도문화권을 설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 삼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는 북한강 유역 또한 마한의 범위로 파악하는 견해가 통설과 같았다. 강원 영서 지역을 영서에 및 중도문화권으로 설정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마한으로 간주하는 앞의 견해 또한 그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지』 한전에 의하면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마한 50여국이 주로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의 서해 연안에 분포하였고, 진한이 그 동쪽이라 한다면 강원 영서 지역 또한 마땅히 그 진한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마한의 대표적인 나라 백제에 비추어 보면, (마한)백제의 동쪽에 해당하는 진한의 범위가 된다. 한반도 중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기리영 전쟁에서, 그 기사에 등장하는 진한 8국 역시 강원 영서 지역에 비정해 볼 수 있으며, 염사착 전승에 등장하는 광역의 진한 역시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영서 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보아야 내용과 문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⁶⁰

57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521쪽 ; 2018,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고고연구』 27, 80쪽.

58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42쪽.

59 김무중, 2006, 「마한 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홍주희, 2014,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276~306쪽 ;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7~163쪽.

60 전진국, 2018,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46~80쪽.

최근 위만조선 계통과 영남 지역 진한계 유물·유적이 소백산맥 이북의 영서 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양상 또한 진한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지』 한전에서 진한의 개념은 지역적인 것 외에 이주민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때의 이주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위만조선 및 낙랑 계열의 서북한 지역 주민이다. 그들이 영남 지역으로 옮겨가는 정황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거론되었다.⁶¹ 그리고 최근에는 그 중간 지대인 영서 지역에도 그 유이민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유물·유적의 존재가 확인된다.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 발견된 5기의 널무덤(土壙木棺墓)과,⁶² 충금 금릉동 유적에서 발견된 100여기의 널무덤은 서북한 지역과 영남 지역의 공통적인 무덤 양식이다.⁶³ 토기로는 가평 대성리와 달전리에서 발견된 화분형토기가 대표적인 위만조선계 토기이며,⁶⁴ 앞서 거론한 북한강 유역의 낙랑계 타날문토기 역시 주민의 이주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철기 유물로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발견된 주조 쇠도끼는 북쪽으로 위원 용연동, 남쪽으로 대구 팔달동 출토의 주조쇠도끼와 같은 생김새여서 남북으로 계통성이 확인된다.⁶⁵ 대성리 유적의 청동화살촉(三稜鏃)과 철제소찰 또한 위만조선에서 직접 유입된 외래계 유물로 파악한다.

한편 충북 지역에서 영남 지역 진한의 대표적 토기인 와질토기가 발견되는 점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진천 송두리 유적과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와질토기의 대표적 유형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가 발견되었다.⁶⁶ 토광에 목관을 시설한 무덤에서 발견된 사항 또한 영남 지역과 유사하다. 영남 지역 진한과 밀접한 교류 및 친연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며,⁶⁷ 나아가 ‘강원 영서 - 충북 - 영남’ 노선의 주민 이동 및 진한의 범위로 연결

61 김병곤, 2003,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161~167쪽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159~164쪽.

62 朴成熙, 2003, 「경춘북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43~153쪽.

63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7, 『忠州 金陵洞遺蹟』.

64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拡散 -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九州大学大学院 人文科学研究院, 5~13 ; 정인성, 2015, 「고고자료로 본 낙랑·대방군과 마한제국」 『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5 -백제의 성장과 중국-』, 한성백제박물관, 86~88쪽.

65 金想民, 2009, 「韓半島 鑄造鐵斧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 『호서고고학』 20, 96~98쪽.

66 車勇杰·趙詳紀, 1991, 『鎭川松斗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 이미란·정효정·윤소라, 2018, 「송절동 유적 마한~백제 토광묘의 양상」 『청주 마한 백제를 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 내 송절동 유적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9~75쪽.

67 成正鏞, 2007, 「漢江·錦江流域의 嶺南地域系統 文物과 그 意味」 『백제연구』 46, 125~126쪽.

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유물·유적이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물질자료를 통해서도 북한강 유역 역시 위만조선·낙랑 유민이 옮겨가 이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삼국지』 한전의 용법에 따르면, 마한의 동쪽 그리고 그 유민이 옮겨간 지역을 곧 진한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삼국지』 동이전 안에서만큼은 강원 영서 지역 역시 ‘韓’ 그 중에서도 ‘辰韓’으로 분류되었다고 판단한다.

VI

맷음말

- 족속 표기와 실체에 대한 이해 -

예와 맥이라는 명칭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 중원의 동북방 夷族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점차 중국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으로 확장되어 쓰인 것이다. 소수 일부 주민 집단의 이동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그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같은 실체라 하기는 어렵다. 前史에 쓰인 용어를 후대의 史家가 차용하면서 한반도 지역에 굳어진 명칭으로 보아야 하겠다. 더하여 濊(穢)자와 貊자는 실존 이름에 대한 음차가 아니다. 羗·氐·羌 등과 같이 글자의 원 뜻에는 좋지 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멸시와 비칭의 의도에서 그와 같은 글자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붙여진 것이다.

개념사가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2006)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고, 모든 역사는 언어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고 한다. 개념사는 역사 서술과 담론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개념을 탐구하는 역사학을 지향한다. 개념의 특성에 대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相異性과, 그것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의미의 多意性이다. 더하여 사료에 쓰인 개념어는 실제의 역사를 수렴하기도 하지만, 때로 균열과 불일치를 드러내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역설 또한 경청할만하다. 그리하여 개념을 해석한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와 실제의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하고도 복잡한 긴

장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⁶⁸

예, 맥, 한, 말갈과 같은 종족명 또한 역사가에 의해 쓰이는 하나의 용어이고 개념이다. 코젤렉이 말한 바와 같이 상이성과 다의성이 짙고, 역사가의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고 서술되었던 것이다. 1차 사료에서 쓰인 실체라 하더라도 후대의 역사가가 만든 언어적 구성물이며 타인에 의해 규정된 개념이다. 역사가에 의해 쓰인 용어와 개념이 얼마나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영서 지역의 문화권 및 종족성을 ‘(영서)예’ 또는 ‘맥’·‘맥국’으로 규명하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영남 지역과 더불어 진한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전체를 대변하는 실체라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삼국지』 동이전에서 구현된 세계와 그 인식에 입각한 바이고, 그에 따르면 진한이라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한과 무관하며, 낙랑·말갈·맥국 그리고 우두주 이하의 여러 지명 등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 편찬 때에는 국내외의 여러 사서와 찬자의 입장이 함께 어우러져 그와 같이 다양하게 쓰인 것이다. 그 모든 명칭과 그 명칭에 대한 개념이 시기에 따라 그리고 찬자에 따라 다르게 쓰이면서 나타난 혼선이라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인식과 개념 또한 실체를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며 전체적으로 표현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령 북방의 부여부터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를 예의 종족으로 기술한 『삼국지』의 필법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부터 비판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서 등장하는 말갈을 ‘예계말갈’이니 ‘맥계말갈’이니 하는 구분은 더욱 위태로운 가설이며 실체에 대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맥·말갈 모두 처음에는 중국 사가에 의해 쓰인 卑稱이거니와 대개 북방의 종족을 일컫는 경우가 많고 그와 관련된 인상이 강하다.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의 실체 및 종족성은 오히려 위만조선과 삼한, 그리고 백제와 신라 안에서 친연관계를 모색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68 국내 학계의 개념사 소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박근갑 외, 2015,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도서출판 소하.

참고문헌

『三國史記』(鄭求福 外, 1997,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漢書』(中華書局, 1962)

『後漢書』(中華書局, 1965)

『三國志』(中華書局, 1982)

『晉書』(中華書局, 1982)

국사편찬위원회, 2007(복간2쇄),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1, 신서원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김병근, 2003,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박근갑 외, 2015,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도서출판 소학.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吳永贊,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출판사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車勇杰·趙詳紀, 1991, 『鎭川松斗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7, 『忠州 金陵洞遺蹟』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권도희, 2017, 「원삼국~한성백제기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중부고고학회 2017년 학술대회 논문집』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金起燮, 1991,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보이는 靺鞨과 樂浪의 位置에 대한 재검토」 『청계사학』 8

김기섭, 2018, 「백제의 국가 형성 및 주민 구성 연구 동향과 논점」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김길식, 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백제문화』 50

김무중, 2006, 「마한 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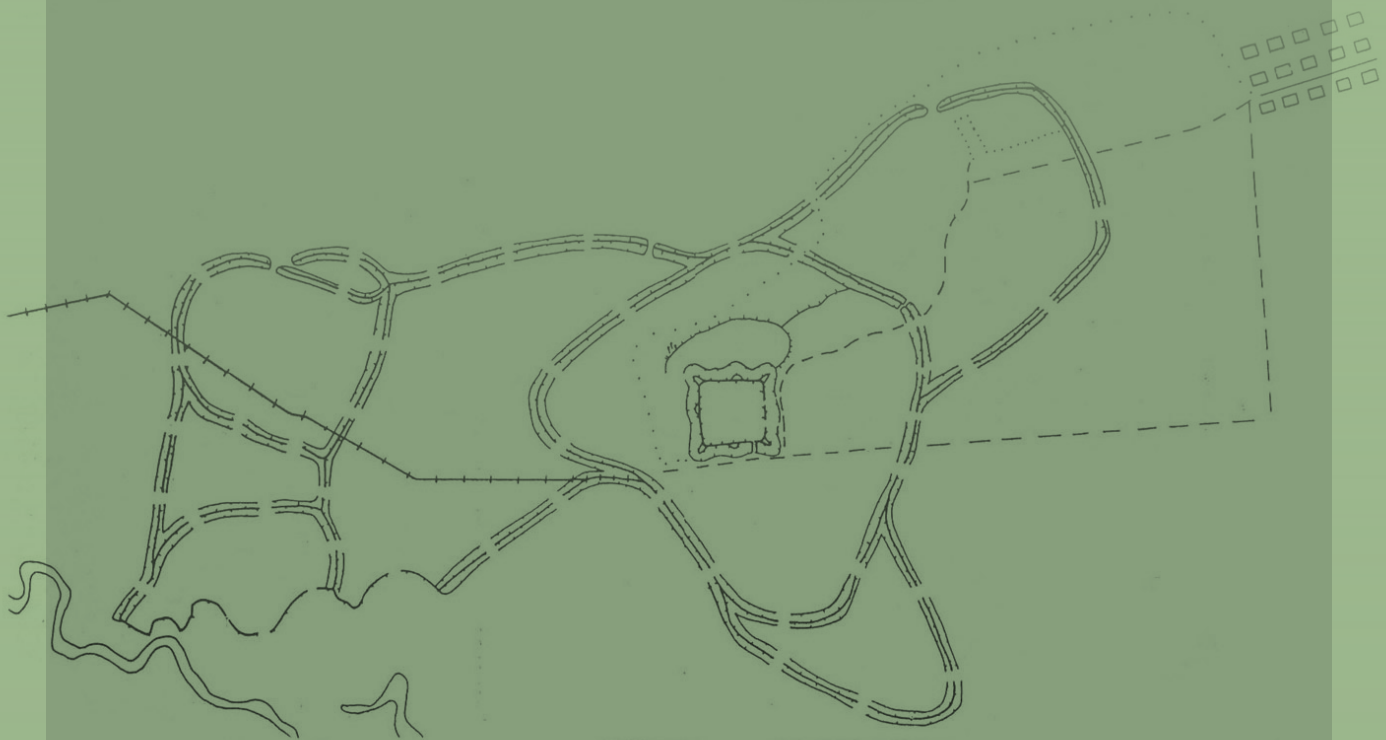
_____,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 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중부고고학회 2017년 학술대회 논문집』

- 金想民, 2009, 「韓半島 鑄造鐵斧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 『호서고고학』 20
- 김병준, 2019,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교역」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 · 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한국고고학보』 81
- 金侖禹, 1995, 「蓋馬大山과 單單大嶺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 18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韓國古代史研究』 51
- 김창석,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고고학』 13-2
- _____,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신라문화』 46
- _____, 2018, 「맥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 金澤均, 1985, 「春川 貊國設에 關한 研究」 『백산학보』 30 · 31
- 문창로, 2007,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고이왕대의 체제정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2 -백제의 기원과 건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朴成熙, 2003, 「경춘복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 朴淳發,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 『백제연구』 26
- 박순발, 2013, 「백제, 언제 세웠나 -고고학적 측면-」 『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한성백제박물관
- 成正鏞, 2007, 「漢江 · 錦江流域의 嶺南地域系統 文物과 그 意味」 『백제연구』 46
- 심재연, 2019, 「고고학적 조사로 본 “晉率善穢伯長” 銅印의 출토지 신빙성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1
- 윤용구, 2018,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미란 · 정효정 · 윤소라, 2018, 「송절동 유적 마한~백제 토광묘의 양상」 『청주 마한 백제를 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 내 송절동 유적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李成珪,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영철, 2018, 「마한 고지의 신자료 성격과 의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 · 대방 · 왜』,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단연구소
- 이정빈, 2017, 「嶺南을 통해 본 마한 諸國과 曹魏」 『백제학보』 22
-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 · 진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 36
- 전덕재, 2009,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 전진국,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 『고구려발해연구』 48
- _____, 2018,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 정인성, 2015, 「고고자료로 본 낙랑·대방군과 마한제국」 『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5 -백제의 성장과 중국-』, 한성백제박물관
- _____, 2018, 「마한과 낙랑·대방 그리고 고조선」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남문화관
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최병현, 2018,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고고연구』 27
- 최복규, 2007, 「춘천지역의 유적과 맥국」 『강원인문논총』 17
- 춘천문화원, 2018, 「춘천의 청동기시대」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4, 고대문화』
- 홍주희, 2014,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
-
- 西嶋定生, 1999, 『倭國の出現』, 東京大學出版會
- 東潮, 2009, 「『三国志』東夷傳の文化環境」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拡散 -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九州大学大学院 人文科学研究院

삼국형성기의 대외교류
강원도 諸세력의 '역량' 검토

신 광 철



삼국형성기의 대외교류
강원도 諸세력의 '역량' 검토

신 광 철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Contents

- I. 서론: 연구범위 및 방향
- II. 강원도 諸세력의 盛衰
- III. 강원도 諸세력의 대외교류
- IV. 결론: 강원도 중심의 史觀

I

서론: 연구범위 및 방향

강원도 일원은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지형 탓에 오래전부터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문화권으로 알려져 왔다.¹ 하지만 이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시각일 뿐, 거시적인 안목으로 환동해 지역을 살펴본다면 강원도 일원의 태백산맥이 북동쪽으로는 연해주 북단, 남으로는 한반도 동남쪽 끝단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처럼 동쪽으로 환동해와 만나는 드넓은 산악지역에는 古代로부터 수많은 세력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들이 공유했던 문화 역시 장기간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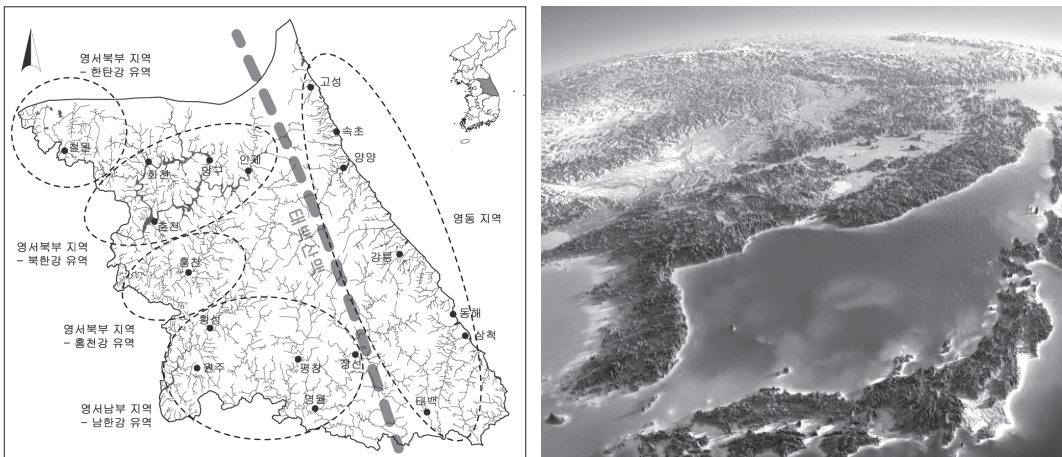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 일원의 지형(左)과 환동해지역의 위성지도(右)²

이들 諸세력에 대한 정보는 국내 사료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중국 정사에 「열전」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데, 『三國志』, 『後漢書』, 『晉書』, 『魏書』, 『北使』, 『隋書』, 『舊唐書』, 『新唐書』 등에 등장하는 挹婁, 肅慎, 濊, 東沃沮, 靺鞨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다만, 삼국처럼 확실한 국가단계를 거쳐 수백 년간 존속하지 않은 점, 중국 왕조와의 교류 여부에 따른 기록

1 일제강점기 중앙(경성)의 시선에서 각 지역 농촌 사회의 성격이 규명되었는데, 이런 시선은 강원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도시와 농촌, 문명과 자연, 중심과 주변 등 이분법적인 담론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관점의 시각은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본격화되었다(이미정 2018).

2 <https://imgur.com/gallery/3kDqX> 참고(2019년 6월 1일 검색). Anton Balazh(그래픽 아티스트)가 NASA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산맥의 수직 구도를 강조하여 편집한 위성사진.

의 잔존, 자체 기록(명문 및 금석문 등)의 부재, 고고자료와 문헌사료간 느슨한 연결 등으로 인해 그 실체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강원도 각지에서 활발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강원도 일원 고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 중부를 대표하는 중도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거칠게나마 강원도 일원 세력의 ‘역량’³을 가늠하는 것을 연구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논의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중도문화가 형성되는 기원 전후부터 삼국의 강원도 진출이 본격화되는 4세기 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단, ‘삼국형성기’라는 시간적 테두리를 고려했을 때 각 시기별로 획기를 나누어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삼국의 강원도 진출 이전에 강원도 내에서 어떠한 변화상들이 감지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강원도 諸세력의 盛衰

1 문헌을 통해 본 강원도 諸세력

중국 사서 중에서 이른 시기의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읍루, 숙신, 동옥저, 예 등의 집단들이 강원도 일원, 더 나아가 환동해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4세기 말 이전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諸세력간 문화현상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먼저 각 세력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하나같이 ‘동쪽으로 큰 바다(大海)와 만난다(濱/窮)’고 적고 있어 앞서 살펴봤듯이 환동해 지역과 만나는 광범위한 산악지역 및 그 일원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쪽에서부터 읍루와 북옥저, 동옥저, 예(맥) 순으로 위치했으며 그

3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본고에서는 ‘강원도 일원의 諸세력들이 他者和 자신들을 구분·인지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존속·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단, 역량에는 현재의 상황은 물론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지닌 잠재력도 포함되는데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고고자료나 문헌사료를 통해 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1차원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고고자료(fact)에 문헌사적 해석(interpret)을 더하면서 최대한 논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변으로 부여와 고구려, 낙랑, 진한 등이 확인되고 있다(그림 2).

산이 많고 험준한데도 오곡이 잘 자란다는 것을 보면 곡간부 평야 혹은 사면 말단부의 해안가에 인접한 지형에서 농경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밖에 성품이 용감하다는 것도 비슷한데, 아마 험한 산 속에서 수렵·채집을 해야만 했던 상황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대군장(왕)이 없고 읍락마다 대인 또는 장수, 거수 등으로 불리는 지도자가 있음을 적고 있다. 즉, 1~3세기 무렵 환동해 지역에 존재했던 諸세력들은 국가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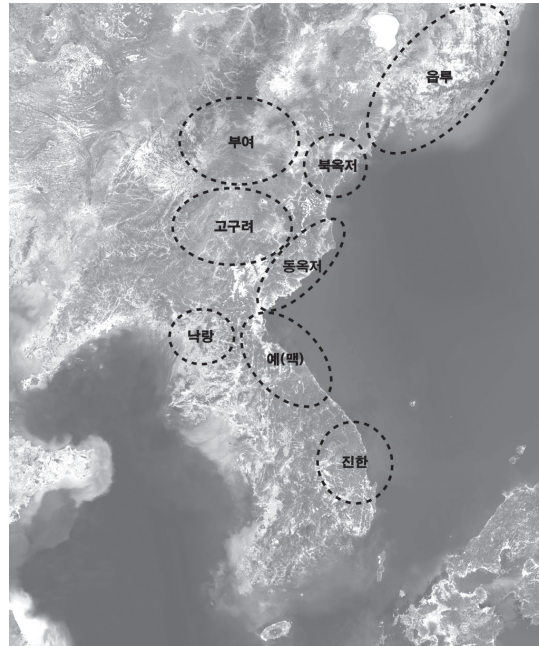


그림 2 환동해지역의 諸세력 분포도

더불어 지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諸세력들은 각자의 풍습이 달랐다. 먼저 언어를 비롯한 풍습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부여에 속했던 읍루는 부여인과 비슷하지만 언어는 달랐다고 한다. 그밖에 동옥저와 예는 일찍부터 고구려에 속했던 만큼 여러 부분에서 고구려와 비슷했지만 언어, 의복 일부에 차이가 있어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예속되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질화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가축, 장례, 혼인 풍습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군사문화 역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諸세력이 광범위한 산악지형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문화를 갖고 수백 년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삼국의 영토 확장으로 동옥저와 예가 사라진 뒤에 환동해 지역에 존재했던 숙신의 문화가 앞선 집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 심지어 그 뒤에 등장하는 勿吉과 靺鞨의 풍습이나 문화 역시 큰 차이가 없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중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집단은 강원도 일대에 있었던 ‘濊’이다. 『후한서』와 『삼국지』가 한반도 일대를 바라보는 시점은 3세기이지만, 예와 옥저의 경우에는 그보다 이른

4 동시기 고구려의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록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환동해에 인접한 산악지형이 농경에 더 적합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렵·채집 이외에 諸세력의 생업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다.

시기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다. 이는 중국 왕조에서 군현을 설치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의 경우, 풍습이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 천문을 읽어 농경에 활용한다거나 천제(舞天)를 지낸다는 점, 각 읍락마다 산천의 경계가 있고 상호불가침 규정(責禍)이 있다는 점, 양잠과 길쌈을 하는 등 다른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이를 보면 환동해 지역에서는 예가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대군장이 없고 후, 읍군, 삼로라는 관직이 있다(其官有, 侯邑君三老)'⁵고 했는데, 이는 大人 또는 渠帥 등과 같은 지도자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조직 하에 편제된 관료조직이었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⁶

표 1 중국 동북지역과 강원도 諸세력의 현황

| | 읍루(1~3세기) | 동옥저(1~3세기) | 예(1~3세기) | 속신(3~5세기) |
|----|---|---|---|--|
| 출전 | 『후한서』, 『삼국지』 | 『후한서』 『삼국지』 | 『후한서』, 『삼국지』 | 『진서』 |
| 지리 | 옛 속신의 나라 부여에서 동북쪽 천여리 동쪽 - 큰 바다(濱) 남쪽 - 북옥저(接) 북쪽 - 끝을 알 수 없음 |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 동쪽 - 큰 바다(濱) 남쪽 - 예맥(接) 북쪽 - 읍루와 부여(接) 북쪽 800리 지점 - 북옥저(읍루 接) | 옛 조선의 지역 동쪽 - 큰 바다(窮) 서쪽 - 낙랑(至) 남쪽 - 진한(接) 북쪽 - 고구려와 옥저(接) | 일명 읍루 부여에서 60일 정도 거리 동쪽 - 큰 바다(濱) 서쪽 - 寇漫汗國(接) 남쪽 - 不咸山(在) 북쪽 - 약수(極) |
| 지형 | 산이 많고 험준함 |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다 토질이 비옥.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농사짓기 적합 | . | 길이 험준하여 수레나 말이 다니지 못함 |
| 혈통 | 부여 사람과 비슷한 외모 언어는 부여, 고구려와 다름 | 언어, 음식, 거처, 의복 예절 모두 고구려와 비슷 언어 일부는 고구려와 다름 | 노인들은 고구려와 같은 종 족이라 말함. 언어와 법령, 풍속이 대체로 비슷 의복은 고구려와 다름 | . |
| 농경 | 五穀, 麻布 | 五穀 | 知種麻, 養蠶, 作絺布 | . |
| 가축 | 돼지 多, 소, 말 | 소와 말이 少 | . | 말(타지 않음) 소와 양 X, 돼지 多 |

5 三老는 실제 관직이 아님에도 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로는 민의 교화와 官民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력과 학식, 덕망을 겸비한 유력자 중 선발되는 자리였다(이성규 2006: 49-51). 낙랑의 郡三老를 보고 예에서 관직처럼 운용한 것인지, 기존의 삼로가 관직화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옥저의 지도자(長帥, 渠帥)들이 스스로 '三老'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관직처럼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 건무 6년(30) 동부도위가 폐지되면서 토착 지배층인 거수를 縣侯로 삼고 不耐, 華麗, 沃沮 등의 모두 후국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 침공하고 싸웠으며 그중 不耐濊侯만이 후국으로의 면모를 유지하고, 功曹, 主簿 등의 관직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관직은 모두 濊인이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과거 국가 경영의 경험이 있는 예 집단이 그 세력을 온전히 했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동시기 옥저 여러 읍락의 거수들은 三老를 자칭할 뿐이었다.

| | 읍루(1~3세기) | 동옥저(1~3세기) | 예(1~3세기) | 속신(3~5세기) |
|-----|--|---|---|--|
| 특산품 | 赤玉, 好貂 | 貂, 布, 魚鹽, 海草類, 美人 | 文豹, 果下馬, 班魚皮 | 소금과 철 ×, 貂皮 |
| 주거 | 굴속을 깊이 파서 거주 집 가운데에 변소 설치 | . | 深山窮谷에 거주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새로 축조 | 여름 - 나무 위 거주 겨울 - 땅굴 속에 거주 우물이나 부엌 × |
| 정치 | 大君長 ×, 읍락마다 大人 | 大君王 ×, 읍락마다 長帥 渠帥들은 三老라 자칭 | 大君長 × 侯, 邑君, 三老(관직) | 君長(대대로 父子 세습) 3세기경 왕 존재(傳) |
| 풍습 | 돼지고기 - 식용 돼지가죽 - 의복 제작 돼지기름 - 피부 보호 여름 - 작은 베조각 착용 법도나 풍습이 동이 중에서 가장 기강이 없음 | 혼인 풍습 - 민며느리제도 | 남녀 모두 曲領 착용 山川을 중요시 여겨 산천 마다 각 읍락의 경계를 설정 다른 부락 침입시 경제적 보상(責禍) 천문을 읽어 농경에 활용 매년 10월 천제(舞天) 호랑이 神을 섬김 珠玉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 | 문자 ×, 언어로 약속 돼지고기 - 식용 돼지가죽 - 의복 제작 돼지 털 - 布 제작 건강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은 천하게 여김 나라 동북쪽에서 산출되는 쇠를 자를 만큼 날카로운 돌을 케기 전에 神에게 기도 |
| 장례 | . | 큰나무곽(10장) 제작 시신은 임시매장 후 뼈만 수 습하여 안치. 가족의 뼈를 한데 매장. 木像 제작 | . | . |
| 성품 | 종족의 숫자가 적음 매우 용감하고 힘이 센 | 질박하고 정직하며 군세고 용감함 | 우직하고 건실하며 욕심이 적어 구걸하지 않음 | 성질이 흉악하고 사나우며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음 - 부모가 죽어도 못 × |
| 군사 | 善射, 독을 바른 석촉 사용 배를 잘 타고 주변 노략질 | 창을 잘 다룸 步戰을 잘함 | 3丈 길이 창을 사용 步戰을 잘함, 낙랑단궁 생산 | 석촉, 가죽과 뼈로 만든 갈곳, 단궁과 楛矢 제작 |

중국 사가들은 이미 元朔 원년(B.C.128)에 濊君 南閩 등이 위만조선의 우거왕을 배신하고 28만口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을 데리고 요동에 귀속하였고, 한 무제가 이를 滄海郡으로 삼았다가 수년 뒤에 폐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밖에 남해차차웅 16년(19), 북명에서 받을 갈던 사람이 ‘濊王之印’을 발견해 바쳤다는 기록⁷ 등을 보면 예는 이미 군주권을 상징하는 국새와 행정조직 등을 갖춘 국가 경영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3세기 무렵 예는 비록 그 세가 많이 기울었지만 예 집단은 수백 년 전 국가 경영의 경험을 인지·계승했고, 그로 인해 다른 집단보다 풍부한 기록이 남았던 것은 아닐까 싶다<표 1>. 더불어 살펴볼

7 『후한서』, 『삼국지』를 보면 부여가 본래 濊貂의 땅이었으며, 그 나라 가운데에 濊城이 있고, 그 나라 도장에는 ‘濊王之印’이라는 글귀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평양 정백동 1호분에서는 ‘夫租濊君’이라고 새겨진 銀印이 출토되기도 하였다(리순진 1964; 백련행 1962). 이를 보면 예가 국가 단계에 있었을 때 예왕이 쓰던 도장이 전해졌거나, 예(국)이 쇠퇴한 이후 그 후신들이 각지에서 ‘예왕지인’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의미로 그러한 도장을 만들었을 수 있다.

것은 역대 중국 사서에는 「濊傳」만 전해지지만 분명 사서 곳곳에는 예와 함께 貊의 존재가 보인다는 점이다. 『삼국지』와 『후한서』는 고구려 및 동옥저의 남쪽에 접한 집단을 ‘濊貊’으로 표현하고, 한무제가 조선 정벌 후 설치한 현토군이 ‘夷貊’의 침략을 받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겨졌다고 적고 있다. 貊이 종종 고구려와 동의어로 사용(조영광 2015: 103-108)되기도 하지만 상기 집단들은 고구려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존재로 봐야 적절할 것이다. 더불어 고구려 유리왕 33년(14)에 정벌한 梁貊, 중국 왕조가 고구려를 거론할 때 항상 같이 언급하는 濊貊, 고구려의 別種이라고 지칭되는 小水貊⁸ 등 중국 동북지역에도 맥이라고 불리는 집단도 있다. 하지만 양자가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중 중국 동북지역이 아닌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맥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도록 하겠다.

현재 한반도의 맥에 대해서는 貊國 또는 嶺西貊이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⁹ 우선 『삼국사기』를 보면 맥국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된다. 유리이사금 17년(40) 화려·불내 2현의 기병이 서나벌 북쪽 변경을 침범하자 맥국의 渠帥가 군사를 보내 이를 물리쳤고 서나벌이 맥국과 우호를 맺었다는 기록이다.¹⁰ 일반적으로 ‘國’은 군장사회와 성숙한 고대국가의 중간 단계로서 내적으로는 율령제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외적으로는 중추적인 공권력(왕권)을 중심으로 지역 수장을 경유해 주변 지역에 대한 공납제적 지배가 이루어진 국가 형태를 일컫는다. 즉, 국가형성단계에 있는 초기국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박대재 2013). 그렇게 봤을 때 맥국은 과거 예(국)과 비슷하거나 그에 모자라는 단계였을 수 있다. 화려·불내 등 중국 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정치체와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것은 물론 서나벌과 외교관계를 맺는 행위(與貊國結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각지(횡성, 평창, 홍천 등)에서 확인되는 태기왕 전설도 흥미롭다. 평창과 횡성 사이에는 해발 1,261m의 태기산이 위치하며 이를 기점으로 두 지역에 서로 다른 내용의 전설이 전해진다. 먼저 평창에는 맥국의 태기왕이 예국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白玉浦에 투신했다는 내용

8 고구려는 大水 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그 별종은 小水 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소수맥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 양자는 종족성이 유사하나 힘의 우위에 따라 거주 구역이 구분된 듯하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유리명왕 33년 정벌한 양맥과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다.

9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제1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에서도 김택균은 영서맥의 존재를 인정하고(2018), 김창석은 맥국의 허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2018).

10 한편 유리이사금 19년(42)에는 맥의 우두머리[帥]가 사냥한 짐승을 바쳤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2년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맥국의 거수’에서 ‘맥의 우두머리’로 격하된 듯하다. 일단 본고에서는 맥국 관련 기록만 다루도록 하겠다.

이 전해지며, 횡성에는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와 싸우다가 三浪津 전투에서 패배하고 덕고산(태기산)에 와서 4년간 재기를 노렸으나 결국 신라군에게 패배하고 진한도 멸망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徐俊燮 1986; 柳仁順 1990; 이학주 2015). 2가지 전설의 내용이 다른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강원도 일원에 전해지는 전설임에도 맥국, 예국, 신라, 진한 등이 다 같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신라본기」를 보면 국초 신라와 만나는 집단들로 변한(B.C.39)과 낙랑(B.C.28/4/14/36/37), 마한(B.C.20/B.C.19),¹¹ 동옥저(B.C.5), 맥국(40/42) 등이 나오는데, 만약 신라가 경주에 있었다면 이해하기 힘든 기사들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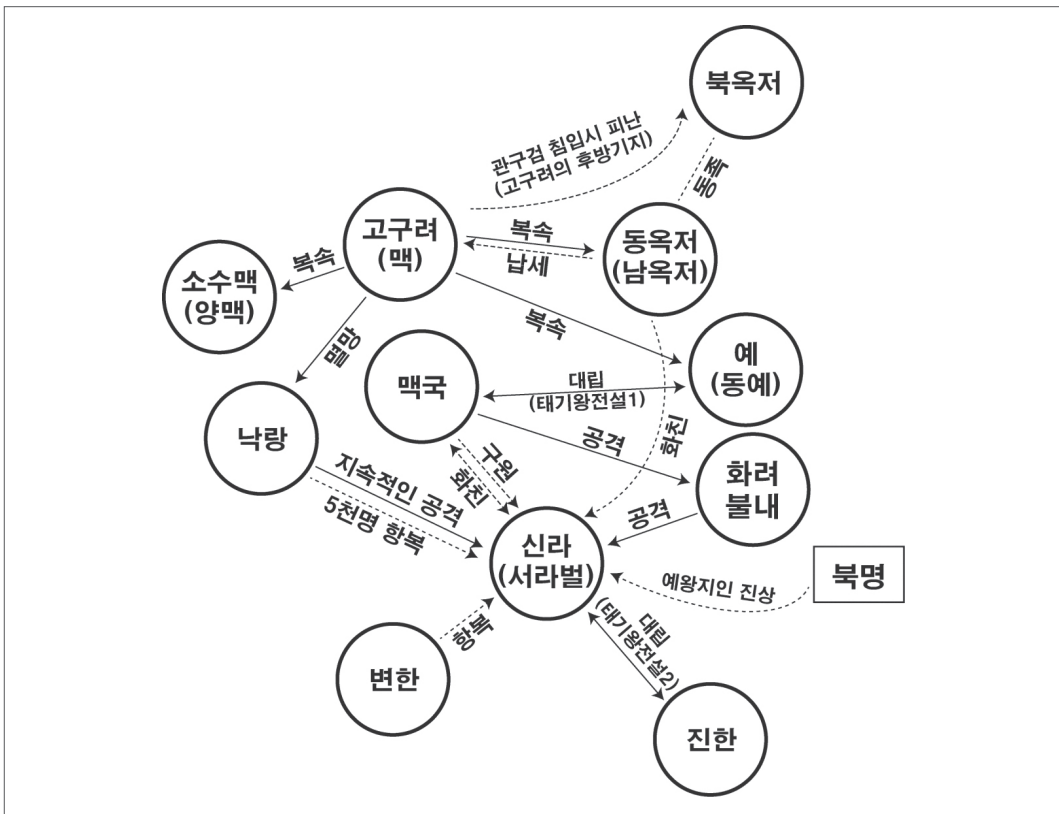


그림 3 강원도 諸世력과 주변 집단과의 관계형권 및 마한계문화권 취락 분포도

11 혁거세거서간 38년(B.C.20.) 호공을 마한에 사신으로 보내는데, 그때에도 호공은 진한 유민, 변한, 낙랑, 왜인이 모두 서라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自評하고 있다. 그리고 마한왕은 秦의 난리를 괴로워하여 동쪽으로 온 중국인, 辰韓인 등이 점점 서라벌로 모여들어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적고 있다. 기록 자체가 허구가 아니라면 당시 서라벌의 상황을 마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기년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기사가 왜 혁거세거서간 38년조에 있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혁거세거서간 53년(B.C.5) 동옥저의 사신이 신라에게 말 20필을 바쳤다는 기록(함경도→경주?)과 남해차차웅 16년(19) 북명 사람이 ‘예왕지인’을 바쳤다는 기록(강릉→경주?), 유리이사금 14년(37) 낙랑인 5천명이 신라로 항복해 왔다는 기사(평안도→경주?)가 그러하다. 하물며 후자의 경우는 「고구려본기」에도 이와 연결되는 기사가 있어 소위 「신라본기」를 중심으로 한 기년 조정(姜鐘薰 1997; 1999; 李富五 2012; 李熙眞 1998)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斯盧諸國 또는 진한계가 남하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난 평양 지역의 낙랑으로 보기도 하며(千寬宇 1976, 23-24; 1989, 178-183), 낙랑 동부도위에 속해있는 옥저 지역의 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文安植 1997; 文昌魯 2004). 그밖에 6세기 중엽 신라가 함흥 지역까지 진출한 사실을 1세기 중엽 고구려의 옥저 진출 기사에 부회하였다는 시각(宣石悅 2001: 71), 진한 諸세력의 역사가 훗날 신라사로 편입되면서 남게 되었다는 주장(李炯佑 1991)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최근에는 신라 초기에 만나는 진한의 위치를 영남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한강 중상류역(충북지역, 강원 영서지역)까지 포괄해서 봐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와서(전진국 2018)¹² 삼한의 인식에 대해 보다 유동적으로 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상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 강원도 일원의 諸세력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중국 사서에 언급하고 있는 濊, 『삼국사기』 및 중국사서가 언급하고 있는 濊貊, 강릉의 濊國과 함께 강원도 일원의 대표적인 소국으로 알려져 있는 춘천의 貊國,¹³ 그밖에 이들 집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변한, 진한, 낙랑, 마한, 동옥저, 서라벌 등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당시 강원도는 여러 집단이 끊임없이 相爭·交流하면서 내재적 발전을 거듭하는 역동적인 공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그림 3).¹⁴

12 논자는 강원 영서지역의 종족성에 대한 고고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과 『삼국사기』 초기 신라, 백제와 접촉하는 낙랑과 말갈 등의 실체에 대해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진한의 범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13 『太平御覽』에서는 『魏志』를 인용하며 예를 두고 獺貊國이라고 기록하였다. 시기에 따른 인식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인식이 변화된 데에는 중국 사가들의 정치체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14 본고에서는 문헌기사를 토대로 맥국 혹은 예국 등 강원도 내 정치체에 대한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 사실상 문헌에 단편적으로 ‘國’이라고 기록된 수십 개 정치체의 국가발전단계가 균일하지 않은데다가 그중 기준이 될 만한 집단의 고고자료가 확실하게 확인된 바도 없다. 그렇기에 강원도 일원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문헌상 정치체와 1대 1로 등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마찬가지로 예와 맥을 구분하거나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연구역시도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2 강원도 諸世력의 성쇠

앞서 살펴봤듯이 B.C.1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는 수백 년간 강원도 일원에는 예, 맥, 변한, 진한, 낙랑, 동옥저, 서라벌 등 다양한 집단들이 상쟁하면서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거기에 고구려, 백제, 마한 등 주변의 국가 단계에 이른 집단들까지 가세하면서 각 집단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였다.

강원도 諸世력의 존속기간과 활동 시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자체 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한 옥저, 예(맥) 등은 중국 사서에 나온 단편적인 기록과 『삼국사기』에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기원전부터 중국 군현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했던 옥저, 예(맥) 등은 이후에도 중국 군현(낙랑·현토군), 고구려, 서라벌 등 주변 국가들의 팽창 방향 및 압박의 밀도에 따라 성쇠를 겪었다. 이를 몇기의 획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표 2 강원도 諸世력의 활동 시기

| 시기 | | B.C. 1세기 | 1세기 | 2세기 | 3세기 | 4세기 | 5세기 | 6세기 이후 | |
|----------|--|----------|-----|-----|-----|-----|-----|--------|--|
| 문헌 사료 | 동옥저 | | | | | | | | |
| | 북옥저 | | | | | | | | |
| | 예(동예) | | | | | | | | |
| | 화려·불내예 | | | | | | | | |
| | 맥국 | | | | | | | | |
| | 낙랑(조선) | | | | | | | | |
| | 삼국 | 신라 | | | | | | | |
| | | 고구려 | | | | | | | |
| | 말갈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고고 자료 | 중도 | | | | | | | | |
| | 영서 | | | | | | | | |
| | 영동 | | | | | | | | |
| | 올가문화 | | | | | | | | |
| | 삼국 | 백제 | | | | | | | |
| 고구려 | | | | | | | | | |
| 신라 | | | | | | | | | |
| 비고 | ※ 강원도 일원에서 서라벌(신라)의 흔적은 1세기 중반 사라지고 이후 충청북도/경상북도 순으로 확인 ※ 강릉 및 그 이남 지역은 4세기 대부터 신라 진출 / 강원도 일대의 말갈 세력은 삼국 후기까지 존속 | | | | | | | | |

15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사료를 비롯해 『후한서』, 『삼국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일일이 주석 처리하지 않았다.

1) I 기 : 기원전후~1세기

(1)① 동옥저: 한무제는 조선을 멸하고 옥저 땅을 현토군으로 삼았다. 하지만 夷貊의 침입을 받아 郡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긴 뒤에는 옥저를 縣으로 고쳐 낙랑 동부도위에 속하게 했다가, 후한 광무제때(B.C.6~57)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이후부터는 渠帥를 沃沮侯로 봉했다. B.C.5년에는 서라벌의 혁거세거서간에게 좋은 말 20필을 바쳤는데 동옥저 측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고학적으로 옥저는 연해주에서 남해해 온 호전적인 폴체문화로 인해 함경도 일대로 터전을 옮겼으며, 그렇게 1세기경 을가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여파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다(강인욱 2018: 64-65). 옥저는 지역이 좁고 작은데다가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다(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고구려에 臣屬하였다. 고구려인은 미인들을 종이나 첩으로 삼고, 동옥저인들을 奴僕처럼 대우하였다.

(1)② 북옥저: B.C.1세기~기원전후한 시점에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강성해지는 시점에 북옥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은식 2018: 223-227). B.C.28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는 북옥저는 동옥저와 읍루 사이에 위치하며, 읍루의 노략질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아마 북옥저 주변에는 읍루 이외에 경쟁할만한 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일찍 북옥저를 정벌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옥저 일대에 대한 경영은 그로부터 1세기 뒤에나 본격화된다.

(2)① 예: 우거왕 때(B.C.128.) 예군 南閩 등이 조선을 떠나 28萬口를 거느리고 요동에 귀속하자 한무제는 그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가 수년 후 폐지한다. B.C.108년에 한사군이 설치된 후 B.C.82년에는 낙랑·현도군만 남았다. 현도를 서쪽으로 옮긴 후에는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예속되었으나 지역이 넓고 거리가 멀어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 이후 30년에는 동부도위도 폐지하고 그 지역을 포기하였으며 토착 거수를 縣侯로 삼았다. 이즈음 예도 동옥저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예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李丙燾 1976: 195-202).¹⁶ 이때 한반도 중부지역에는 재지의 점토대토기+내만구연

16 『삼국지』는 예를 두고 동부도위 폐지 이후 ‘한나라 말기에 다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漢末更屬句麗)’고 적고 있다. 전한 말기(1세기 초)인지 후한 말기(3세기 초)인지 뚜렷하지 않으나, 예 지역이 주변 세력들의 浮沈에 따라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 놓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또한 강원도 諸세력들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옹, 파수부내만구연옹 등의 중도식 무문토기+타날토기가 공반되며, 주거지 형태의 유적 입지의 유사성, 쪽구들 등에서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와 많은 문화 속성이 공통되는 중도문화가 출현한다.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B.C.2세기 후반~B.C.1세기보다는 약간 늦은 시점인 B.C.1세기 전반에 영서지역, B.C.1세기 후반에 영동지역에 중도문화가 출현하기 시작한다(유은식 2018: 270-276).

- (2)② 화려·불내예: 30년 동부도위 폐지와 맞물려 옥저 등 諸 縣은 모두 侯國이 되었다. 이들(夷狄)은 相爭하지만 그중 不耐濊侯만이 侯國의 면모를 유지하고 功曹, 主簿 등의 관직을 보유했다. 40년에 서라벌 북쪽 변경을 침범했으나 맥국 渠帥의 군대에 격퇴된다.
- (3) 맥국: 40년에 화려·불내 2현의 군대를 물리친 후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2년 뒤에는 사냥한 짐승을 서라벌의 유리이사금에게 바쳤다(貊帥獵得禽獸, 獻之). 평창의 <태기왕전설>에 의하면 맥국은 예국과 싸워 크게 패했다고 한다. 영동과 영서 지역 간 諸 세력들의 상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 (4) 낙랑: B.C.28년부터 서라벌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4년, 14년 계속 공격을 가하던니 36년에는 서라벌 북쪽 변경의 타산성을 함락시켰다. 23년에 낙랑태수 유현을 죽이고 王調라는 토착민이 스스로 대장군 낙랑태수라 칭하지만 30년 광무제가 파견한 왕준에 의해 진압되고 이 일로 동부도위가 폐지된다. 37년에는 낙랑인 5천명이 서라벌로 來投하자 이를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44년에 광무제가 다시 정비한 낙랑은 이후 300년에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신라에 항복(歸服)할 때까지 더 이상 신라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 (5) 서라벌: B.C.50년에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물러가고, B.C.39년에는 변한이 항복한다. B.C.20년에 마한에 사신으로 간 호공은 ‘진한 유민·변한·낙랑·왜인’ 모두 서라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자부한다.¹⁷ 마한은 진한 교체기에 난리를 피해 동쪽으로 온 자들이 서라벌로 흘러들어가 서라벌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한다. 당시 동쪽저는 서라벌을 南韓으로 불렀는데, 3년에 유리명왕과 다투고 고구려를 떠난 협보

17 「신라본기」에는 신라가 초기에 마한, 진한, 변한을 다 만난 것으로 적고 있다. 다만 B.C.20년에 이미 ‘진한 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진한은 그 이전에 멸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당시 서라벌을 두려워하는 나라들과 다 접촉 기사가 있는데 진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혹시 황성의 <태기왕전설>에 나오는 진한의 마지막왕(태기왕)과 박혁거세의 전설이 당시 상황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 달아난 남한 역시 서라벌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天鳳 5년(18)에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7개 나라가 항복해 왔으며, 建武 18년(42)에는 고구려군이 서라벌을 침범해 왔다고 적고 있다. 이를 보면 옥저·예 지역은 고구려와 서라벌, 백제 등 주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같으며, 그 밖에 여러 소국들 또한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성쇠를 겪었던 것 같다.¹⁸

- (6) 고구려: 고구려는 국초부터 말갈 부락,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 부여, 선비, 황룡국, 양맥, 고구려현, 개마국, 구다국, 매구국, 낙랑국 등을 정벌해 영토를 넓히면서 정복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57년에는 동옥저를 정벌해 동쪽으로 滄海에 이르렀는데, 25년에 남옥저의 仇頗解 등 20여 家가 백제 온조왕에게 귀순했다는 기록을 보면 1세기 중반 이전에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옥저 지역에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그 지역의 大人을 뽑아 使者로 삼아 토착 거수와 함께 읍락을 다스리게 하면서 맥포, 어염, 기타 해산물, 미인 등을 수취해갔다. 이를 보면 고구려는 재지계 지배층을 통한 간접지배보다 한 단계 강화된, 해당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편해 지배하는 방식(김현숙 2005: 136~140)을 채택했으며, 이는 행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수취 체계가 분리된 분권적인 형태(徐毅植 1990: 127~128)라고 할 수 있다. 이후 32년에는 최리의 낙랑을 정복하고 5년 뒤에는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반란 기사 없이 같은 대상을 5년 차이를 두고 2번에 걸쳐 정벌할 이유는 없고, 37년의 낙랑 멸망 기사 이후 이들이 서라벌로 내투한 것을 보면 낙랑국과 낙랑은 병존하던 다른 존재로 보인다(김남중 2018: 90-92; 조법종 2003). 하지만 44년에 광무제가 다시 낙랑을 정벌해 군현을 삼으니 살수 이남이 다시 한에 속하게 된다.¹⁹ 그리고 47년 蠶支落部の 大家 대승 등 1만여 家²⁰가 낙랑

18 그밖에 『三國遺事』 『紀異』 第1 〈伊西國〉조를 보면 노례왕 14년(37)에 이서국 사람들이 金城을 공격했다고 나온다. 그리고 『紀異』 第1 〈第三 弩禮王〉조에는 建武 18년(42) 서라벌이 이서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紀異』 第1 〈味鄒王 竹葉軍〉조를 보면 이서국이 금성을 공격한 것은 14대 유리왕(284~298)대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했는데, 댓잎[竹葉]을 귀에 꽂은 이상한 병사[異兵]들이 나타나 이서국군을 몰아내고 미추왕 능 앞에서 홀연히 사라졌다는 기록을 적고 있다. 같은 기록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례이사금 14년(297)조에 남아 있어 첫 번째 이서국 조 기록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서국은 실제 경북 청도에 위치하고 있어 서라벌이 국초에 만났던 집단들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19 『삼국유사』에서는 낙랑국과 낙랑군을 혼용하고 있다. 이는 낙랑국과 낙랑군이 지리적으로도 크게 멀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실제 광무제는 낙랑국과 낙랑군이 고구려에 모두 멸망당하고 나서 낙랑군으로 이를 재건했다.

20 『후한서』에는 만여口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빠져나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으로 가서 한에 투항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또한 98년 태조대왕이 7개월(3~10월)이나 책성 지역을 순수하고, 102년에도 책성 지역을 위무한다. 본격적으로 북옥저 지역에 대한 경영이 시작된다.

2) II기 : 2~3세기

(1) 옥저: 244~246년 曹魏 毋丘儉의 고구려 정벌시 동천왕은 옥저 지역으로 달아났는데, 무구검은 옥저 읍락을 모두 파괴하고 3천여 급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다. 옥저의 호수가 5천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옥저 사회가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훈춘 일대에서 1~3세기대 고구려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고고자료는 볼 수 없다. 강인옥은 옥저 지역을 수백 년간 고구려가 경영했음에도 고고자료가 없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축한이 239년에 만들어서 보낸 토기, 무구검이 철저히 옥저 지역을 파괴한 것을 봤을 때²¹ 고구려가 책성 지역을 안정적으로 경영했다고 보았다(2018). 3세기의 공백을 기점으로 이전의 을가문화와 이후의 백산말갈 문화로 나누게 된다.

(2) 예: 桓靈之末(146~189)에 한예가 강성해져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중도문화가 한반도 중부지역에 확산·발전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하지만 3세기로 넘어가면서 중국 왕조의 통제가 강화된다. 245년에 낙랑태수 劉茂와 대방태수 弓遵이 고구려에 복속한 단단대령 동쪽의 예를 정벌하자 불내후 등이 항복했다. 247년에는 불내후가 불내예왕으로 봉해지는데 부여나 고구려왕 수준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두고 불내예왕을 동예 지역의 후국들을 이끌어 갔던 종교적 지도자처럼 해석하기도 한다(문창로 2016: 45-47).²² 景元 2년(261) 낙랑의 外夷인 韓·穢·貊이 위나라에 조공했다는 기록을 보면 기리영 전투 이후 양자는 꾸준히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으며, 낙랑문화가 강원도 일대에 확산되는 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21 『北史』를 보면 당시 무구검의 장수 王願은 옥저 천 여리를 횡단하여 숙신 남쪽까지 이르러 돌에 공적을 새기고 왔다고 한다. 동옥저뿐만 아니라 북옥저를 지나 숙신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고구려 동부의 통치체제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 태조대왕 66년(118) 고구려는 예맥과 함께 현도군을 습격해 화려성을 공격했다고 한다. 화려는 불내와 함께 30년에 서라벌을 공격했다가 맥국에 의해 격퇴 당했는데, 2세기 초반까지 불내와 함께 존속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의 현도군을 습격하면서 화려성이 공격받았다는 기록을 보면 고구려를 기준으로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당시 고구려의主攻격로가 서쪽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도 여기 등장하는 화려성은 濊 집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3) 맥국: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중도문화가 한반도 중부지역에 폭넓게 확산되는 시기인데, 최근 조사된 춘천 우두동유적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맥국이 있었다고 알려진 춘천 지역이 영서지역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발전 양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광철 2018: 115-117). 단, 춘천 지역에 국가 단계 수준의 정치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타국과의 관계 역시 알 수 없다. 한편, 책계왕의 죽음(298)과 관련해서 漢이 이끌고 온 貊人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맥국의 존재 여부를 떠나 예인과 구별되는 맥인의 존재는 3세기말까지 인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 (4) 낙랑: 246년 무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백제 고이왕이 좌장 진충을 파견해 낙랑의 변방 주민을 잡아왔다가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한다. 1세기 전반 대까지는 중부지역에서 낙랑토기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가, 1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낙랑으로부터 원저단경호, 평저호, 분형토기, 완 등의 기종이 중부지역으로 반입된다. 이후 2세기가 되면 상기 기종들을 현지에서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의 중심지는 영서지역의 북한강유역이며, 영동지역도 3세기 대까지 그러한 현상이 지속된다(김무중 2017: 12-13). 앞서 살펴본 춘천 우두동유적에서 낙랑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우물과 철기공방 등이 확인된 것을 보면 낙랑을 통한 선진문물이 강원도 각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4세기 초 고구려가 황해도 일대에 남평양을 건설한 것을 보면 이 시기 낙랑 일대는 이미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5) 신라: 「신라본기」를 보면 61년 마한 장군 맹소가 복암성을 들어 항복해왔다고 한다. 마한은 서라벌과 사신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영토를 들고 바칠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다. 63년 백제가 낭자곡성까지 이르러 회동을 요청했으나 탈해이사금은 이를 거절한다. 신라사에서 충청도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는 백제가 신라의 와산성, 구양성 등을 공격한다. 그리고 와산성을 두고 백제와 끊임없이 대립한다. 이후 77년에는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가야와 싸워 이긴다. 충청도와 경상도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해 I 기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며, 더 이상 강원도 일원에서 이전에 만났던

23 고구려인을 맥인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고구려 내부에 맥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상식적인 주변의 시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3세기 말 漢이 동원한 맥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집단인지, 맥국과 관련된 집단인지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

집단들이 신라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 (6) 고구려: 246년 10월, 밀우와 유유의 희생으로 고구려군은 위군을 몰아낼 수 있었고 위군은 낙랑에서 퇴각한다(魏軍擾亂, 不能陳, 遂自樂浪而退). 247년에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긴다. 이 평양이 낙랑이 위치하던 평양인지(張儼晶 2002), 아니면 집안 일대인지(권순홍 2019)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핵심은 조위의 세력이 낙랑 일대에서 물러간 뒤 고구려가 국가 재건에 나섰다라는 점이다. 책계왕 원년(286) 낙랑 이남의 대방국을 고구려가 공격하자 백제가 장인의 나라였던 대방국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고, 300년에는 낙랑·대방 2국이 신라로 귀부한다. 302년에는 현토군에서 잡아온 포로를 평양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평양 지역의 개발에 투입되었던 것 같다. 장수산성 주변 아양리 성현동 건물지의 붉은색기와층에서 나온 ‘永嘉 7년(313)’銘磚, 안악 지방의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다수의 고분들을 보면 이즈음 고구려가 황해도 일대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남평양을 축조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신광철 2011: 194-195).

3) Ⅲ기 : 4세기 이후

- (1) 말갈: 본고의 시간적 범위는 중도문화가 발생해서 소멸하는 시점(B.C.1C~A.D.4C), 그리고 강원도 일원에서 ‘삼국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중도문화가 쇠퇴하고 말갈의 성격이 바뀌는 획기이다. 즉, 상쟁·교류를 통해 역동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수백 년간 존속했던 강원도 諸세력들이 삼국의 진출과 맞물려 사라지고 ‘강원도 말갈’이라는 집단만 남게 되었다. 최근 말갈이 획기별로 성쇠하였고, 그 현상이 한반도 중부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중도문화, 또는 흔히 인식되는 ‘삼국의 범주 밖에 있는 半獨立的·非國家的 존재에 대한 汎稱 또는 卑稱’으로의 말갈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신광철 2018).

이는 『삼국사기』에 수백 년간 동일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나 실제 역시 수백 년간 변하지 않고 동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중도문화는 삼국의 강원도 진출이 본격화되는 4세기 후반 이전에 쇠퇴기를 겪고 소멸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도문화가 사라지고 신라의 강원도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도 문헌에는 여

표 3 각 시기별 말갈의 특징

| 구분 | 연대 | 주적 대국 | 출몰 지역 | | 전투 양상 | 병력 | | 비고 |
|-----|-------------------|--|--|--|-----------|----------|-----------|----------------------------|
| | | | | | | 편제 | 규모 | |
| 1기 | B.C.37 ~A.D.56 | 백제 | 경기도 영평과 연천, 파주, 여주 등 | (대)부현, 청목산(령) 마수산(성), 병산책, 고목성, 구천, 술천성 | 공성전 아전 | 보병 | 수백 ~3천 | 낙랑과 말갈의 공동작전 |
| 공백기 | 57~107 | 이후 백제와 말갈 교전 기사 확인 안 됨 백제와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면서 큰 피해를 입지만 지속적으로 백제 공격 | | | | | | |
| 2기 | 108~142 | 신라 | 남한강 중하류역 | 대령책, 장령(책) | 공성전 | ? | ? | 말갈 정벌 시도 |
| 공백기 | 143~202 | 이후 백제와 말갈 교전 기사 확인 안 됨 | | | | | | |
| 3기 | 203~258 | 백제 신라 | 경기도 연천과 여주 | 사도성+목책, 적현성, 술천, 우곡 | 공성전 아전 | 보병 勁騎 | ? | 말갈의 석문성 공격 초고왕 전사? |
| 공백기 | 259~386 | 북부 진씨의 등장과 백제의 말갈 정벌 기사 확인, 일진일퇴 후 고이왕 즉위 258년 말갈 추장 나갈이 고이왕에게 良馬 10필 헌납 후 양자 간 장기간의 화평 | | | | | | |
| 4기 | 387~395 | 백제 신라 | 한강 하류역 강원도 삼척 | 관미령, 적현성 실직지원 | 공성전 아전 | ? | ? |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궤를 같이 함 |
| 공백기 | 395~467 | 강원도 말갈의 등장,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말갈이 공동작전 시행 | | | | | | |
| 5기 | 468~507 그 이후 | 백제 신라 | 서울과 경기도 광주 및 연천, 개성, 남한강 상류역과 경북 | 실직성, 호명성, 미질부, 니 하, 한(산)성, 마수책, 고목성, 장령책 | 공성전 아전 | ? | ? | 고구려와 본격 적으로 행보를 같이 함 |

전혀 말갈이 등장해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등 왕성한 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고구려는 추모왕 원년(B.C.37.) 졸본 인근의 말갈 부락을 공격해 물리쳤다는 기록 이후로 무려 50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말갈과 단 1번도 접촉하지 않았다. 장수왕 56년(468) 말갈군 1만을 거느린 고구려가 신라의 실직성을 攻陷시킨 사건이 고구려와 말갈의 최초 접촉 기사이며, 그때부터 말갈은 고구려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침병 역할을 수행한다. 문자명왕 16년(507) 한성 공격, 영양왕 9년(598) 요서 공격, 영양왕 23년(612) 수양제의 조서 내용, 보장왕 4년(645) 안시성과 주필산 전투, 보장왕 13년(654) 거란 공격, 보장왕 14년(655) 신라 북변의 33개성 함락, 보장왕 20년(661) 북한산성 공격 등 말갈은 백제, 신라와 달리 고구려와 단 한

번도 적대하지 않은 채 200여 년을 함께 한다. 삼국 초기 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끊임없이 괴롭힌 것을 떠올렸을 때 4세기 이후 등장하는 강원도 말갈이 고구려와 어떤 관계였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 삼국: 문헌상 고구려, 백제, 신라(서라벌) 3국은 일찍부터 강원도 諸세력과 관계를 맺으며 상쟁했다. 그 결과 큰 나라 사이에 끼여 있던 강원도 일대의 諸세력들은 점점 세가 약화되어 3국으로 흡어졌는데, 고고자료상 강원도 일대에 삼국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은 3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먼저 중도문화의 확산과 맞물려 영서지역으로 진출한 백제의 흔적이 화천과 홍천, 원주 그리고 영동지역 일부에서 보인다. 취락과 고분군에서 백제토기를 비롯한 각종 철기, 중국산 제품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백제가 영서지역의 몇몇 거점에 거점을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흔적은 백제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서 4세기 후반 경부터 부형철축을 비롯한 소량의 고구려 토기, 소수의 고구려 고분들이 확인된다. 다만, 몇몇 거점에 집중적으로 흔적을 남긴 백제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흔적을 남기고 있어 양자 간 강원도 진출 및 경영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마지막으로 신라는 4세기 후반경 강릉을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한 뒤 주변 지역으로 점차 영역화 범위를 넓혀나가는 현상이 확인된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달리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거점들을 구축하는 한편, 내륙지역에 ‘州’ 단위의 광역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차근 차근 영역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선덕여왕 6년(637) 우두주 설치와 함께 7세기 전반경 영서지역에 대한 신라의 영역화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신광철 2015: 79-96).

24 일반적으로 책성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방식을 두고, 고구려가 일원적이고 보편적인 지방정치를 추구하면 서도 지역 특수성과 주민 성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인식한다(김현숙 2005: 379-394). 한편, 국가 내 지배기반이 인민(rule over people)인지, 영토(rule over territory)인지 나뉜다고 했을 때 고구려의 말갈에 대한 지배는 영토가 아닌 인민에 대한 지배, 즉 ‘레그눔’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신광철 2015: 97-98). 하지만 이와 달리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중앙집권화를 꾀하면서 일원론적인 지배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성 지역의 말갈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고구려에 동화되지 못 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일원화를 지향했던 고구려 지방통치체제의 한계라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이동훈 2019a: 136-138). 하지만 600년 이상 되는 긴 시간동안 고구려와 동화되지 못할 정도로 책성 또는 강원도 일대의 말갈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動因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고구려 지방통치체제의 한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III

강원도 諸세력의 대외교류

1 강원도 諸세력의 성장 動因

앞서 문헌을 통해 강원도 諸세력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 강원도 일원에 삼국이 본격적으로 진출²⁵하기 이전부터 諸세력들이 상쟁하며 자체 역량을 키워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외부의 중앙 권력화 된 힘(ex) 낙랑 등의 중국군현)이 강원도에 직접 移入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동기~초기철기시대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내재적 잠재력을 키워온 재지계 집단들(ex) 국가 경영의 경험이 있는 예 등)이 주변 사회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발전의 원동력을 생산하고 이를 적용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문헌에서 살펴본 강원도 諸세력들의 발자취를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우선 초기국가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예국과 맥국, 혹은 중국 사가들이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다고 기록한 불내예국 등의 흔적은 확인이 가능할까? 그들과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집단들과의 차이는 구분이 가능할까? 국가 단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彼我를 구분하며, 어떤 기준을 정해야 적절한 것일까?

일찍이 최몽룡은 국가형성 과정에서 ‘무역’의 기능을 강조하여 이를 토대로 위만조선의 국가 형성을 설명한 바 있다(1985). 강봉원은 국가 단계 사회를 고고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념비·종교적인 건축물, 무덤의 외형적인 규모와 부장품의 양과 질, 유적지의 기능적 다양화와 유적간 상호의존 관계, 취락 구조 형태 등 4가지 범주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998: 22-31), 신라의 국가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전쟁’을(2006), 부차적 동인으로 ‘수리’를 꼽기도 하였다(2009).

한편, 김종일은 유럽의 여러 고고학적인 사례와 이론들을 제시하며 국가 형성에 있어 다

25 문헌상으로는 이미 기원전후~1세기부터 삼국이 강원도 일원의 諸세력과 접촉하며 상쟁하는 기록들이 등장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그로부터 250여년 뒤에야 그 흔적들이 확인된다. 이처럼 문헌과 고고자료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고대국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집권화 되어 가고 지방통치체제 역시 점점 정밀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 지배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영됐는지 여부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삼국의 국가체계가 다르고 지배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각국의 고고학적 흔적 역시 범위나 집중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1기에서 확인되는 諸세력의 상황에 대해서 ‘고고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혹은 『삼국사기』 기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기년 조정, 후대 사실의 부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헤테라키(heterarchy)적 국가 개념을 활용하여 남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가 ‘집단 중시형’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그간 한국 고고학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군소 정치체들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014: 123-12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국가 단계를 알려주는 여러 ‘현상(결과)’들은 시기·지역·사회별로 제각각이어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렵다.²⁶ 하지만 국가 단계에 이르는 ‘과정(동인)’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이 바로 ‘전쟁(군사)’과 ‘교역(경제)’이다.²⁷

먼저 ‘전쟁(군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Turney-High는 ‘군사지평선(Military Horizon)’이라는 개념을 원용해 전사 집단과 군대의 차이를 구분하고,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집단이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1991: 21-38). Azar Gat 역시 전쟁과 문명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더 강한 폭력이 약한 폭력을 제압하는 과정이 국가와 문명 발생의 기반이 되었다고 이해하였다(2006). 즉, 국가 성립에 있어 전쟁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인데, 고고학적으로 전쟁의 흔적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마을이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壕/濠)이나 성벽, 逆茂木이나 목책과 같은 방어시설, 옹성과 같은 방어를 위한 출입 구조물, 그리고 그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의 흔적, 봉수대, 망루나 고지성 취락, 殺傷을 위한 전용 도구, 즉 무기의 존재, 무기에 의해 손상된 인골의 흔적이나 그러한 인골들이 대량 매장된 유적, 무기가 부장된 무덤, 무력과 무기를 숭배하는 사상이나 제사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도구, 전쟁 혹은 전사를 묘사한 조형물이나 각종 미술작품 등을 꼽을 수 있다(金關 恕·春成秀爾 2005: 8-9).

그러나 현재까지 강원도 諸세력간 상쟁을 증명해줄만한 직접적인 고고자료는 많지 않다. 각지에서 출토되는 각종 무기류와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 정도가 확인되는데, 후자의 경우에

26 한국 고고학계에서 성곽, 대형 분묘, 토기 양식의 형성 이 3가지는 국가 성립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박순발 2007). 하지만 이는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한 집단(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고대국가에 이르지 못한 초기국가 단계, 혹은 그 과정상에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7 이는 족장사회(chiefdom)에도 해당한다. ‘군사적 힘’과 ‘국제 교역’, ‘집약적인 농경’ 등은 족장사회 단계부터 이후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을 생성·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ierre Clastres(변지현 등 譯) 2002; Timothy K. Earle(김경택 譯) 2008). 한편 이러한 시각은 유목국가의 탄생·발전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Thomas J. Barfield(윤영인 譯) 2009), 중국 최후의 왕조인 청나라의 기원과 여진족에 대한 중국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劉小萌(이훈 등 譯) 2013: 138-157)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도 전쟁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시각(宋滿榮 2000)과 濊 특유의 주거문화(질병이 나거나 사망하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집을 지음)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시각(이흥종 1998: 38-40)이 공존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견해만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 현 단계에서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교역(경제)’이 아닐까 싶다.

정치체의 여러 역할 중 하나는 안정적인 원거리 교역망을 구축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화를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발전·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내의富力를 재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소수의 특권층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계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최고지배자를 위시한 집단이 그 부를 독점하느냐, 아니면 다소 수평적인 여러 집단이 그 부를 나누되 이를 중재하는 調停者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시 불내예왕이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居處雜在民間)는 기록을 보면 부여·고구려와 같은 위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 경영의 경험도 있고 관직²⁸ 제도도 유지하고 있었기에 최고지배자를 위시한 소수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보다는 예에 속한 수평적인 여러 집단이 왕의 중재 아래 행정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다.

낙랑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왕조의 물자를 비롯해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동북지역(읍루?) 등지에서 유입되는 다종다양한 문물은 강원도 諸세력의 경제 구조를 유지·발전시켜 주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역은 각 세력별로 해당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주변 지역의 산물을 특정 세력(국가)이 한데 모아 거래하기도 했을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군현을 통한 중국 왕조와의 교역은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²⁹

더 나아가 이런 교역의 대상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주민 이동 및 기술 전수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예에서 생산된다는 낙랑단궁(樂浪檀弓, 出其地)인데, 강원도 諸세력의 생업과 관련해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수공업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소수맥이 만든 맥궁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예에서 생산되는 활은 낙랑단궁이 아니라 濊弓 등으로 불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에서 생

28 불내예후가 두었다는 관직 중 功曹(업무 총괄)와 主簿(문서와 기록 관장)는 모두 漢代 행정 관료의 명칭이다. 중국 관료의 기능과 똑같이 적용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최고지배층이 부를 독점했다기 보다는 어떤 규칙과 기준에 의거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9 최근 고구려와 북조의 조공관계 성격에 대한 연구(이동훈 2019b)를 참고하면, 당시 강원도 諸세력을 둘러싼 중국 왕조의 정책 변화, 교역의 성격 또한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경제적인 성격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산한 활을 ‘낙랑단궁’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낙랑 축을 위한 별도의 특수한 생산품인지, 아니면 낙랑이라는 브랜드-네임으로 거래하되 생산은 예에서 담당했던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³⁰ 어떤 상황인지를 떠나서 이 기사를 통해 예의 수공업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했으며, 이러한 기술력이 예의 내재적 발전 잠재력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³¹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예의 경제 분야를 직접적으로 증명할만한 자료 역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되는 주변 국가 및 정치체에서 생산되어 유입된 유물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물자의 이동은 필수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동반하였기에 강원도 외부에서 들어온 물자가 확인된다는 것은 곧 강원도 諸세력과 주변 사회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흔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유물의 분포 상황과 수량,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하면 단편적이거나 예의 ‘경제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유물의 밀집도를 통해 낮은 해상도지만 당시 강원도 諸세력의 중심지 또는 위계를 설정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2 대외교류의 고고학적 흔적³²

1) 낙랑

낙랑토기는 연구자들마다 분류안이 다르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태토에 따라 니질계, 석영혼입계, 활석혼입계 토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태토의 종류에 따라 기종 구성과 제작 기술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중 니질계 토기는 비짐을 거의 섞지 않은 정성된 점토를 표지로 하며 색조는 회색이 많고 소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석영혼입계 토기는 석영으로

30 『漢語大詞典』에서는 낙랑단궁을 ‘檀木(박달나무 또는 단향목)으로 만든 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를 短弓 형태로 추측하고 있다. 『四庫全書』에서도 낙랑단궁의 용례는 예와 관련된 사례 8건만 확인될 뿐 이와 관련된 다른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31 수공업의 발전은 농업 생산의 발전과 정기적인 잉여생산품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즉, 예에 대한 구체적인 생업경제·풍습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했을 때 강원도 諸세력 중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었다고 생각되기에 수공업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한다. 다만, 무기 가공업의 발전은 집단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지배층의 권력 쟁취·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타 수공업 분야보다 더 발전한다는 점(劉小萌(이훈 등 譯) 2013: 152-153) 또한 감안할 필요는 있다.

32 『한국 출토 외래유물』, 『한국 출토 외래유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a; 2011b)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낙랑 관련 자료는 홍주희(2014)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2011년 이후의 자료들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인해 회백색을 띠는 것이 많으며, 中·大形의 저장용 甕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활석혼입계 토기는 대부분이 활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만지면 미끄러운 특징이 있으며, 낙랑고분의 대표적인 부장토기인 花盆形土器가 여기에 속한다(鄭仁盛 2004: 2).

일반적으로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는 무문토기를 뒤희은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계통으로 이해하고 있기에(최성락 2002: 31-40) 낙랑(계)토기의 등장은 기존 토기 문화와 확연히 다른 문화 양상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낙랑(계)토기는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지역이 제한적이며, 범위를 강원도 일원으로 좁히면 북한강 중류역과 영동지역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그림 4~5).

강원도 일원에서는 원저단경호, 평저호, 분형토기, 완형토기, 시루 등 니질계 토기만 출토되며, 이들과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낙랑(계)토기가 강원도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영동지역의 경우 제작기법의 전래보다는 철기와 토기제작이 가능한 주민의 이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영서지역의 북한강유역은 소비취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외래계 문물의 존재나 집중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낙랑(계)토기는 상위 취락 혹은 위계가 높은 단위주거를 중심으로 사용된 소비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홍주희 2014: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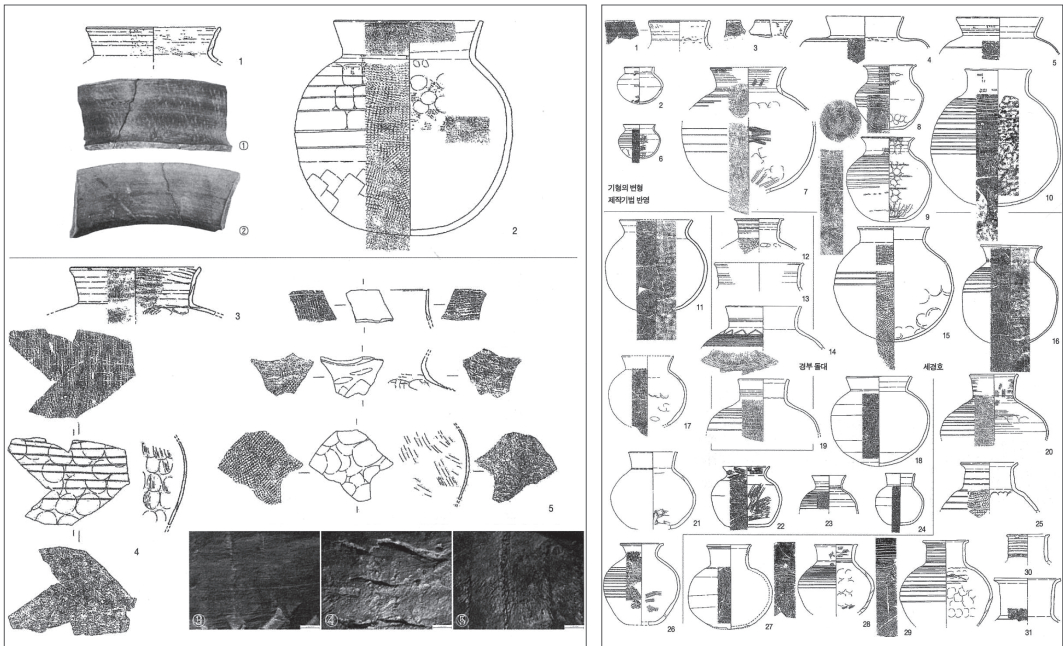


그림 4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원저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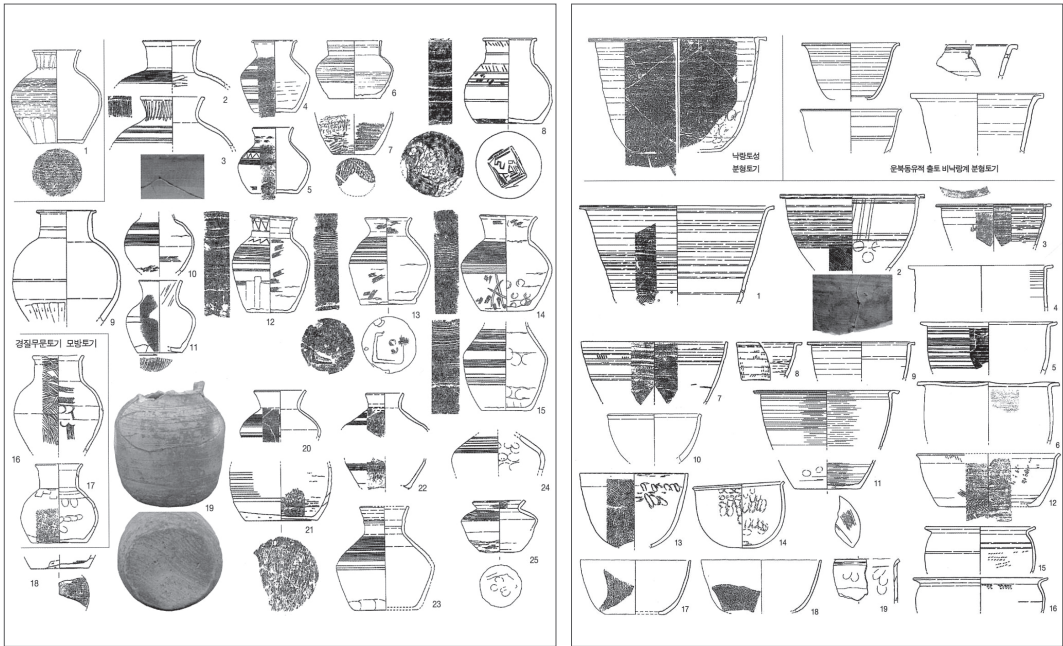


그림 5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左: 평저호/분형토기)³³

그밖에 춘천 우두동유적 I 에서는 낙랑기와 제작기법이 적용된 원통형의 토관이 출토되었는데, 토관 내외면에 보이는 중·횡방향의 타날흔과 외측 단부 부근의 횡방향 물손질흔의 측면에서 낙랑토성 기와의 제작방식과 매우 흡사한 점이 확인되었다.³⁴ 조사지는 일부 확인되는 絲切痕 또한 한식계토기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를 한사군을 통해 전래된 것으로 이해하고, 해당 토관이 출토된 유구가 유적 내에서 늦은 시기로 편년한 바 있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447). 홍천 하화계리유적에서는 포목흔과 측면 조정방법 등 한성백제 기와와 동일한 기법이 적용된 기와편이 수습되었고, 춘천 울문리유적 I 에서는 한성백제 기와와 태토가 다른 기와가 출토되었다. 적용된 제작기법은 다르지만 모두 경질무문토기를 사용하던 재지계 집단이 한성백제 및 낙랑의 기술을 습득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05: 129;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75).

철기의 경우, 시기가 다소 이른 철원 와수리유적에서는 철경동축이 출토되었고(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113-114), 홍천과 춘천, 강릉 등에서 환두도자가 출토된 유적들이 확인

33 해당 도면들은 홍주희(2014)를 참고하였다(축적부동).

34 낙랑기와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정인성(2002)의 논고에 잘 정리되어 있다.

되었다(심재연 2010). 환두도자는 초기 백제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시 낙랑과 대립하고 있던 백제의 상황과 맞물린다. 3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이유 역시 백제의 영서지역 진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노태호 2014: 112-114). 또한, 춘천 우두동유적 100호 주거지에서는 鐵鍬(소형술) 1점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1세기로 편년되는 운성리 가말피 2호 무덤 출토품과 동일하다.

한편, 동해 송정동유적Ⅲ I-7호 주거지와 강릉 교항리 A-8호 주거지, 철원 와수리유적, 춘천 우두동유적, 강릉 초당동유적Ⅵ 17호 주거지 등에서 이조선돌대주조철부가 출토되었는데, 순서대로 연대를 살펴보면 1세기 말, 2세기 중엽, 2세기 후엽 전반, 2세기 후엽 전반, 3세기 중엽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박경신이 분류한 Ⅱ·Ⅲ류에 해당하며 중국 동북지역과 구별되는 한반도·일본열도만의 특징적인 형식이라는 점이 주목된다(박경신 2016; (재)한국문화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180).

마지막으로 강릉 초당동 강릉고등학교 화장실증축부지 내 유적에서는 오수전 2점이 출토되었다(그림 6). 해당 오수전은 낙양소구한묘의 5개 유형 중 3~5형과 비슷하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한 초기에서 중기에 해당한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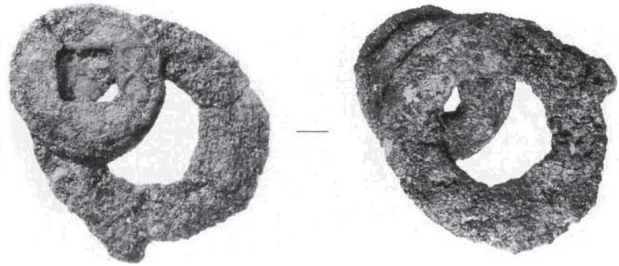


그림 6 강릉 초당동 출토 오수전

수 있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05a: 101-104). 이는 영동지방과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낙랑 등을 통한 연계무역의 결과인지, 아니면 중국 내지와의 직접 교역의 결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동북지역)³⁵

춘천 우두동 남단의 룯데인벤스 우두파크 유적에서 재래의 경질무문토기와는 구연부의

35 일공시루와 단공시루의 경우, 동북지역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야요이문화 또는 고분시대 일본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10b: 372-375).

시문방법이 다른 토기편 2점이 수습되었고,³⁶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1호 주거지에서 구연단에 각목이 시문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원형점열문이 시문된 토기가 1점 출토되었다. 심재연은 이들 유적이 회령 오동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보고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 양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2009a: 62-65). 또한 속초 청호동유적에서 연해주 폴체문화의 특징인 고지성 집락과 유사한 유적이 확인되었고, 주거지 내에서 블로치카유적에서 출토된 외반구연옹과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017: 93-95; 홍형우 2017: 12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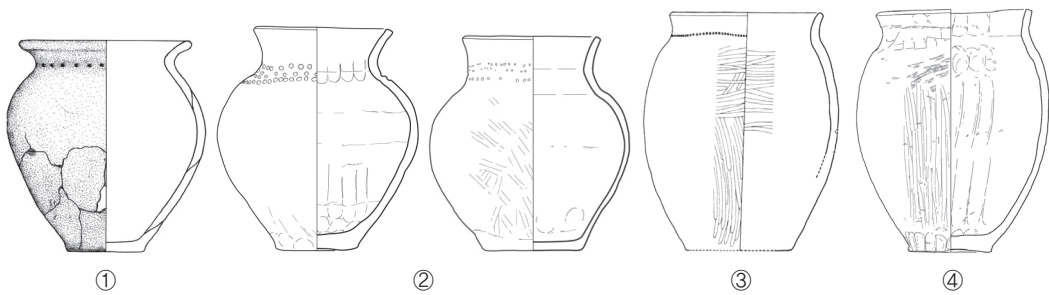


그림 7 블로치카유적 출토 외반구연옹(①)과 강원도 일원 출토 원형점열문 시문토기(②~④) (축척 부동)

하지만 블로치카유적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그림 7-①)는 높이 10.5cm, 동최대경 9.8cm의 호형토기로서 경부에 평행하게 원형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에 비해 속초 청호동유적 1호·1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기 옹(그림 7-②)은 기종과 크기, 형태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원형 점열문이 3~4열씩 횡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조사자는 오히려 이를 강릉 초당동 249-11번지 2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7-③), 동해 망상동유적Ⅲ 92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7-④)과 비교하면서 일정 시기 토기제작 기술이 인근 지역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8: 517). 강릉과 동해에서 출토된 점열문이 시문된 토기 역시 경질무문토기 옹으로서 블로치카유적과 마찬가지로 1열의 원형 점열문만 시문되어 있지만, 평행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나타나 분명

36 춘천 우두동 롯데 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구순각목이 시문된 구연부편을 심재연(2009a)은 原말갈계토기라 하여 북방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자는 실측도를 살펴봤을 때 해당 토기가 상당히 대형 품으로 북방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크기의 제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성 동외동유적이나 사천 늑도유적에서 확인되는 야요이토기 대응의 구연부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30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차이가 있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05c: 101-102; 예맥문화재연구원 2019: 516). 하지만 경부와 동체부 접합부에 원형 점열문을 횡으로 시문한다는 기술적 속성을 감안한다면 양 문화권간 문화·기술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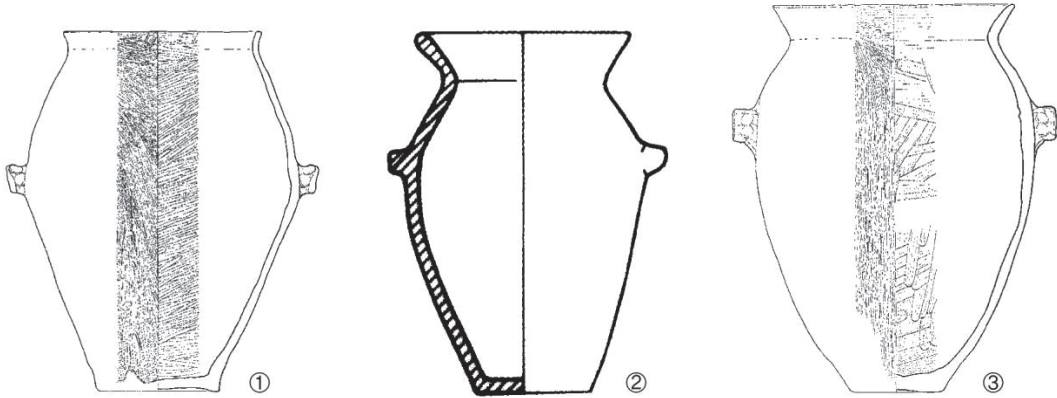


그림 8 율문리유적 I 출토 외반구연호(①,③)와 단결 하층 II기층 출토 외반구연호(②) (축척 부동)

한편 춘천 율문리유적 I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을 받은 파수부외반구연호가 출토되었다(그림 8). 이는 단결 하층 II기층에서 출토된 토기와 매우 흡사한 것((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65-66)으로서 앞서 말한 원형점열문 시문토기와 달리 현지의 제작기술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춘천 우두동유적 I 22호 주거지와 춘천 우두동 룯데인벤스 우두파크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자는 이중구연 외면에 장타원형의 각목문이 새겨져 있으며, 후자는 구순에 연속적인 사선을 찍거나 경부에 돌대를 돌린 후 각목을 시문하였다. 조사단은 이를 연해주 리도프카(Lidoovka) 문화에 해당하는 볼로치카유적 출토품과 연계해서 이해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07b: 175).

37 2018년 12월, 한국상고사학회 제49회 정기학술대회 참여시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4~5세기 대 재지계 토기 기형에 풀체문화의 시문기법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교시가 있었다. 볼로치카유적에서 확인된 풀체문화의 편년이 기원전후에서 A.D.2세기경임을 감안한다면(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03: 290-291) 이른 시기부터 강원도 일대에 토기제작기법 일부가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풀체문화와 비슷한 시기, 혹은 비슷한 토기 등이 확인되지 않기에 본고에서도 가능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조사된 흥천 송정리 80-28번지 2호 주거지에서 이처럼 돌대가 달린 뚜껑편이 확인되었으며(한국문화재재단 2018: 54-55), 춘천 중도유적 C구역의 토광묘 내에서는 靺鞨罐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토기가 원형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65). 심재연은 이를 원말갈토기로 이해하고 말갈관이 등장하는 6세기보다 앞선 시기의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2018).³⁸ 이러한 동북지역의 토기 전통이 4~5세기 무렵에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고구려의 동북지역(책성) 경영과 맞물려 그 지역의 문화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강원도 일대까지 유입된 결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춘천 신매리 54-4번지 유적 및 흥천 하화계리유적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내만구연토기는 연해주 지역과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춘천 천진리 121-16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대부분(89%)이 내만구연토기인 점, 인접한 타 유적에 비해 출토 비율이 압도적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철원 와수리유적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형태뿐만 아니라 제작기법 상에서도 동북지역 토기제작 전통에 근접하며 ‘중도식 토기’보다도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한림대학교박물관 2008: 195-199).

또한 동해 송정동유적에서 출토된 파수호는 홑파수 형태인데 교항리 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유사하다. 이는 두만강유역 청동기후기로 편년되는 유정동 유형에서 출토 사례가 많고 초기철기시대 토기로는 호곡 6기의 출토품이 있다(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2: 392). 이 역시 동북지역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춘천 우두동유적 8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창의 경우, 중부지방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인데 이와 유사한 예가 크로우노프카유적에서만 1점이 보고되었다.

3) 일본 열도(야요이문화 · 고분문화)

춘천 우두동유적에서는 다소 규모가 큰 환두도의 병부편이 1점 확인되었는데, 이는 북부 구주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형식과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김해 양동리 200호 묘와 양평 양수리 5호 주거지에서 각각 1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우두동 출토품은 양수리 출토품과 유사한 크기이다.

38 심재연은 흥천 송정리에서 출토된 돌대가 달린 토기편을 말갈토기 동체부편으로 이해하였지만, 보고서를 확인하면 이는 뚜껑편이다. 일반적인 말갈토기의 형태를 감안했을 때 해당 토기를 중도유적에서 나온 말갈토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릉 초당동 강원도교육연수원 주차장 부지 1호 소형유구에서는 하지키[土師器] 1점(평저 장경호)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이를 영동지역 내 다른 유적(강릉 안인리·교항리·병산동, 양양 가평리)에서 출토된 장경호와 비교하고 있으나((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61-64) 형태와 제작기법상 하지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b: 705). 조사단은 해당 유적을 3세기 후반~삼국시대로 편년하고 있는만큼 하지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세기 중엽 강릉 강문동 IV-1호 주거지에서 하지기계 직구호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 영동지역과 일본열도, 더 나아가 영남지역와의 교류 역시 단발성으로 그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³⁹

4) 한성백제⁴⁰

한성백제는 삼국 중 강원도 일대에 고고학적 흔적을 가장 먼저 남긴 국가 단계의 정치체이다.

춘천 울문리 335-4번지의 5호 주거지에서는 거치문이 압날된 타날문토기와 U자형 삼날이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승문타날 심발과 장란형토기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홍천 하화계 리유적의 1호 주거지와 6호 주거지에서는 다수의 한성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대경호, 장란형토기편, 심발편, 뚜껑, 양이부호 파수편, U자형 삼날편, 주조철부, 직구대호, 대호, 타날문토기 시루, 살포, 철검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양구 고대리유적 3호 주거지에서는 화천 원천리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髮飾(머리장식)이, 8호 주거지에서는 화천 원천리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교구가 출토되었다.

강릉 강문동취락에서는 심발형토기 및 장란형토기의 조형으로 추정되는 장동호, 도인이 적혀 있는 대형 옹과 직구호, 컵형토기의 파수가 출토되었으며, 인접 지역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 경부암문 타날문토기, 저부돌기형 대옹 등을 고려했을 때 중서부 지역의 한성1기와 평행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재)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157-181). 그밖에 망상동유적II에서는 백제 타날문시루의 잔편으로 추정되는 토기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 밖에 춘천 중도 적석총, 춘천 중도동유적, 춘천 거두리유적, 홍천 성산리유적, 횡성 읍하리

39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고분유물편).

40 앞서 본고의 시간적 범위를 4세기 말 삼국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백제의 경우 이른 시기 영서지역으로 진출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유적 등에서 백제 토기가 소량 확인되었다.

5) 호서·호남 및 영남지역

동해 송정동유적에서 꺾형토기 1점, 강문동취락 3~4호 주거지에서 파수부만 출토되었는데 강원도 일대에서는 출토 사례가 적다. 이는 백제와 신라, 가야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는 천안과 청주 일대(백제), 낙동강 중하류역의 서쪽 지역(신라·가야)에서 확인된다(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2: 392-393). 강릉 안인리유적에서는 낙랑(계)토기도 출토되었지만 경부돌대토기(회흑색 장경호)도 출토되었다. 이는 동해 송정동유적, 강릉 안인리유적, 정선 예미리유적을 연결하는 선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남한강 상류지역에서도 출토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동지역과 호서지역 간의 교류 루트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심재연 2007: 47). 한편 연통형토기 또한 영동지역에서는 안인리유적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호서·호남지역-남한강 상류-영동지역으로의 루트를 고려하게끔 한다(심재연 2013: 112-117).

더불어 중부지역의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생산체계 및 유통양상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는데 동해 망상동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자연과학적 분석한 결과, 재지 생산물과 외래 생산물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태토에서도 덜 숙련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그렇지 않은 토기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해 망상동유적의 주민들이 외부(영남)와의 활발한 기술적 교류 속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조대연 2010: 420-430). 더불어 동해 송정동유적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저구형토기는 경주 황성동유적, 김해 퇴래리유적, 창원 삼동동유적, 경주 사라리 130호분, 울산 하대유적, 포항 옥성리유적 등에서 옹관 또는 목곽묘 봉토내 부장유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또한 영남지역과의 토기 문화 교류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118).

또한 동해 망상동·송정동유적에서는 옥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특히 송정동유적 1호 주거지에서는 곡옥, 마노, 수정, 호박, 유리, 금박유기, 경옥제 등 190점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옥 장신구가 확인되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진·변한 지역에서 다양한 구슬 장신구류가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유물들은 영남지역과의 교류 관계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박지희 2016: 71).

이상 강원도 諸세력의 대외교류를 나타내주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9·표 4).



그림 9 강원도 각 유적의 성격과 위치

표 4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된 대외교류의 흔적

| 연번 | 위치 | | | 낙랑 | | | 단결-크로우 노프카문화 | | 일본 열도 | 한성 백제 | 호서·호남 | 영남 지역 |
|----|----|-----------------------------|-----------------|----|----|----|--------------|----|-------|-------|-------|-------|
| | 도시 | 유적 | 중심시기 | 토기 | 기와 | 철기 | 토기 | 철기 | | | | |
| 1 | 철원 | 철원 와수리유적 | B,C,2C 후반~1C 중반 | | | ○ | | | | | | |
| 2 | 화천 | 거리리유적(3구간) | 2C 중후반 | ○ | | | | | | | | |
| 3 | 양구 | 고대리유적 | 2~3C | ○ | | | | | | ○ | | |
| 4 | 춘천 | 근화동유적(A·B구간) | 2C 중후반~3C 중반 | ○ | | | | | | | | |
| 5 | | 우두동유적 I | 3~4C | ○ | ○ | ○ | ○ | ○ | ○ | | | |
| 6 | | 우두동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 내 유적 | 2~3C | ○ | | ○ | ○ | | | | | |
| 7 | | 우두동유적 | 1~2C(혹은 3C까지) | ○ | | ○ | | ○ | ○ | | | |
| 8 | | 신매리 지식모 주거지 | B,C,2C~기원전후 | ○ | | | | | | | | |
| 9 | | 신매리 54-4 /10·47-1번지 유적 | 1~2C 전후 | ○ | | ○ | ○ | | | | | |
| 10 | | 울문리유적 I (75-2번지) | 2C 전반 | ○ | ○ | | ○ | | | | | |
| 11 | | 울문리 생물산업단지 유적 (335-4번지) | 3C | ○ | | | | | | ○ | | |
| 12 | | 천전리 121-16번지 | B,C,3C~기원전후 | | | ○ | ○ | | | | | |

| 연번 | 위치 | | | 낙랑 | | |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 | 일본 열도 | 한성 백제 | 호서·호남 | 영남 지역 |
|----|--------------------------|-----------------------------|--------------|----|----|----|-------------|----|-------|-------|-------|-------|
| | 도시 | 유적 | 중심시기 | 토기 | 기와 | 철기 | 토기 | 철기 | | | | |
| 13 | | 철정리유적Ⅱ | 2~3C | ○ | | ○ | | | | | | |
| 14 | 홍천 | 하화계리유적 | 2C 후반~3C 중반 | | | | ○ | | | ○ | | |
| 15 | | 송정리 80-28번지 | 3C 중·후반 | | | | ○ | | | | | |
| 16 | 속초 | 정호동유적 | 4C 전반~후반 | | | | ○ | | | | | |
| 17 | 양양 | 가평리유적 | B.C.2C~2C | ○ | | | | | | | | |
| 18 | 강릉 | 교항리 주거지 | B.C.1C~2C | ○ | | ○ | | | | | | |
| 19 | | 초당동유적Ⅳ | 2~4C 초 | ○ | | | | | | | | |
| 20 | | 초당동(강릉고 화장실부지) | 1~2C | | | ○ | | | | | | |
| 21 | | 안인리유적 | 2~5C | ○ | | | | | | | | ○ |
| 22 | | 강문동취락/강문동Ⅳ | 3C 중반~4C 중반 | | | | | | ○ | ○ | ○ | |
| 23 | | 초당동유적Ⅰ(249-11번지) | 기원전후~3C | | | | | ○ | | | | |
| 24 | 초당동 유적 (강원도교육연수원 주차장) | 3C~삼국시대 | | | | | | ○ | | | | |
| 25 | 동해 | 송정동유적(중심도로 건설 지역/Ⅰ/Ⅲ/취락Ⅱ,Ⅲ) | 2C 전반~4C 전반 | ○ | | ○ | | | | | ○ | ○ |
| 26 | | 망상동유적Ⅱ·Ⅲ | 4C 중후반~5C 전반 | | | | ○ | | | ○ | ○ | ○ |

IV

결론: 강원도 중심의 史觀

영서지역 북한강유역과 영동지역 각지에서 확인되는 낙랑의 영향은 이미 여러 번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낙랑에서 직접 이입된 문화요소(1차 전파)와 재지화 된 낙랑계 문화가 뒤섞여 있고, 그 문화들이 여러 갈래로 확대·재생산(2차 전파)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역 간 위계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춘천 우두동유적Ⅰ의 경우는 낙랑으로부터 전래된 鑿井 기술로 만들어진 우물, 대규모 제철공방의 존재, 낙랑과 동북 지역 문화, 야요이문화 등 다수의 원격지와 관련된 유물을 통해 해당 유적이 당시 국제교역의 결절지(武末純－2010)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과 같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 직접적인 문화 요소는 보이지 않더라도 동북지역 토기제작 전통의 영향을 받은 재지계 토기들이 곳곳에서 출토되는 것을 보면 강원도 諸세력과 동북지역과의 대외교류는 상당히 점진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구려의 책성 일대 지배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수백 년간 책성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일대를 경영한 고구려의 경험은 그

지역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지 않은 강원도 일원과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수백 년간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은 4세기 말 이후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강원도 일대로 진출했을 때에 고구려의 안정적인 통치력으로 직결되었다.

강원도 諸세력이 서북쪽의 낙랑, 동북쪽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밀접한 상관성 속에서 내재적 발전 과정을 거쳤지만, 그 외 주변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어갔다. 서울-경기 지역을 장악하고 점차 영역을 확장해가는 한성백제의 공권력이 영서지역 일부(화천/원주)에 집중적으로 투영되는 동안 춘천, 홍천, 횡성, 영월, 더 나아가 영동지역의 강릉, 동해에도 한성백제의 문화요소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백제 주도의 진출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재지계 세력이 주체적으로 한성백제와 교류한 흔적으로 봐야 적절할 것이다. 한성백제는 ‘재지계 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몇몇 특정 지역에 전략적 거점을 구축한 뒤, 점차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혀 본격적인 영역 확장을 시도’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그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高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광철 2015: 81-82).⁴¹

한편, 영남지역처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 열도와와의 교류 흔적으로 볼만한 요소들이 일부 확인된 점, 호서·호남지역 또는 영남지역과의 교류를 알려줄만한 흔적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라가 진출해 거점으로 삼은 강릉의 상황을 보면 영서지역의 춘천과 비슷한 정도로 당대 국제교류의 중심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과 동북지역 문화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물론 춘천과 달리 한성백제 및 호서·호남지역의 문화요소까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동해 송정동·마상동유적은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취락유적(심재연 2012)으로 태백산맥 너머 남한강 상류역을 중간 기점으로 호서·호남지역(경부돌대토기)과, 남쪽으로 영남지역과 교류(지구형토기)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은 당시 영서·영동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강원도 諸세력이 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백 년간 운영될 수 있는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유적들에서는 단야공방지 및 폐기장이 확인되어 송풍관편만 확인된 강릉 지역 유적과는 차별성이 있다. 특히 동해 송정동유적에서 확인

41 한성백제가 횡혈식석실분이 원삼국시대 목관(곽)묘권, 주구토광묘권, 분구묘권은 모두 아우르지만 강원도 일원의 무기단식 적석총(층석식적석묘)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백제의 영서 지역 진출이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권오영 2009). 하지만 국제교류의 결절지로까지 평가받는 춘천 일대에 한성백제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한성백제 스스로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춘천 등지에 있던 재지계집단의 자체 역량이 한성백제의 진출을 저지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된 단야공방지에서는 정련단야작업과 단련단야작업이 이루어져 특정 시기에 단야 장인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며, 5세기 전엽 송정동유적의 동부 지역은 철기 제작의 중심지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재)에맥문화재단연구원 2010a: 186-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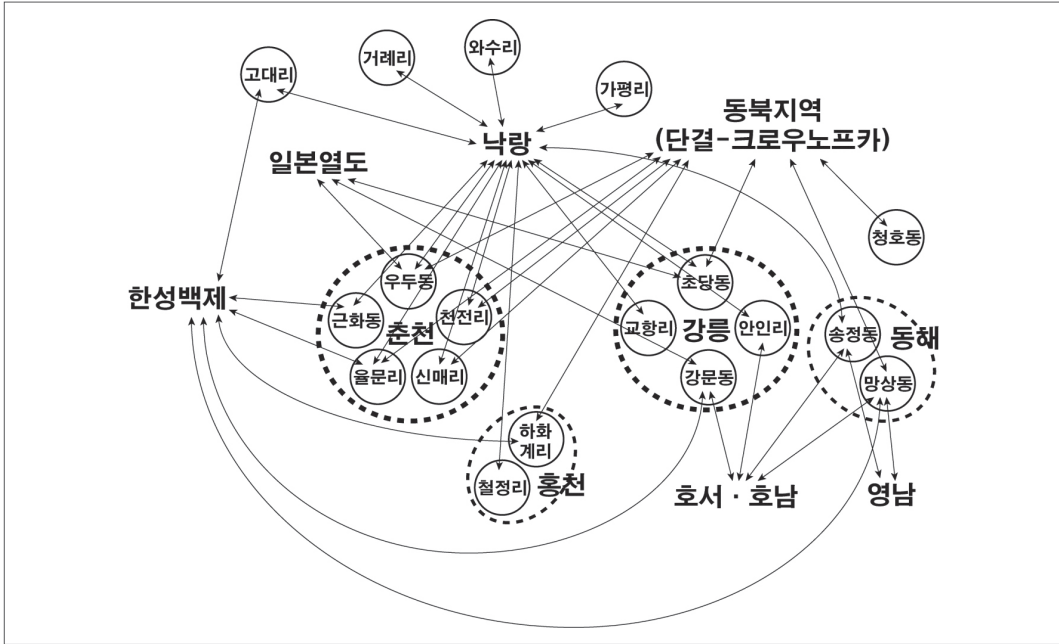


그림 10 강원도 諸세력과 주변 문화권과의 교류 관계

이상 강원도 諸세력과 주변 지역 간의 교류 양상을 통해 재지계 집단의 자체 역량을 조금이나마 파악해 보았다. 비록 일부 지역만 살펴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각 지역이 주변 문화권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면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음을 유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대외교류의 성과는 곧 강원도 諸세력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을 것이며 춘천과 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지역 사회를 선도할만한 중심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삼국과 같은 국가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유지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그림 10).⁴²

42 대외교류 양상만 놓고 봤을 때 춘천이 강릉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춘천에 맥국이 존재했다면 예국 혹은 불내예(국) 등이 거론되는 동안 중국 사가들이 맥국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 맥국의 실체(중심지, 규모 등)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직(곡)국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삼척에 비해 동해가 보다 대외교류 활동이 활발했음을 상기했을 때 실직(곡)국의 실체와 동해·삼척간 고고학적 양상 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姜奉遠, 1998, 「한국 고대 복합사회 연구에 있어서 신진화론의 적용 문제 및 ‘국가’ 단계 사회 파악을 위한 고고학적 방법론」, 『韓國上古史學報』 28.
- _____, 2006,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영남지역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신라의 국가형성: 전쟁의 역할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5.
- _____, 2009, 「한국 고대 국가 형성에 있어서 관개수리 역할의 재고 : 영천청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
- 江陵大學博物館, 1984, 『襄陽郡柯坪里住居址發掘調査報告(Ⅰ)』.
-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8, 『江陵 橋項里 住居址』.
-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2, 『東海 松亭洞遺蹟』.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a,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 내」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 _____, 2005b,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Ⅰ)』.
- _____, 2005c, 『江陵 草堂洞 遺蹟Ⅰ』.
- _____, 2005d, 『新梅里 54-4番地 遺蹟』.
- _____, 2006, 『鐵原 瓦水里 遺蹟』.
- _____, 2007a, 『新梅里 10·47-1番地 遺蹟』.
- _____, 2007b, 『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內 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08, 『江陵 草堂洞 遺蹟Ⅳ』.
- _____, 2010, 『洪川 哲亭里Ⅱ 遺蹟』.
- _____, 2011a, 『春川 牛頭洞遺蹟Ⅰ』.
- _____, 2011b, 『春川 槿花洞遺蹟』.
- _____, 2015, 『楊口 高垜里 遺蹟』.
- 강인욱, 2018,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동북아역사논총』 61.
- 姜鐘薰, 1997, 「新羅 三姓 族團과 上古期의 政治體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1999, 「《三國史記》新羅本紀 初期記錄의 紀年問題 再論」, 『歷史學報』 162.
- 고일홍, 2014, 「한국 고고학의 고대 국가형성 연구를 위한 일 검토-유럽 고고학이 제공하는 시각으로 중심으로-」 『고고학』 13-1.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襄陽 柯坪里』.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 김남중, 2018, 「위만조선의 멸망과 1세기 이전 낙랑 지역에 대한 여러 인식」, 『韓國史學報』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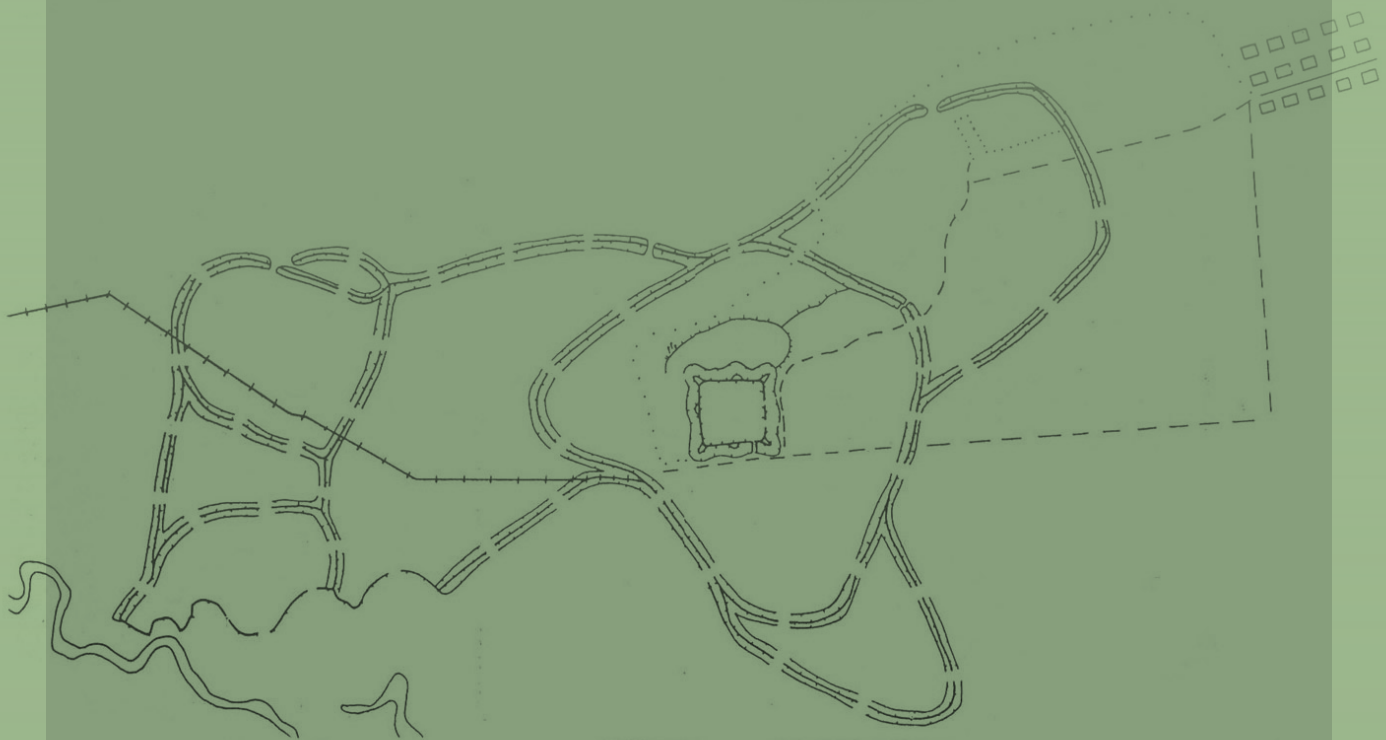
- 김무중,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2017년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창석, 2018, 「『삼국사기』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 박물관 · 강원연구원 · 강원학연구센터.
- 김택균, 2018, 「嶺西濊說의 허구와 그 실체 嶺西貊」,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노태호, 2014,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서부지역 철도자 연구」, 『韓國考古學報』 93.
- 文安植, 1997,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보이는 樂浪 · 靺鞨史料에 관한 檢討」, 『傳統文化研究』 5.
- 文昌魯, 2004, 「新羅와 樂浪의 關係-新羅史에 보이는 ‘樂浪’의 實體와 그 歷史的 意味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4.
- _____, 2016, 「동예의 음락과 사회상-‘不耐濊國’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1.
- 박경신, 2016, 「二條凸帶鑄造鐵斧의 編年과 展開樣相」, 『韓國考古學報』 98.
-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 박순발, 2007,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대회기조 발표』.
- 박지희, 2016, 「삼척지역의 철기시대문화와 실직국」, 『이사부와 동해』 12.
- 白弘基, 1991, 「명주군 안인리주거지 발굴조사 약보고」, 『제1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a, 『한국출토 외래유물-초기철기~삼국시대-』.
- _____, 2011b, 『한국출토외래유물-초기철기~삼국시대-』.
- 徐毅植, 1990, 「新羅 中古期 六部の 賦役動員과 地方支配」, 『韓國史論』 23, 서울大學校.
- 徐俊燮, 1986, 「泰岐山 周邊地域 文化調査-口碑文學部門」, 『江原文化研究』 6.
- 宣石悅, 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 宋滿榮, 2000, 「中部地方 原三國時代~漢城百濟時代 戰爭 樣相의 變化-火災住居址 資料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43.
-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 _____, 2015,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의의」, 『韓國上古史學報』 88.
- _____, 2018, 「강원도 말갈의 정체성과 고구려의 南進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 상고사외연의 확장
변방의 재인식(1)-환동해 지역-』, 한국상고사학회 제49회 정기학술대회.
- 심재연, 2007, 「남한강 중상류지역의 철기시대 문화의 특징-최근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 6-2.
- _____, 2010, 「原三國時代 中部地方의 時 · 空間的 政體性」, 『2011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2, 「영동지역 철기 제작 유적의 양상-동해 송정동유적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3.

- 심재연, 2013, 「강릉 안인리유적의 제 문제」, 『인문사회과학연구』 14-2.
- _____, 2017, 「최근 조사 성과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 작용-철기~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1-1.
- _____, 2018, 「토기로 본 고대 북방과 한국 문화-폴체·원말갈·말갈계토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7.
-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柳仁順, 1990, 「강원지방 인물전설 연구-왕 및 왕관계 전설을 중심으로-」, 『江原文化研究』 10.
- 이동훈, 2019a,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 _____, 2019b, 「고구려와 북조의 조공관계 성격」, 『韓國史學報』 75.
- 이미정, 2018, 「강원도 지리에 대한 근대적 인식 연구-매체에 나타난 강원도 자연 형상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4.
- 李丙燾, 1976, 「臨屯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연구총서 20.
- 이학주, 2015, 「횡성 태기왕 자원을 활용한 명품관광지 만들기-한풀이를 통한 신바람 나는 횡성 관광지 조성, 얼싸 좋아 횡성-」, 『강원문화연구』 34.
- 李炯佑, 1991, 「『斯盧國』의 성장과 주변小國」, 『國史館論叢』 21.
- 이흥종, 1998, 「『三國史記』 ‘말갈’기사의 고고학적 접근」, 『韓國史學報』 5.
- 李熙眞, 1998, 「『三國史記』 초기기사에 대한 최근 紀年調停案의 문제점」, 『歷史學報』 160.
- (財)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東海 松亭洞 聚落Ⅱ』.
- _____, 2013, 『東海 松亭洞 聚落Ⅲ』.
- _____, 2013, 『華川 居禮里 遺蹟』.
- (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07, 『江陵 草堂洞 遺蹟Ⅰ』.
- _____, 2008a, 『春川 栗文里遺蹟Ⅰ』.
- _____, 2008b, 『東海 松亭洞 遺蹟Ⅰ』.
- _____, 2010a, 『東海 松亭洞 遺蹟Ⅲ』.
- _____, 2017,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_____, 2018, 『束草 靑湖洞遺蹟』.
- _____, 2019, 『東海 望祥洞遺蹟Ⅲ』.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우두동유적』.
- 전진국, 2018,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 鄭仁盛, 2002, 「樂浪文化の考古學的研究」, 東京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4,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40.

- 조대연, 2010, 「3. 동해 망상동유적 II 출토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 토기암석학분석과 전자주사현미경분석을 중심으로-」, 『東海 望祥洞遺蹟 II』, (재)에맥문화재연구원.
- 지현병, 2002,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취락과 주거구조」, 『강원고고학회 200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요지』.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三韓攷」 第3部-」, 『韓國學報』 2.
- _____,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최몽룡, 1985, 「고대국가 성장과 무역: 위만조선의 예」,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 최성락, 2002, 「철기시대 토기의 실체와 연구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 한국문화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Ⅴ-강원3·충남1-』.
- 翰林大學 博物館, 1986, 『新梅里 支石墓 住居址 發掘報告書』.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 홍주희, 2014,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낙랑고고학개론』, 진인진.
- Azar Gat, 2006,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ry Holbert Turney-High, 1991, 『PRIMITIVE WA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Pierre Clastres(변지현·이종영 譯), 2002, 『폭력의 고고학-정치 인류학 연구-』, 울력.
- Timothy K.Earle(김경택 譯), 2008, 『족장사회의 정치 권력』, 도서출판 考古.
- Thomas J. Barfield(윤영인 譯),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武末純-(禹枝南 譯), 2010, 「11. 金海 龜山洞遺蹟 A1區域의 彌生系土器를 둘러싼 諸問題」 『金海 龜山洞遺蹟 X』, 慶南考古學研究所.
- 劉小萌(이훈·이선애·김선민 譯),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 金關 恕·春成秀爾, 2005, 『戰爭の考古學』, 岩波書店.

삼국 항쟁기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윤성호



삼국 항쟁기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윤 성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Contents

- I. 서론
- II. 강원지역 재지세력에 대한 연구 현황
- III. 고구려의 재지세력 부용화와 대백제-신라전 동원
- IV. 신라의 북진과 재지세력의 흡수
- V. 결론

I

서론

고대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은 小國이나 古代國家 단계의 정치체를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三國史記』에서는 ‘濊’, ‘靺鞨’과 같은 명칭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말갈’은 삼국간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삼국의 연대기로 구성된 『삼국사기』를 비롯한 사료에 주체적인 기록이 전무하므로, 실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기왕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명확한 정설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²

본고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왕의 연구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국의 항쟁기에 등장하는 소위 ‘말갈’이라는 재지세력의 동향을 추적해 봄으로써, 강원지역 재지세력이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 미친 영향과 이후에 어떻게 주변국으로 흡수되어 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³

우선 II장에서는 ‘말갈’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정리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낙랑군이 소멸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확인되는 재지세력의 동향과 고구려가 남진을 추진하면서 부용화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상류로 진출하면서 재지세력을 복속한 시기와 6세기 중반 이후에 한강 일대를 확보한 후 재지세력의 동향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전쟁이 끝난 뒤에 발해가 건국하는 시점까지 재지세력이 신라화되는 과

1 본고에서 언급한 ‘재지세력’은 강원지역의 기층집단 또는 원(주)주민집단에 해당하는 토착세력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三國史記』 소재 靺鞨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李康來, 1985,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嶺土問題研究』 2 ;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の 靺鞨研究」 『釜山史學』 14 · 15 ; 2013, 『『三國史記』의 靺鞨 문제』 『인문학논총』 31 ; 金鎭光, 2009,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5.

3 고구려가 강원지역으로 진출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나 있다(금경숙, 2001,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 靺鞨문제와 관련하여 -」 『韓國史學報』 11, 61~62쪽 ; 금경숙 · 임기환 · 공석구, 2006, 『강원도와 고구려』, 집문당 ; 신광철, 2015,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62쪽).

반면에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의 상황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과 연결하여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전덕재, 2009,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江原文化研究』 28 ; 尹星鎬, 2017a,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외에는 연구가 부족하다.

정도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삼국간 접경지대 또는 완충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강원지역 재지세력에 대한 연구 현황

『三國史記』의 초기기사에서 ‘말갈’이라는 집단이 백제·신라와 충돌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확인된다.⁴ 그런데 중국정사에서는 『北齊書』 武成帝紀 河清 2년(563)에서 室韋, 庫莫奚, 靺鞨, 契丹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말갈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⁵ 이후 『隋書』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傳으로 편찬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갈을 속말부, 백돌부, 안거골부, 불열부, 호실부, 흑수부, 백산부로 구분하였다.⁶ 이러한 중국정사의 말갈에 대한 기록은 중국 동북방 이민족의 총칭으로서 勿吉의 후신이며, 肅愼과 挹婁 계통으로 동이족과 이질적인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⁷ 그렇다면 중국정사에서 언급되기 이전의 역사를 서술한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 확인되는 ‘말갈’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에 편찬자들이 이러한 점을 오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나름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분석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말갈’에 대한 고찰은 이미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약용은 ‘僞靺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공격한 ‘말갈’(僞靺鞨-不耐濊)과 고구려 본기에 보이는 ‘말갈’이나 대수-대당전쟁에 동원된 말갈(眞靺鞨-肅愼 계통)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말갈은 신라가 말갈인이 주축이된 발해를 北狄으로 간주한 것에서 소급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⁸

4 이하에서 『三國史記』 초기기사 및 삼국 항쟁기에 확인되는 비속신계 말갈을 ‘말갈’로 표기하고자 한다.

5 『北齊書』 권7, 帝紀7, 武成帝 河清 2년. 『三國史記』 본기에서 靺鞨은 총 77건이 확인되는데, 『북제서』 이전의 말갈 기록이 43건, 이후가 34건이다. 『북제서』 이전의 기록 중에서 백제본기에 30건, 신라본기에 10건, 고구려본기에 3건이 확인된다. 기타 『삼국사기』 잡지와 열전에서 10건의 기록이 확인된다.

6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靺鞨部.

7 金貞培, 1973, 『韓國民族史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65~84쪽.

8 丁若鏞, 1962, 『靺鞨考』 『與猶堂全書』: 『鄭茶山全書』, 文獻編纂委員會.

일제강점기의 연구에서도 강원도에 거주한 집단인 濊가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 보이는 백제와 신라를 침입한 ‘말갈’이고, 고구려 광개토왕대에 복속된 후에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동원되어 백제나 신라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 중국사서의 말갈에 假托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⁹ 이후 이러한 논의가 계승되어 말갈은 濊 또는 沃沮 계통의 세력과 연결하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사에 언급되는 낙랑과 연결되는 ‘말갈’을 濊로 추정하거나,¹⁰ ‘말갈’을 濊貊(東濊)의 오칭으로 이해하는 견해,¹¹ 고구려 지배하의 ‘말갈’을 예나 동옥저 계통으로 파악하거나,¹² 예를 주로하면서 옥저도 혼합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말갈’을 濊계통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¹⁴ 그리고 『삼국사기』에 확인되는 ‘말갈’도 두 시기로 나누어 초기의 ‘말갈’은 예맥계통으로 파악하고, 6세기 이후의 ‘말갈’의 경우 함경도 지역에서 남하한 세력으로 이해하기도 한 견해도 있다.¹⁵

한편 위말갈로 설정한 견해를 보강하여 ‘말갈’을 동예 계통으로 파악하면서, 신라가 당에 청병을 하면서 고구려의 부용세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북방의 말갈과 연결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¹⁶ 또한 말갈의 종족 구성을 肅愼·挹婁 계통의 黑水靺鞨과 濊계통의 渤海靺鞨의 이원적인 구성으로 이해하고, 『삼국사기』 초기기사에 등장하는 ‘말갈’이 濊계통의 말갈이며 후에 발해 건국에도 참여하는 고구려의 별종인 부여, 옥저, 동예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¹⁷

9 津田左右吉, 1913,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歴史地理』, 南滿鐵道株式會社 : 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47~51쪽.

10 津田左右吉, 1924,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501쪽 ; 申采浩, 1972, 『丹齋申采浩全集』 上, 螢雪出版社, 128쪽.

11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編, 乙酉文化社, 356쪽 ; 나영남, 2011, 「渤海靺鞨의 再解釋 - 대조영의 出自와 발해의 주민구성 -」 『全北史學』 39, 305쪽.

12 金哲垞, 1964,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1,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501쪽.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말갈’을 동예와 동옥저 집단으로 파악하고, 6세기 중엽 이후에 중국에서 만주 지역의 잡다한 종족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를 차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高句麗渤海研究』 37, 32쪽).

13 千寬宇, 1975, 『韓國文化史新論』, 中央大學校出版部, 55쪽.

14 박진욱, 1978, 「백제와 신라에 이웃하였던 말갈에 대하여」 『역사과학』 3, 26~28쪽 ; 李康來, 1985, 앞의 논문, 67~68쪽.

15 金元龍, 1967, 「三國時代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5쪽.

16 俞元載, 1979,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 29, 1~41쪽.

17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關한 試論」 『農檀學報』 49, 1~25쪽.

실제로 『삼국사기』에서 『북제서』 이후에 등장하는 말갈과 동일한 중국 동북 지역에 위치한 말갈과 한반도 중부 지역 ‘말갈’의 기록이 혼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A. (영양왕) 9년(598) 봄 2월. 왕이 靺鞨의 무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략하니 영주 총관 위충이 이를 격퇴하였다. 수문제가 듣고 크게 화를 내고 한왕 양과 왕세자에게 명하여 나란히 원수로 삼아 수군과 육군 30만을 거느리고 와서 쳤다.¹⁸

A 기사는 영양왕 9년(598)에 고구려가 말갈을 동원하여 수를 선제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1만 명에 달하는 말갈은 『삼국사기』 초기기사에 확인되는 신라와 백제의 주변에 위치한 세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상상 중국정사에 언급되는 肅愼과 挹婁 계통의 말갈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갈이라는 칭호는 특정지역의 집단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칭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사기』에 확인되는 말갈은 외부 집단에 의한 타칭이므로, 앞서 살펴본 고구려 변경의 다원적인 불특정 집단인 피지배민에 대한 汎稱 또는 卑稱으로 이해한 견해가 주목된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말갈은 濊貊系 집단을 포함하여 삼국의 변방에 위치한 집단으로 중앙의 군사 및 행정조직에 편제되지 아니한 반독립적인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말갈의 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 B-1. (성왕) 26년(548) 봄 정월에 고구려왕 평성이 濊와 공모하여 한수이북(漢北)의 獨山城을 공격해왔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朱珍을 시켜 갑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獨山城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려 크게 이겼다.²⁰

- B-2. (진흥왕) 9년(548) 봄 2월에 고구려가 穢人과 함께 백제의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므로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은 장군 朱玲을 보내서 군센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공격하였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²¹

18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년.

19 韓圭哲, 1988, 앞의 논문, 47~48쪽 ; 2013, 앞의 논문, 197~199쪽. 중국정사에서 확인되는 말갈은 6~7세기 동북아 일대에 존재하였던 정치 세력이지만, 통일된 정치집단이나 단일한 종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말갈을 일종의 汎稱으로 파악한 유사한 견해도 있다(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445쪽).

20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聖王 26년.

2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9년.

B-3. (양원왕) 4년(548) 봄 정월에 濊의 병력 6천으로 백제의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신라 장군 朱珍이 와서 도와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²²

B 기사군은 고구려가 예와 공모하여 548년에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濊는 고구려의 영향권에 편입된 예족을 의미한다. B-2 기사인 신라본기에서도 穢人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군의 이름이 주령으로 B-1·3 기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전거의 차이로 생각되지만 동일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고구려에 부용된 세력은 ‘말갈’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말갈의 계통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예계통을 포함하여 삼국의 변경에 위치한 재지세력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말갈’로 볼 수 있으며, 입지상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강원도 일대에 걸친 집단으로 이해된다.²³ 또한 고고학적으로는 북한 강-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도식무문토기를 제작하던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²⁴

한편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의 경우에 單單大嶺을 기준으로 영서와 영동지역이 동일한 세력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춘천 지역에 貊國이 있었다는 서술이 있어 논란이 있다.

C-1. (유리이사금) 17년(40) 가을 9월 華麗·不耐 2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의해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했다. 貊國의 渠帥가 군사들로 하여금 曲河 서쪽을 막아 물리치게 했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우호를 맺었다.²⁵

C-2. 朔州는 賈耽의 古今郡國志에서 이르기를, “(高)句麗의 동남쪽이자 濊의 서쪽은 옛 貊의 땅이며, 대개 지금 신라의 북쪽인 삭주이다.”라고 하였다.²⁶

22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4년.

23 말갈을 범칭 또는 비칭으로 파악하면서 임진강과 한강 유역에 거주하였으며, 삼국의 팽창에 저항하고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한 집단으로 규정한 견해(金鎭光, 2009, 앞의 논문, 9~42쪽)도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24 李弘鍾, 1988, “『三國史記』 ‘靺鞨’기사의 考古學的 接近” 『韓國史學報』 5, 9~47쪽 ;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156쪽.

25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17년.

26 『三國史記』 권35, 雜誌4, 地理2 新羅.

C 기사군에 의하면 삭주(우수주)의 치소인 춘천 일대는 貊의 땅, 貊國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여기에 춘천의 貊國과 영동 지역인 강릉에 濊國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⁷ 여기서 맥을 ‘말갈’로 비정하여 맥계말갈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²⁸ 貊은 진한대 이후 고구려 혹은 그 주민을 지칭하는 용례로 이해한다면 강원지역의 정치체와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 지역의 재지세력은 예계통의 嶺西濊로 설정하고, 신라가 6세기 중엽에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앞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고구려를 의식하여 貊族의 본거지로 오해한 것으로 파악할 견해도 있다.²⁹ 그렇지만 『三國志』 등의 중국정사에서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濊貊과 濊가 혼재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광의의 예맥의 경우도 중국 동북지역과 강원도 일원에 존재한 집단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다.³⁰ 따라서 예는 예맥을 줄여서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동지역과 구분되는 영서지역의 경우 예맥과 관련된 인식이 (예)맥국으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삼국이 항쟁기에 접어들기 이전 초기기사에서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은 ‘말갈’로 기록된 세력과 연결된다. ‘말갈’의 계통이나 성격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濊貊계통의 세력으로 전쟁 관련 기록 외에 외교나 교역 등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자적인 小國을 형성하지 못하고 특정한 國의 지방민으로 편재되기도 아 니한 재지세력임을 알 수 있다.³¹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의 영역을 팽창하며 충돌하게 되는 시기에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장을 바꾸어 살펴보겠다.

27 金澤均, 1985, 「春川 貊國設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30 · 31 ; 최복규, 2007, 「춘천지역의 유적과 맥국」 『江原人文論叢』 17.

28 文安植, 1996, 「嶺西濊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的 背景」 『東國史學』 30 ; 공석구, 2006,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고대 정치세력」 『강원도와 고구려』, 강원발전연구원.

29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動」 『韓國古代史研究』 51 : 2018, 「맥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152~156쪽 ; 2018, 「『三國史記』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도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107~108쪽.

30 朴京哲, 2004, 「濊貊 · 夫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高句麗研究』 18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31 백제 온조왕 18년(기원전 1년)에는 칠중하(임진강)에서 습격한 ‘말갈’의 酋長 素牟를 사로잡은 기록이 확인된다(『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8년). 이를 통하여 ‘말갈’ 집단은 추장이 이끄는 소국 단계 이전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III

고구려의 재지세력 부용화와 대백제-신라전 동원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 백제, 신라가 ‘말갈’과 충돌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확인된다.³² 기왕의 지명고증을 참고한다면 교전에 벌어진 지점은 황해도 서흥~경기도 과주 또는 연천~강원도 춘천~남한강 상류(니하)에 해당한다.³³

아울러 3세기 이전에 백제와 신라간 충돌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사로국이 직접 충돌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왕에 이러한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백제와 신라의 충돌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기년을 조정 한 결과로 파악하거나,³⁴ 석씨왕계의 공을 부각하고자 해당 사실을 탈해이사금대로 편재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³⁵ 그렇지만 『삼국사기』의 기년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초기기사의 백제와 신라는 마한과 진한의 유력한 세력으로 해석하거나,³⁶ 백제(마한 세력)와 전투를 벌인 신라로 기록된 주체는 진한 사벌국과 감문국과 같은 소국으로 신라의 세력권에 포함된 재지세력을 활용하여 외곽으로 팽창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주목된다.³⁷ 즉, 신라와 백제의 영역화를 위한 전투는 아니지만, 소백산맥 일대에서 성장하는 신라와 백제의 세력권 외곽에서 발생한 충돌로 볼 수 있다.³⁸ 이와 함께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 보이는 ‘말갈’과 충돌한 백제는 백제국 또는 마한세력이고, ‘말갈’과 충돌하는 신라는 사로국의 외곽인 진한 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32 백제 온조왕 2년(기원전 17년)에 말갈이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한 이후로 말갈과 관련된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국정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563년 이전 삼국사기 소재 말갈 관련 기사의 출현과 소강기를 기준으로 ① 기원전 37~56년, ② 108~142년, ③ 203~258년, ④ 387~395년, ⑤ 468~507년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바 있다(金鎭光, 2009, 앞의 논문, 17~29쪽).

33 니하의 위치 비정에 이견이 있지만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 견해(李康來, 1985, 앞의 논문, 48~53쪽)가 등장한 이후에 학계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34 姜鍾薰, 1991, 「新羅上古紀年の再檢討」 『韓國史論』 26, 53~54쪽.

35 李富五, 2007,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지배형태」 『新羅史學報』 10, 15~23쪽.

36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21쪽.

37 박대재, 1999, 「『三國史記』 初期記事에 보이는 新羅와 百濟의 戰爭」 『韓國史學報』 7, 39~40쪽.

38 윤성호, 2019b, 「5세기 중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 『전북사학』 55, 27~32쪽.

그렇다면 본고에서 검토할 삼국 간에 항쟁이 벌어지는 시기는 각국이 성장하여 영역과 의 부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고, 고구려가 낙랑을 복속하게 되면서 백제가 상호 경계를 접하게 되는 313년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다.³⁹ 삼국의 항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는 4세기 초반 이후를 중심으로 ‘말갈’과 관련된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4~6세기 전반 <삼국사기> 소전 ‘말갈’ 관련 기사⁴⁰

| 연번 | 연 도 | 내 용 | 비 고 |
|----|-------------------|---|-----------------------|
| ① | 진사왕 3년(387) 9월 | 말갈과 關彌城에서 교전 | 靺鞨→百濟 |
| ② | 진사왕 7년(390) 4월 | 말갈이 백제의 北鄙 赤岬城 함락 | 靺鞨→百濟 |
| ③ | 나물이사금 40년(395) 8월 | 말갈이 北邊 침공, 실직에서 신라가 격퇴 | 靺鞨→新羅 |
| ④ | 자비마립간 11년(468) 봄 | 고구려+말갈이 北邊 悉直城 습격 | 高句麗+靺鞨→新羅 |
| ⑤ | 소지마립간 2년(480) 11월 | 말갈이 北邊 침입 | 靺鞨→新羅 |
| ⑥ | 소지마립간 3년(480) 3월 | 고구려+말갈 北邊침입, 호명 등 7성 함락 미질부 진출, 백제+가야원병과 니하에서 격퇴 | 高句麗+靺鞨→ 新羅(+百濟+加耶) |
| ⑦ | 동성왕 4년(482) 9월 | 말갈이 漢山城 습격 후 퇴각 | 靺鞨→百濟 |
| ⑧ | 무령왕 3년(503) 9월 | 말갈이 馬首柵 불사름, 高木城 진출을 격퇴 | 靺鞨→百濟 |
| ⑨ | 무령왕 6년(506) 7월 | 말갈이 습격 高木城 파괴 | 靺鞨→百濟 |
| ⑩ | 무령왕 7년(507) 5월 | 말갈에 대비하여 高木城에 柵설치 長嶺城 축조 | |
| ⑪ | 무령왕 7년(507) 10월 | 고구려(장수 고노)+말갈 漢城 공격을 위해 橫嶽 주둔, 격퇴 | 高句麗+靺鞨→百濟 |

4~6세기 초반의 ‘말갈’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는 내용(<표 1>-①·②)과 ‘말갈’이 신라를 공격하는 내용(<표 1>-③~⑥), 마지막으로 475년 한성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는 기사(<표 1>-⑦~⑪)가 확인된다.

<표 1>-④기사에서는 신라 자비마립간 11년(468)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와 백제를 공격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고구려가 ‘말갈’ 세력을 영향권에 두는 시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백제나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기록은 확인되지만, 4세기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말갈’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이는 기록은 전무하다.

39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14년.

40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3·9년 ; 권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40년 ; 慈悲麻立干 11년 ; 炤智麻立干 2·3년 ;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4년 ; 武寧王 3·6·7년.

한편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북한강 유역을 중심의 소위 중도식토기문화가 4세기에 접어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백제문화로 교체되는 것이다. 백제는 성장 과정에서 ‘말갈’ 세력과 충돌하면서 특히 북한강 유역의 화천, 횡성을 중심으로 서서히 강원도 지역으로 영향권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진출은 남한강 유역의 원주 지역의 진출양상과는 차이가 있다.⁴¹ 영동지역의 경우에는 백제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는데, 동해안을 따라서 북진을 시도한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4세기 후반부터 재지세력의 문화가 신라화되기 시작한다.⁴²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다시 큰 변화가 발생한다. 4세기 말엽부터 고구려는 한강 이북지역과 강원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하는데, 400년에는 기병 3만을 동원하여 왜의 공격을 받던 신라를 구원하는 명분으로 남진을 단행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 고구려군의 남진 경로는 춘천으로 도착하는 경로는 영동지역을 통하여 안변-추양-금화-화천-춘천으로 진출한 견해도 있으나,⁴³ 백제의 한성을 우회하여 연천-철원-화천-춘천으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이후 고구려는 강원 영서 내륙을 관통하면서 춘천-홍천-원주-충주를 통하여 계림령 또는 단양을 통한 축령을 거쳐서 낙동강을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금관국까지 이르는 교통로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이러한 광개토왕의 남진 과정 혹은 남진 이전에 고구려는 강원 영서 지역과 소백산맥 이북의 충북지역을 장악하면서 재지세력은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5세기를 전후한 고구려 남진 이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수왕 3년(414)에 건립된 『廣開土王碑』에서 강원지역 재지세력을 장악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沈載淵, 2009, 「한성백제기의 영동·영서」 『고고학』 8-2, 58~65쪽; 한림고고학연구소, 2016, 『백제의 변경-화천 원천리 유적-』, 진인진; 한지선, 2018, 「한성백제기 강원지역 물질문화와 지역 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209쪽.

42 신라의 영향을 받기 이전 영동 지역은 좁석식 적석총의 유무 등에서 영서 지역과 문화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에 두 지역의 재지세력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5세기 고구려의 남진 이전에 두 지역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진출 양상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3 盧泰敦,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80쪽.

44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55쪽.

45 충주 지역은 제철과 남한강 유역의 물류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백제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고구려는 한성을 우회하였으나, 백제를 압박하고자 충주를 장악하였다. 이후 충주가 고구려의 국원으로 남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D. 영락 8년(398) 戊戌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帛愼土谷을 觀察 巡視하였으며 그 때에 (이 지역의) 莫□羅城 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 20년(410) 庚戌에 東夫餘는 옛적에 추모왕의 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餘城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나라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했다. …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敎를 내려 말하기를, ‘先祖 王들이 다만 遠近에 사는 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略取해 온 韓·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韓·穢의 220家を 데려다가 수묘하게 하라고 하였다.⁴⁶

D 자료에서 398년에 고구려가 공격한 帛愼土谷은 관독과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를 肅愼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⁴⁷ 그렇지만 이와 달리 帛愼土谷을 지명인 帛愼土에 계곡을 붙인 것으로 이해한 견해도 참고가 된다.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谷의 지명이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많다는 것이 주목되므로, 帛愼土谷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을 濊의 거주지에 대한 공격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⁴⁸

그리고 410년에 고구려가 토벌한 東扶餘의 중심지를 함흥 이남의 강원 북부에 위치한 동예와 연결한 견해가 있다.⁴⁹ 강원지역의 재지세력과 구별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구려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⁵⁰

한편 守墓人烟戶와 관련된 韓穢(濊)도 주목해야 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고구려의 주민인 舊民과는 차별적인 존재이다.⁵¹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하여 임진강 일대의 세력 또는 북한강

46 『廣開土王碑』.

47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537~539쪽;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6쪽.

48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56~57쪽; 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11쪽.

49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85쪽; 武田幸男, 1979,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研究所 研究機要』 78, 118~122쪽.

50 두만강~강릉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 濊세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孔錫龜, 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扶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研究』 70, 19~30쪽)도 있었다.

51 고구려의 수묘인으로 편입된 韓濊세력과 관련하여 이들을 사민한 것이 중부와 남부지역의 상대적으로 발전된 농업 기술력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견해가 참고된다(趙法鍾, 1995,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韓國古代史研究』 8, 211쪽).

으로 진출한 백제 세력이나 재지세력과 관련된 여지가 있다. 또한 넓게는 400년 고구려의 가야 지역 남정과 관련된 포로나 소백산맥 이북이나 강원 영서지역에서 백제에 종속되지 않은 재지세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⁵² 정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고 남진하는 과정에서 강원지역 교통로를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지세력을 장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다.

고구려는 5세기를 전후하여 남진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장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영향권인 북한강 유역의 화천 지역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타 강원지역 재지세력은 정치적 구심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⁵³ 강원지역 재지세력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양상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475년 고구려는 백제 한성지역을 공격한 이후의 상황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세기 이후에 고구려는 백제 한성과 한강으로 마주한 남평양으로 비정되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보루를 연결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아차산 4보루에서는 “後□都□兄”, “冉牟兄”과 같은 관직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명문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문을 통하여 고구려가 이 지역에 지배층을 파견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⁵⁴ 따라서 과거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성 일대와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 남진의 거점인 국원의 경우와 같이 강원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도 소수의 고구려인이 파견되어 재지세력인 ‘말갈’을 재편하였을 것이다. 앞서 백제는 화천이나 원주와 같은 거점을 차지하고 주변을 영향권에 두었으나, 고구려는 전체적으로 재지세력의 일부를 재편하여 간접통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그리고 고구려는 전투에 병력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갈’을 군사적으로 동원하였던 점에서도 백제의 강원 영서지역 지배와 차이가 있다.

52 수묘인 연호와 관련된 지명을 본다면 남부지역의 가야 복속민까지 편입되었다기 보다는 백제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한성 외곽에 해당하는 임진강 일대~강원 영서지역의 백제계인 韓과 비백제계인 濊의 세력이나 함경도 일대의 재지세력이 중심인 것으로 이해된다(전진국,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濊 - 출신지와 고구려의 인식을 중심으로 - 『高句麗渤海研究』 48, 11~17쪽).

53 朴京哲, 2000,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 - 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 『先史와 古代』 15, 280~284쪽. 강원지역 재지세력은 지리적인 폐쇄성으로 인한 대규모 세력으로 발전하는 구심체의 형성이 어려웠을 것이다. 후대의 일이지만 7세기 이후 신라는 임진강 이남의 한강 유역에 다수의 성곽을 축성한 것에 비해 강원지역에서 축성 사례는 드물며, 석주와 명주의 범위가 교통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분포한 것도 이와 관련될 수 있다.

54 최충택, 2014,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역』, 학연문화사, 275~276쪽.

55 금경숙, 2001, 앞의 논문, 61~62쪽. 고구려가 400년 남정 이후에 『忠州 高句麗碑』에서 보이는 “新羅土內幢主”를 신라에 둔 것도 일종의 간접지배에 해당하겠으나, 신라의 국명을 붙인 것은 통하여 고구려가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에 대한 간접지배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D의 『광개토왕비』에서 수묘인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을 舊民으로 표현하였고, 『集安高句麗碑』에서도 守墓之民의 표현이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신복속민인 韓濊를 新民으로 표기하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 고구려의 지방행정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⁵⁶ 이러한 간접통치는 임진강 일대 이남과 북한강, 강원도 일대에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대규모의 관방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고구려의 고분도 주요 교통로상의 거점에서 소규모로 조성된 정황과 부합한다.⁵⁷

삼국의 항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와 <표 1>-①~③이나 <표 1>-⑤와 같이 고구려에 대한 언급 없이 독자적으로 ‘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공격한 것은 양국의 팽창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말갈’이 양국을 공격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사료에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말갈’이 백제와 신라의 변방을 습격한 것은 인적 물적 전리품의 획득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표 1>-④~⑩과 같이 400년을 전후하여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간 뒤에는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군사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갈’은 전쟁을 통하여 기왕에 경우와 동일하게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고구려를 통한 철기 등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⁸

요컨대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으로 기록된 ‘말갈’은 400년을 전후하여 고구려의 간접지배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며, 고구려에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삼국간 항쟁의 와중에 신라와 백제의 공격을 보조하는 세력이 되었다. ‘말갈’로 표현된 이러한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을 내부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리적인 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신라를 공격한 ‘말갈’은 강원 영동지역의 재지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백제를 공격한 세력은 임진강 이북지역이나 영서지역에 위치한 재지세력으로 추정된다.⁵⁹

56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余昊奎, 2009, 「『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14~15쪽; 孔錫龜,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考察 - 농업생산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 『高句麗渤海研究』 50, 174~175쪽.

57 신광철, 2015, 앞의 논문, 62쪽.

58 신광철, 2015, 앞의 논문, 97쪽.

59 <표 1>-⑦~⑩은 백제 웅진기에 漢城(漢山城, 橫嶽)을 고구려와 ‘말갈’로부터 공격을 받는 기록인데, 학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소위 475~551년 한강유역 백제영유설에서 본 기사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명의 이동설이나 후대의 부회설이 언급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기사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백제가 한성 일대를 회복하고, 이후 고구려와 경계가 한강을 중심으로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尹星鎬, 2017a, 앞의 책, 56~64쪽).

IV

신라의 복진과 재지세력의 흡수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했던 것은 고구려가 이 지역의 재지세력을 간접통치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라도 영동지역의 재지세력을 포섭하고 처음에는 간접지배를 하였으나, 5세기 후반경 고구려와 충돌한 경험을 바탕으로, 6세기에 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지민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눌지마립간 34년(450)에는 悉直에서 고구려의 변방장수를 何瑟羅 城主 三直이 군사를 동원하여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⁶⁰ 이 사건은 신라가 5세기 중반 이후부터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하슬라의 성주인 삼직이 신라의 간접지배를 받던 재지집단의 수장이라기 보다는, 중앙에서 파견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5세기 중반에 신라가 영동 지역의 재지사회를 지방으로 편제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동지역인 동해 추암동유적과 남한강 상류의 단양 하리유적에서는 6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동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관은 신라의 외곽 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인데, 신라가 위세품의 하사를 통하여 재지민을 포섭하는 지배방식이 적용된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⁶¹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신라가 강원지역 재지세력을 지방민으로 완전하게 편제한 것은 영역화를 추진한 시기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²

영동지역의 재지세력의 동향을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문헌자료는 부족하지만, 하슬라 이남에서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蔚珍 鳳坪碑』에서 “居伐牟羅 男彌只是 본래 奴人”이라고 한 표현이 확인된다. 비문의 내용은 실수로 인한 화재로 성을 태워서 城村에서 크게 군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역을 부담케

6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訥祗麻立干 34년.

61 尹星鎬, 2017a, 앞의 책, 178~179쪽. 단양 하리 유적의 피장자를 신라에 포섭된 재지세력이거나, 신라에서 파견된 유력자와 관련하여 설명한 견해도 있다(김홍주, 1992, 「단양 하리 출토 일괄유물에 대한 고찰」 『考古學誌』 4, 189쪽).

62 591년에 구 가야의 복속지인 합천 지역에 있는 『梅岸里古碑』에서는 “辛亥年口月五日口口村四十干支”라는 내용이 확인된다(이용현, 2007,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235~236쪽). 이는 562년에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신라에 복속된 이후에도 고령 인근 지역에서는 피복속된 재지세력에 대해서 일정 기간 지배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奴人法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 중심이다.⁶³ 연구자간에 견해차는 있지만 여기서 확인되는 奴人은 신라의 영역화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적 예속인이며, 비신라인이었던 재지세력으로 이해된다.⁶⁴ 즉, 『봉평비』를 통하여 신라가 동해안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재지민을 장악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울진 지역의 덕신리 고분군, 읍남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 토기는 『봉평비』가 세워지기 전인 5세기 중엽으로 편년이 된다.⁶⁵ 그리고 울진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의 강릉 강문동 토성에 대한 조사에서 4세기 중반에 초축되어, 2차례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6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⁶⁶ 사료를 통해서 지증왕 5년(504)에는 波里城, 彌實城, 珍德城, 骨火城 등 12성을 축조하고,⁶⁷ 이듬해인 505년에는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군주로 처음 임명한 것이 확인되고,⁶⁸ 실직주의 치소로 비정되는 삼척 오향리성도 6세기 전반의 토기가 지표에서 수습되었다.⁶⁹ 결국 강릉과 삼척의 이남 지역인 울진은 『봉평비』가 건립되기 이전에 신라가 문화적으로는 영향권에 두고 있었지만, 男彌只村의 奴人을 통하여 신라가 지방민으로 완전하게 편제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원 영서지역에서 신라가 재지민 포섭하고 신복속지의 재편을 시도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강 상류에서 확인된 『丹陽 赤城碑』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단부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판독이 어렵지만 해석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1] … (年) … 月에 王이 大衆等인 喙部 伊史夫智 伊干支, (沙喙部) 豆弥智 彼珙干支, 喙部 西夫叱智 大阿干支, □夫智 大阿干支, 內礼夫智 大阿干支, 高頭林城에 있는 軍主들인 喙部 比次夫智 阿干支, 沙喙部 武力智 阿干支, 鄒文村 幢主人 沙喙部 善設智 及干支, 勿思伐(城 幢主) 喙部 助黑夫智 及干支에게 敎하시었다.

63 『鳳坪碑』에서 男彌只村과 관련된 성의 화재 사건은 재지세력의 반란과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

64 朱甫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 『韓國古代史研究』 2, 119~120쪽; 盧泰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179쪽; 김창석, 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과 奴婢 - 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54, 77쪽.

65 이한상, 2009,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68~77쪽.

66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90~795쪽.

6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5년.

68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년.

69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寥田山城 基本設計(地表調査) 報告書』, 2001, 50~52쪽; 홍영호, 2016, 「삼척 오향리 산성과 신라사적 의미」 『이사부와 동해』 12, 202~219쪽.

- [2] 이 때에 赤城 출신 也余次에게 教하시기를 … 중에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妻인 三 … 에게는 … 利를 許하였다.
- [3] 四年 小女, 師文 … 公兄 鄒文村 巴瑯婁 下干支 … (前)者는 다시 赤城烟으로 가게 하고 後者 公兄은 … 異葉이건 國法에는 分與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伊 … 子, 刀只 小女, 烏礼兮 撰干支 … 法을 赤城佃舍法으로 만들었다.
- [4] 별도로 官은 … 弗兮 女, 道豆只又悅利巴 小子, 刀羅兮 … 합하여 五人에게 … 를 내 렸다.
- [5] 별도로 教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也余次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남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兄弟이건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大人인가 小人인가 …
- [6] … 部 출신의 奈弗耽 郝失利 大舍, 鄒文(村) … 勿思伐城幢主使人은 那利村 … 人은 勿支次 阿尺, 書人註 喙部 출신의 … 人石書立人은 非今皆里村 … 智 大鳥이다.

『적성비』의 건립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적성비』에 기록된 비차부의 관등이 阿干(阿滄, 6위)으로 되어 있으나, 신라가 본격적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의 10군을 확보하는 551년에 비차부의 관등은 大阿滄(5위)이므로,⁷⁰ 『적성비』 건립 하한은 551년 이전이다.⁷¹ 반면에 상한의 경우 독산성 전투가 벌어진 548년에서 도살성과 금현성 전투를 주도한 異斯夫(伊史夫智)와 비문의 내용을 연결한다면 550년 이전에 입비된 것으로 추정된다.⁷² 즉, 6세기 중반에 건립된 비의 내용은 크게 적성 전투와 관련하여 이사부 등을 포함한 장수들에게 진흥왕이 교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교는 적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한 재지민 也余次가 신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의 공을 그리고자 자손들에게 외위를 수여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는 ‘赤城佃舍法’을 포고하는 내용이다.⁷³ 또한 이들의 공을 후대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남한강 상류지역 뿐만 아니라 향후 신복속지에 대한 재지민 포섭정책을 공포하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6세기를 전후하여 소백산맥 이북 지역의 남한강 상류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6세기 중반 경에는 『적성비』의 내용과

70 『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柒夫.

71 邊太燮, 1978, 「丹陽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 『史學志』 12, 32~33쪽.

72 尹星鎬, 2017a, 앞의 책, 101~103쪽.

73 李宇泰, 1992,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 - 也余次의 功籍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 『泰東古典研究』 8, 36~39쪽.

같이 재지세력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지민의 흡수는 이미 가야 지역에 대한 진출과정에서 지배층을 신라의 귀족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는 세력을 신라의 변방으로 사민시키는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다.⁷⁴ 실제로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 거점인 國原(충주)을 확보한 뒤 6부민을 옮겨서 살게 하거나 우륵의 경우와 같이 가야계 투항민을 사민하는 방식으로 신복속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반이 되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551년에 신라는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세력을 축출한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의 10군을 확보하는데, 10군은 현재 강원 영서지역에 해당한다.⁷⁵ 553년에 신라는 백제 세력도 몰아내면서 이 지역에 새롭게 확보한 땅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新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 간접지배 중이던 ‘말갈’을 복속하였기 때문에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북방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⁷⁶ 또한 고구려의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말갈’에 대한 통제가 실패하였던 것도 신라가 순조롭게 북진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⁷⁷

한편 신라가 영동지역을 통하여 함경도 함흥의 황초령과 이원의 마운령까지 북상하였던 사실이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黃草嶺巡狩碑』와 『摩雲嶺巡狩碑』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비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호를 요청하는 사신(和使)이 서로 통하여 왔다.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신구민(新古黎庶)을 撫育하였으나 …”라고 하여 ‘新古黎庶’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黎庶는 黎民 또는 庶民으로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봉평비』의 奴人과 달리 재지세력을 新民(黎庶)로 표현하였다.⁷⁸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왕비』에서는 舊民에 대응하여 신복속지의 재지민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없이 新來韓穢로 표기한 것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복속민에 대한 차별적인 대민관이 앞선 시기에 비하여 해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⁹ 비

74 李炯基, 2002,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항방 - 東海市 湫岩洞古墳群 出土品을 중심으로 -」 『韓國上古史學報』 38, 114~115쪽; 尹星鎬, 2011, 「新羅의 大加耶 복속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55, 24~26쪽.

75 ①牛首州(춘천), ②平原郡(원주), ③奈吐郡(제천), ④斤平郡(가평), ⑤楊口郡(양구), ⑥狝生郡(화천), ⑦大陽管郡(회양), ⑧母城郡(김화), ⑨冬斯忽郡(창도), ⑩客連郡(회양)으로 비정된다(윤성호, 2017b,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251쪽).

76 俞元載, 1979,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 29, 19쪽.

77 이강래, 1994, 「삼국의 성립과 영역 확립」 『한국사 3.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한길사, 222쪽.

78 盧重國, 1992, 「黃草嶺 眞興王巡狩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81쪽.

79 余昊奎, 2009, 앞의 논문, 15쪽.

록 지리적으로는 강원 영동지역의 북쪽인 함경도 일대에 해당하지만, 신라는 신복속지에서 재지세력을 보다 강력하게 재편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⁰ 이러한 정황을 통하여 신라가 10군에 해당하는 강원 영서지역에 진출한 이후에도 유사한 시도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고구려가 ‘말갈’을 동원하여 전투를 벌이는 기사는 전대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568년에 북한산주를 남천주(이천)로 이치한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의 공세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590년대의 고구려 溫達의 공격이나 603년 北漢山城 전투 등 한강 유역의 충돌뿐만 아니라 7세기 전반에도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투가 발생한다.⁸¹ 그렇지만 철원과 안변을 연결하는 추가령구조곡 이북 지역과 강릉~안변 이북 동해안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는 재지세력은 여전히 신라를 위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말갈’을 동원한 것을 명시한 기사가 확인되지 않지만 다음의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F. 건복 28년(611) 신미에 (유신)공의 나이 17세에 高句麗·百濟·靺鞨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쳐들어온 적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홀로 中嶽 석굴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하고는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⁸²

F 기사의 내용은 김유신의 유년기를 후대에 부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인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⁸³ 그렇지만 7세기 전반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 말갈로부터 국경을 공격 받았다는 신라인의 인식이 투영되었을 것이며, 여기서 고구려가 여

80 영동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과 고구려와의 경계의 변동은 사료를 통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단, 치소의 변동을 추정해 본다면 悉直州(삼척, 504년)→比列忽州(안변, 557년)→達忽州(고성, 568년)→(히슬라주?)→北小京(강릉, 639년)→何瑟羅州(강릉, 658년)→河西州(강릉, 665년 이전)→明州(강릉, 757년)와 같이 안변~강릉까지의 신라의 북쪽 경계의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강릉읍성에 대한 조사에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고구려(계) 연화문와 당이 수습된바 있다(江原考古文化研究所, 2016, 『江陵邑城 -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22~123쪽). 이러한 유물을 통하여 실직주가 설치되고 신라가 551년에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이전에도 강릉 일대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거나, 혹은 신라가 재지민에게 신라의 문화를 완전하게 이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81 윤성호, 2019a,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168~187쪽.

82 『三國史記』 권41, 列傳2, 金庾信 上.

83 朱甫暉, 2007, 「金庾信의 政治指向」 『新羅史學報』 11, 7~8쪽.

전히 전투에 ‘말갈’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말갈’을 고구려, 백제와 병기하여 별개의 세력인 것으로 부기하였는데,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이나 별개의 재지세력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한편 655년에는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이후에 처음으로 고구려가 말갈을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기사가 확인된다.

G-1. (태종무열왕) 2년(655) 高句麗가 百濟와 靺鞨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 왕이 唐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⁸⁴

G-2. (보장왕) 14년(655) 봄 정월. 이에 앞서 우리(高句麗)가 百濟·靺鞨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33성을 빼앗았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⁸⁵

G-3.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에 왕은 何瑟羅의 땅이 靺鞨과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기고 (小)京을 폐지하여 주로 삼고 도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悉直을 北鎮으로 삼았다.⁸⁶

G-1·2 기사는 신라가 고구려와 당의 관계를 의식하여 마치 고구려와 백제가 연화한 것처럼 꾸며서 당과 외교적인 밀착을 시도한 허구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⁸⁷ 이와 다르게 33성은 백제가 확보한 것이나 고구려를 끌어들이어서 당에 적개심을 자극하려는 방편일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였다.⁸⁸

그러나 사료를 그래도 신뢰한다면, 신라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투 직후에 신라는 당에 구원을 요청하고 당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고려한다면 북쪽 변경 33성이 대당교섭의 창구인 당항성과 한강 유역일 가능성도 있다.⁸⁹ 그렇지만 임진강을 경

8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2년.

85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14년.

8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5년.

87 李昊榮, 1982,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 : 1997, 『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354~355쪽 ; 방용철, 2016,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62, 280~288쪽.

88 徐榮一, 2001, 「6~7세기 高句麗 南京 考察」 『高句麗研究』 11, 40쪽.

89 김주성, 2003, 「지배세력의 분열과 왕권의 약화」 『韓國史』 6-百濟, 國史編纂委員會, 105~109쪽 ; 鄭媛朱,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23쪽.

계로 대치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한산주 일대의 33성을 신라가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⁹⁰

이러한 점에서 G-3 기사에서는 무열왕 5년(658) 3월에는 何瑟羅의 땅이 말갈과 맞닿아 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선덕왕 8년(638)에 하슬라주에 北小京을 설치한바 있는데, 소경을 폐지한 것은 동해안 방면에서 고구려와 이에 연계된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어의 중심을 하슬라(강릉)에서 실직(삼척)으로 다시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G-1·2 기사의 33성은 강원 영동지역과 추가령 구조곡 일대로 추정되므로,⁹¹ 신라는 고구려와 ‘말갈’에게 하슬라 북쪽 지방을 상실하였고, 백제는 신라를 측면에서 교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가 멸망한 이듬해인 661년에는 위기감을 느낀 고구려가 신라의 한산주의 술천성과 북한산성을 급습하는데, 고구려의 마지막 대신라전에서 말갈이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

H-1. (태종무열왕) 8년(661) 5월 9일[또는 11일이라고도 하였다]에 고구려의 장군 惱音信이 靺鞨의 將軍 生偕와 함께 군사를 합하여 述川城을 공격해 왔다. [뇌음신이] 이기지 못하자 北漢山城으로 옮겨가서 공격하는데, 포차를 벌여놓고 돌을 날리자, 그것에 맞는 성가퀴나 건물은 그대로 부서졌다. ...⁹²

H-2. (보장왕) 20년(661) 여름 5월에 왕이 장군 惱音信을 보내 靺鞨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의 北漢山城을 포위하여 열흘이나 풀어주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식량길이 끊겨 성 안에서 매우 위태롭게 여겼다. 갑자기 큰 별이 우리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벼락이 치니 뇌음신 등이 의심하고 두려워 뒤로 물러났다.⁹³

H-3. 高句麗와 靺鞨이 신라의 정예군이 모두 백제에 있으니 나라 안이 비어 있어 공격할 만하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하여 北漢山城을 에워쌌다.

90 고구려와 백제가 대략 16~17개소의 성을 각각 점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구려는 강원도 중부 산악지대를 통해 남하하여 충청북도 북부지역까지, 백제는 충청북도 남부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최준경, 2005, 「5세기말엽 7세기중엽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남방진출연구」 『고구려사연구논문집(2)』, 사회과학출판사, 219쪽). 다만, 고구려가 다시 강원지역을 통하여 소백산맥 일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1 윤성환, 2010, 「650년대 중반 고구려의 대외전략과 對新羅攻勢의 배경」 『국학연구』 17, 164~166쪽 ; 金德原, 2016,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38쪽.

9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년.

93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0년.

고구려는 그 서쪽에 진영을 두고 말갈은 그 동쪽에 주둔하면서 열흘 동안 공격하니 성안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⁹⁴

H4. 唐의 군사가 百濟를 평정하고 이미 돌아간 뒤에 新羅王이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百濟의 잔적을 쫓아 잡게 하고 漢山城에 주둔케 하니, 高句麗와 靺鞨 두 나라 군사가 와서 (성을) 포위하여 서로 싸웠다. ...⁹⁵

H 기사군은 661년에 고구려의 장군 惱音信과 말갈의 장군 生偕가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述川城(여주 파사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자, 방향을 돌려서 北漢山城(서울 아차산성)을 포위 공격하여 실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말갈의 인물 중에서 장군의 칭호가 기록되었다.

고구려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성에 거주하며 지역민을 통치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한 지역은 재지세력 부락의 수장을 매개로 간접지배가 이루어졌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 과정에서는 粟末靺鞨이나 白山靺鞨을 원활하게 지배하며 전투에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말갈은 고구려민으로서 보다 밀착된 지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H 기사군에서 말갈의 생해가 강원지역 재지세력인 ‘말갈’인지 여타 말갈세력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말갈의 장군으로 표기된 것을 통하여 말갈의 위상도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⁹⁶ 한편 H-1 기사에서 고구려 뇌음신과 말갈의 생해가 방향을 달리하여 술천성을 공격한 것으로 생각된다. H-3 기사를 통하여 고구려의 水軍도 동원되었으며,⁹⁷ 말갈이 동쪽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육로를 통하여 우회 공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앞서 660년에 신라의 七重城을 격파하여 확보된 양주를 지나는 교통로를 따라 남진하여 고구려의 지상군과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한 수군이 공동작전을 시도한 것이다.⁹⁸ 그렇다면 생해는 한강 유역의 지리적인 상황에 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동지역의 대당전투에 투입되는 말갈과는 구별되는 임진강-한탄강

94 『三國史記』 권42, 列傳2, 金庾信中.

95 『三國遺事』 권1, 紀異1, 太宗春秋公.

96 김현숙, 2005, 앞의 책, 475~476쪽.

97 황보경, 2015,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역사자료로 본 삼국과 한강』, 주류성, 38~39쪽.

98 고구려와 말갈의 육상 진격로와 관련하여 남한강을 따라서 화천-춘천-홍천-횡성-원주-여주를 통하여 술천성을 공격하였다는 견해(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242쪽;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329~330쪽)와 화천-춘천-홍천-양평으로 우회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화」 『역사와 현실』 84, 196쪽). 그렇지만 영서 내륙으로 고구려가 침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竹嶺 일대를 점령하여 신라의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회하여 남한강 하류의 南川州 일대를 공격하였는지 의문이다.

혹은 추가령구조곡 북쪽 영서지역 또는 함경도 일대의 재지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668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전쟁을 통하여 다시 신라가 당과 충돌하는 시기에는 말갈은 당에 부용된 세력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갈의 경우 중국 정사에 등장하던 숙신계 말갈로 강원 영서지역 재지세력과는 무관한 존재일 것이다. 다만 이와 다른 ‘말갈’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1. (문무왕) 15년(675) 靺鞨이 阿達城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城主 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⁹⁹

I-2. … 백제가 멸망한 후에, 漢州 都督 都儒公이 (문무)대왕에게 청하여 소나를 아달성으로 옮기어 북쪽 변방을 막도록 하였다. 상원 2년 을해(675) 봄에 阿達城 太守 級滄 漢宣이 백성들에게 어떤 날에 모두 나가 삼을 심도록 명을 내리고, 또 이 명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하였다. 말갈의 첩자가 이것을 알고 돌아가 자기 추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날에 이르러 백성이 모두 성을 나가 밭에 있었다. 말갈이 군사를 숨겼다가 갑자기 성에 들어가 온 성을 노략질하니, 노인과 어린아이가 허둥지둥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소나가 칼을 휘두르며 적을 향하여 …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니, 소나의 몸에 박힌 화살이 고슴도치 같았다. 마침내 꺼꾸러져서 죽었다.¹⁰⁰

I 기사군은 나당전쟁 기간 중인 문무왕 15년(675)에 당의 작전과 무관하게 ‘말갈’이 단독으로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에 비정되는 아달성을 공격하였고,¹⁰¹ 이에 저항하던 신라의 소나가 전사한 내용을 전한다. 여기서 신라의 변경을 공격한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고구려 멸망 후에 통제력이 느슨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공세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정황상 강원도 북부 또는 함경도 일대의 재지세력으로 생각되므로,¹⁰² 앞서 살펴본 H 기사에서 언급된 말갈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¹⁰³

99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100 『三國史記』 권47, 列傳7, 素那.

101 鄭求福 外, 1994, 『譯主 三國史記』4 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783쪽.

102 선석열, 2010, 앞의 논문, 30~31쪽.

103 앞선 시기의 사례이지만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三年山郡(보은)의 古干(外位 11관등 중에서 3위) 도도와 같이 외위를 받은 재지민이 백제 성왕을 죽이는 공을 세우는 내용이 확인된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삼년산군은 5세기 중반에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지역으로 진출하여 거점으로 확보한 신복속지에 해당하는데, 고구려가 기왕에 ‘말갈’을 부용세력으로 전투에 동원한 것과 신라가 재지세력의 지방민으로 편제한 후에 군사적으로 동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신라는 九誓幢을 편성하면서 신문왕 3년(683)에 靺鞨國人을 黑衿誓幢으로 편성한 것과 같이 나당전쟁 이후에 흡수된 추가 말갈 세력도 신라의 주민으로 편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¹⁰⁴ 결국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은 牛首州가 설치되어 지방통치가 공고해 지는 선덕왕 6년(637)에 영서지역의 재지세력은 신라의 지방민으로 편제가 일단락되었을 것이다.¹⁰⁵

680년 발해가 건국되면서 신라의 북방 3주에 해당하는 漢州, 朔州, 溟州 이북의 세력은 발해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라가 발해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언급되는 말갈의 경우 통칭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발해의 남쪽 변경에 해당하는 세력의 경우 고구려의 간접지배에 있던 재지세력이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에 확인되는 I 기사의 ‘말갈’과 같은 세력을 포함하여 신라와 경계를 접한 강원도 북부-함경도 지역의 말갈은 발해의 지방세력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5세기 후반부터 영동지역과 남한강 상류로 영향권을 확대해간 신라는 551년 이후에 강원지역의 고구려 세력을 축출하고, 기왕의 재지세력을 신라의 지방민으로 편제하여 갔다. 결국 강원지역 재지세력은 삼국의 각축 과정에서 주변국에 서서히 흡수되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신라의 지방세력이 되면서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삼국의 항쟁 속에서 강원지역 재지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강원지역 재지세력은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부터 ‘靺鞨’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중국정사에서 등장하는 말갈과는 차이가 있는 세력이지만, 고구려를 기준으로 변경의 다원적인 불특정 집단인 피지배민에 대한 汎稱으로 생각된다.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인 ‘말갈’은 小國이나 古代國家 단계의 정치체를 형성하지 못한 반독립적인 세력이었다.

104 『三國史記』 권40, 雜志9, 武官.

105 심재연, 2008, 「6~7세기 신라의 북한강 중상류지역 진출 양상」 『신라문화』 31, 77쪽.

그렇지만 삼국간의 항쟁이 본격화되는 4세기경에 백제가 북한강 유역으로 먼저 진출하여 특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배를 시작하였고, 4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영동지역의 재지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엽에 고구려도 본격적으로 강원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에 사용된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재지세력을 간접지배하게 되었고, 이들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간접지배 하에서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은 고구려의 주민과는 차별적인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은 6세기를 전후하여 소백산맥 이북의 남한강 상류로 신라가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백제와 신라가 6세기 중반에 고구려를 임진강-한탄강-추가령구조곡 일대까지 큰 군사적인 충돌 없이 밀어 올릴 수 있었다.

강원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후 추가령 구조곡 일대를 기준으로 철원과 안변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서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면서 양국 간의 경계가 고착화되었다. 신라는 기왕의 백제나 고구려와 다르게 재지세력을 보다 강력하게 지방민으로 흡수한다. 결국 한강 유역의 新州인 北漢山州가 漢山州와 牛首州로 분리되는 637년경에는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을 지방민으로 편제하는 시도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신라가 복속하지 못한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일대의 재지세력은 발해가 건국되면서 발해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와 같은 삼국간의 항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은 소멸되었다. 그렇지만 삼국의 성장과 팽창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배체제로의 흡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이 강력한 구심점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각각의 세력들은 삼국의 틈바구니에서 자구책을 구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재지세력의 동향을 통하여 강원지역은 한국 고대에서 변경의 고립된 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삼국간의 중요한 요충지 내지는 문화적 통로로서 의미를 지닌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金貞培, 1973, 『韓國民族史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尹星鎬, 2017a,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編, 乙酉文化社.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 최종택, 2014,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학연문화사.
- 孔錫龜, 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扶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研究』 70.
-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 49.
- 금경숙, 2001,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靺鞨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11.
- 金鎭光, 2009,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5.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動」 『韓國古代史研究』 51.
- _____, 2018, 「맥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 _____, 2018, 「『三國史記』 소전 '貊國'의 실체와 傳承 경위」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 박물관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盧重國, 1992, 「黃草嶺 眞興王巡狩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盧泰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 _____,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 文安植, 1996, 「嶺西濊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的 背景」 『東國史學』 30.
- 朴京哲, 2004, 「濊貊 · 夫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 『高句麗研究』 18.
- 徐榮一, 2001, 「6~7세기 高句麗 南京 考察」 『高句麗研究』 11.
-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 신광철, 2015,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 심재연, 2008, 「6~7세기 신라의 북한강 중상류지역 진출 양상」 『신라문화』 31.
- 余昊奎, 2009, 「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화」 『역사와 현실』 84.
- 俞元載, 1979,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 29.
- 尹星鎬, 2011, 「新羅의 大加耶 복속 과정 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55.
- 윤성호, 2017b,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 _____, 2019a,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 _____, 2019b, 「5세기 중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 『전북사학』 55.
- 李康來, 1985,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嶺土問題研究』 2.
- _____, 1994, 「삼국의 성립과 영역 확립」 『한국사 3.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한길사.
- 李宇泰, 1992,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 - 也 尙次의 功籍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 『泰東古典研究』 8.
- 李弘鍾, 1988, 「“三國史記” 靺鞨기사의 考古學的 接近」 『韓國史學報』 5.
- 전덕재, 2009, 「牛首峯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江原文化研究』 28.
- 전진국,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 - 출신지와 고구려의 인식을 중심으로 -」 『高句麗渤海研究』 48.
- 朱甫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 『韓國古代史研究』 2.
- 최준경, 2005, 「5세기말엽 7세기중엽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남방진출연구」 『고구려사연구논문집(2)』, 사회과학출판사.
-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釜山史學』 14 · 15.
- _____, 2013, 「『三國史記』의 靺鞨 문제」 『인문학논총』 31.
- 한지선, 2018, 「한성백제기 강원지역 물질문화와 지역 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 박물관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종합토론 녹취록





종합토론 참여자

좌장 박순발 / 충남대학교

발표 김장석 / 서울대학교

고영민 / 국립김해박물관

전진국 / 충북대학교

신광철 / 국립경주박물관

윤성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토론 김재홍 / 국민대학교

정인성 / 영남대학교

윤용구 / 인천개발공사

황보경 / 세종대학교 박물관

김창석 / 강원대학교

박순발 종합토론 먼저하고 개별 발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개별 발표를 듣고 나면 이거 별거 없겠다 해서 그냥 가자 뭐 하는 이런 경우가, 저도 왕왕 그랬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발표, 내지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양 학회에서(고대사, 상고사)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로서 강원학연구센터, 그리고 그 물질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대국민들 창구가 되는 국립춘천박물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학회의 중요한 고대사 학회까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모았을 때는 분명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소임은 오늘 오전에 다섯 가지의 개별 주제로 발표된 것, 그 전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앞에 있는 플랭 카드에 써있죠.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 이 강원은 강원인데 고대 강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시간적으로 특정해서 고대 강원이라하는 이 지역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느냐, 문제는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하지 않겠냐. 그 주체와 관련해서 작년도 1회 때 이미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예(濊)다, 맥(貊)이다, 애매하다...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러나 있긴 있었잖아요. 이름은 애매하더라도 그것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상 위에 게시지 않을 것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발표하신 것은 일종의 전체적인 방법론적인 것. 작년을 포함해서 작년에 왜 그만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마치 학사, 한국 고고학사 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사의 대강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정리했던 것이 첫 번째 김장석 선생의 발표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법론적인 검토를 전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이후의 문제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전에 말하자면 심포지엄을 계획할 때 그와 같은 강원지역의 어떤 실체, 이따가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정치체 혹은 집단 뭐 인간집단이겠죠 그 실체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형성과정에서의 대외적인 여러 관계들, 혹은 내적 통합력 외적 푸쉬하는 혹은 그걸 촉진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중심으로 한 쪽지로 만들자가 두 번째 발표인데,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니고 상당히 강력한 무언가의 문화, 구체적으로 옥저문화(沃沮文化)라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실체의 형성과정에 관련한 요소들을 찾아보자 이것이 문화적 요소이든 뭐 여러 가지의 것이든.

세 번째는 그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는 문헌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었는가. 그거 역시 작년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칠건 처내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세 번째 발표였습니다. 이 세 번째 까지는 전부 뭐였습니까? 교류를 분석하기 위해, 교류를 파악하기 위한 주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가 형성되고 난 이후는 두 단계로 나뉘보자. 이 두 단계라 하는 것은 강원지역의 어떤 실체뿐만 아니고 그걸 둘러싼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삼국이라 하는 국가단계의 정치체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 3세기 정도까지 잘라봤습니다. 그 이후에, 삼국간의 쟁패가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강원지역은 어떻게 역할을 했고 어떤 대응안을 가졌는가 이것이 전체 오늘 살필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각 발표를 하였고, 각각 발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전에 약정하신 토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토론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강원 지역의 정치체, 혹은 강원지역의 어떤 것이 대외관계 파악하는데, 전체 말하자면 주제에 직접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나 혹은 개별 그것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개별 발제에 대한 진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토론자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대체로 그 팩트 중심으로 혹은 그 사실관계 내지는 가부관계 뭐 이런 중심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남겨놔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외교류라는 이 주제에 맞는 것은 재론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은 하고 이렇게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질문 속에 이런 건 지금 하는 게 좋겠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토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생략해도 좋다하시면 스스로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선설이 길었던 이유는 이후 정리를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김재홍 교수님께서 김장석 교수께서 주로 방법론적인 것을 하셨으니까 그에 관련된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재홍 김장석 교수에 대한 논의를 제가 몇 줄 썼습니다만은, 저보다 좌장선생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셔서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 보완할 점은 실은 상당히 많은 양을 서구 고고학사 발달에 대해서 이 주제와 연관 지어 다루었습니다만, 제 능력도 부족하고 특히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문헌사적 입장에서 비판적인 토론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꼭 따로 한번 김장석 교수님과 이야

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김장석 교수님께 학회 입장에서 죄송한 점은 굉장히 다른 발표자에 비해서 촉박하게 이론적인 문제를 하는 바람에 실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해서, 걱정도 됐습니다만은 또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이론보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 지금 김장석 교수님께서 종족성(種族性)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시는 서술인데요, 1번부터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중도문화유형(中島文化類型)을 종족성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지만, 한편으로 인정하시면서 서술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제가 대외교류이지만 종족성 전체를 정리해줘서 나머지 4개 발표를 잘 이끌어주셨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기획의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자면, 적석분구묘(積石墳丘墓), 철(凸)자형주거지, 중도철기(中島鐵器) 등이 분포화 되어있지 않고, 또한 강원도 문화도 지금 남북이라든지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성에 대한 비판을 하십시다만은, 이렇게 앞으로 결국은 종족으로 다시 환원되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고고학적 자료가 증가되면 역으로 세부적인 차이점은 점점 부각될 터인데 마지막 이론과 더불어서 가설로 제시한, 결국은 예(濊)족과 마한(馬韓)의 이분법적인 것이 효용을 가질까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종족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의 요소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마한문화를 다른 분들과 굉장히 독특하게, 뭐 저는 교역과의 관계에서 한식묘(漢式墓)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변한(弁韓)도 소위 말하는 구야국(狗倭國) 중심의 교역망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늑도(勒島) 얘기가 나와서, 아마 늑도는 변한과 관계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경남 합천이나 거제에서 마한유형 주거지와 토기가 한, 두기가 아니라 집단성을 유지하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를 마한, 변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관계 없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장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구요, 3번은 아까 일부 내용을 보완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큰 문제기 때문에 이 내용과 문헌사학이 이번에 실은 김장석 교수가 마지막 결론에서도 비판하신 내용이신데,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박순발 그건 재론으로 하시죠.

김재홍 네네.

김장석 네.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글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은 종족성(種族性)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자료를 일대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었죠. 어떤 경우에는 종족성이 물질문화를 잘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어느 정도까지 식별이 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고 제 글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예계(濊系)’ 집단이란 말을 쓴 바가 없습니다. 예계 집단은 그 전에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라는 것이 ‘예계’ 집단과 연결되고자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뒤에 제 얘기를 할 때는 ‘예계’ 집단이라는 것을 쓰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유형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복잡해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헌사에 나오는 주체가 세 개가 되었던 네 개가 되었던 적어도 큰 틀에서의 지역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경기 남부, 호서, 호남 그 일대의 물질문화와, 물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여(呂)자, 철(凸)자형 주거지가 얘기하는 두 집단을, 사람이 되었건 종족이 되었건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을 맺느냐가 결국 오늘 학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아까 예계 집단,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굳이 얘기를 쓴 것은 아주 간단하게도 그것들이 예계 집단과 중도유형문화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 학사적인 이론을 말했던 것 이구요, 제가 볼 때는 예계 집단으로 환원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유형문화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느냐 현재로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이 어떠한 하나의 물질문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나면 그것들은 당연히 문헌에 나오는 어떤 집단과 연결을 시키고자 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그 세부적인 다양성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문헌에 나오는 집단과 연결시키는데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도유형문화와 이해집단을 연결시키는 박순발 선생님의 의견은 굉장히 탁견이고 고고학계에, 고대사학계 모두에게 환영받을 굉장히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완되어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홍 선생님이 제 뜻을 약간, 제가 글을 너무 급하게 쓰는 바람에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왜 마한을 한꺼번에 통칭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남해안 쪽에 나오는 다른 것들, 변한과 진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글썬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일본계 유물들이 늑도에서도 나오구요, 마한계 유물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김포라든가 영종도 일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들은 한곳의 유물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무역항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물들이 곳곳에서, 뭐 상인집단에 의해서, 이걸 전달했던 사람들의 거소(居巢)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문화들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공존하는 흔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것과 그 중국 측에서 해상교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또 다른 기준이 되겠죠. 사서에서 보면 마한이 가장, 진한 변한에 비해 앞서서 굉장히 가장 남한 지역의 맹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마 그 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거리상, 지리상 해상교역의 강도가 서해안 일대가 가장 강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한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아마 해로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지역적 거리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집단들이 또 분명히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주로 교역하는 입장에서 진한, 변한 얘기할 때 철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철이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다른 집단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한이나 진한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발 아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사실 김장석 선생의 새로운 물질문화가 전부다 종족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걸 뭐 별도로 내서 영향가 높은 SCI 이런 데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별 토론은 여기서 그다지 심도 있게 할 여유도 없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오늘 모여 앉은 대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문제가 지금 나왔지만 지금 이걸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같이 합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은 이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어떤 물질문화라 하고, 물질자료라 하는 이것을 그냥 개별 유물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걸 뭔가 나름대로 개념화 시켜서 단위를 만

들어 내는데 이걸 이제 데이비드 클라크(D.Clark)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폼, 형태 단위라는 얘기로 합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건 속성이다, 어떤 건 형식이다, 어떤 건 어셈블리다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박물관에서 보는 것은 안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념화 시킨 것이 바로 무슨무슨 유형, 무슨무슨 문화인데 이 문화, 혹은 유형 이것은 도대체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하나의 논점으로 봐야합니다. 있다면 이것은 인간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 어느 정도 인간집단의 범위와 관련이 되어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종족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형분류를 하는데, 그 어느 단계로 볼 것인가, 이건 사실 암묵적으로 있으면서 한국 고고학에서도 대단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사고고학에서도 이게 뭐다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걸 추출하고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은 이게 중도유형이다, 이건 뭐다 그럼 뭐 그개 범위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역사 시대 들어와서 이게 문헌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인간 집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맥이라 불렀든 예라고 불렀든 그건 이차적인 문제고, 그걸 A라 대명사를 붙이든 B라고 붙이든 이것이 고고학 단위로, 형태 단위에서 어느 수준의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예(濊) 집단이고 이건 뭐, 이렇게 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다 복안이 있을 거예요 고고학자는. 그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삼국지 동이전, 시공을 정하겠습니다. 그 상에서 등장하는 인간집단들을 우리가 종족이라고 가칭하겠습니다. 영어로 Ethnic group, Ethnic unit라고 합니다만, 바로 종족이다 아니라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대표로 하는 Ethnography 당시의 중국사람 눈에 보였던 Ethnography 상의 인간 집단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고고학 형태 단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것인지에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텐데, 먼저 김장석 선생의 의견을 듣고, 고고학자가 먼저 선행해서 말해주면 좋고 거기에 합치가 되거나 모순이 되거나 그러면 제가 개입하고, 그리고 고대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김장석 제가 글에서 썼습니다만은, 물질문화(物質文化)는 당연히 지역성(地域性)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성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 조사들에서도 종족과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되는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

스테리앙 논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빈포드(L. Binford, 1931-2011)와 프랑소와 보르두(F. Bordes, 1919-1981)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와의 논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유사한, 아마 거리상으로 5~10, 10~20km 떨어진 한 지역에 서로의 두 개, 정말 생긴 것이 다른 유물(遺物) 복합체(複合體)가 있었죠. 유물 생김새도 다르고, 복합체의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랑소와는 일종의 문화사 고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작 전통을 가지고 만들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집단이 공존했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빈포드죠. 유물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유물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발 아, 잠시만. 이 너무 그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학사 논쟁이나 그 새로운 어떤 이론의 타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Critical)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가령 국가 단계는 우리가 이게 백제 토기다, 고구려 토기다 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국가 단계 수준의 어떤 정치체예요. 그 정치체에는 물질문화상의 변별력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김장석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박순발 반드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 고고학을 하면서 야 백제 토기 모르겠다, 신라 토기 모르겠다 이러면 아마 교수가 되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리티컬한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국가 단계보다는 더 큰 단계는 어떠한,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는 어떠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선사시대에 혼암리 유형은 그럼 그 종족집단은, 물질문화를 영위하는 어떤 성격이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복잡한 문제겠고, 특히나 무스테리앙 같은 그 이전 단계, 그리고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그 점선을 넓히지 말고 한국 고고학에서 그걸 지금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단속하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위지 동이전상에서 나온 종족이 입증된 게 있죠. 한전이 있고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그리고 동예, 옥저, 고구려, 부여 다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물질문화 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것, 어느 정도입니까? 고고학자로서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김장석 물질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떻게 세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불렀던 옥저니 예니 마한이니 진한이니 변한이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쉽게 된다면...

박순발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불가지요? 그겁니까?

김장석 아니 불가한건 아니구요 어차피 나중에 나올 얘기일 것 같아서 저도 좀 아껴놓고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불가지론(不可知論)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아까 박순발 선생님의 공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고구려 토기와 백제 토기를 구분한 것이 굉장히 커다란 공헌이구요, 그 다음에 ‘예’와 ‘마한’을 구분하셨습니다. ‘예’라는 말을 쓰기가 껄끄러워서 아마 예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변별을 하면서 삼국사기(三國史記)를 고고학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사학자들에게도 삼국사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진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고 그것들이 차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모든 것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는 사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순발 오케이, 일단 지금 아까 발표하셨을 때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사적인 내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당면의 문제는, 예를 들면 종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예(豫) 혹은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이렇게 물론 마한 자체의 성격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위치 동이전 수준에서 어떤 종족이라고 변별을 해냈는데 그것은 현재의 진행형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민속학적으로 바깥인의 눈으로 뭔가를 범주화 시켜놓은 것이죠. 그것이 고고학자들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역시 물질문화만 남아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그와 같은 범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범주화 시킨 어떤 인간집단과 그 인간집단과 관련된다고 하는 물질문화를 우리가 적어도 확실치는 않지만, 원인에 대해서 확실치 않지만 그조차 변별 못한다 하면 고고학은 그야말로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역사시대 고고학은. 그렇다고 고고학 설자리가 없으니 억지로 만들자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나, 혹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실험적인 변형을 해야되느냐 그 문

제예요. 적어도 김장석 선생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떤 인간집단과 그 인간집단에 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 자료들의 어떤 패턴, 정형성 이것은 관계있다. 당연히 있다고 하는거죠?

김장석 네.

박순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마한’ 이러는건 다른 문제가 또 되는거니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낙랑 토기를 보고 아 이진 낙랑에서 내려온 것이로구나, 아 이진 고구려 토기구나, 고구려와 관련되는거야, 이 정도는 다 한다는 말이죠.

김장석 하죠.

박순발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걸 하지 않고 왜 그런 현상이 특히 토기를 둘러싸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지 논리적인 보강을 위해서 한마디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성 네, 정인성입니다. 좀 전의 이야기가 결국 고고학적인 물질문화의 패턴을 가지고 종족성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시기별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께서 정리를 다 하시고, 질문을 바꾸시니까 어떤 대사를 해야 할 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신 것처럼 고대국가 형성기의 신라, 가야, 고구려 등 이런 국가들의 토기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있죠. 그중에서도 가야, 대가야, 소가야 여러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세계에 나오는 소국이나 국(國)의 세계는 인지할 수 있는, 물질자료와 소위 말하는 국(國)하고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중도유형이라는 것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되니까 불거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변한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마한도 사실은 긴 영역을 따라서, 사실은 조금 지역별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진·변한같은 물질문화가 있죠. 낙랑이 따로 있고, 토기를 통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만, 문제는 중도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동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질무문토기가 현저하게 나올 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런 중도유형 자체

가 사실은 영서지역을 넘어서 한강 하류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이 고고학적으로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동이전의 세계에서 보이는 국은 토기 자료로 사실은 가늠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고학에서 정리를 할 뻔했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개성 부근까지 이런 여(呂), 철(凸)자형 주거지가 나오고, 경질무문토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 오니까 마한, 예 이런 구분들이 애매해 진 것입니다. 요는 김장석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동이전의 세계에서는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게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특히 현저한 것이 중도식문화가 사실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순발 아 제가 질문한 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토기상에서 토기가 낙랑토기(樂浪土器)고 국가단계에 들어가면서 토기가 비슷해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걸 고고학개론서에서 늘 말하지요. 근데 그에 대한 매커니즘을 좀 설명하면서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빼 먹었어요.

정인성 아까 선생님께서 중도식토기문화(中島式土器文化)에서 경질무문토기, 즉 산화염토기(酸化焰土器)토기가 나오는 그런 가내수공업에서의 어떤 토기 생산과 국가가 토기생산을 관장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통망이 확대되고 국가의 공권력이 이르는 그런 범위에서의 물질문화, 특히 토기문화가 사실은 광의의 범위에서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저 보고 다시 한번 해달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발 아 그거 너무 이상하게 말하는데,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따가 문제가 다시 나오지만, 중도유형(中島類型) 혹은 중도식토기(中島式土器)라는 것이 저 위에 옥저도 있다 심지어 제주도 괄지패총(郭支貝塚)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계통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토기생산체제라 하죠, 우리가 토기생산체제라는 말을 고고학적으로 많이 되뇌이고 많이 씁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한국 고고학에 묻혀있는 상황과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건 딱 데로 흐르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이 변하는 게 있고 그 사이드에서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변별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고고학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차례대로 먼저 말씀하시겠다는 분은 하세요. 당면한 문제는 아시겠죠? 종족

성이라고 표현된 것과 물질문화 관계는 부정한다,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된다, 어느 정도, 이런 수준...

김창석 사회자 선생님께서 삼국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예(濊)같은 경우는 이건 종족 범주구요, 고구려나 부여, 마한, 진한, 변한도 사실은 종족 범주가 아니라 그것은 정치체의 범주입니다. 마한 동맹체, 진한 연맹체, 소위 종족하고 정치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전제해야 할 것 같구요, 삼국지 같은 경우는 종족과 정치체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고대의 종족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濊), 하나는 맥(貊), 하나는 한(韓)입니다. 각각의 종족이 여러 개의 다수의 정치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족이 형성시킨 정치체로는 삼국지에 나오는 동예(東濊), 그리고 옥저(沃沮), 부여(夫餘)도 예계의 정치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종족은 훨씬 범주가 큰 것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정치체는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떨어지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치체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물질문화의 차이로 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족 단계로 올라가보면, 그것은 예를 들면 예와 맥 사이의 물질문화의 연결이 서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종족이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게 고정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김장석 선생께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적인 변화를 염두해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특히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포범위가 넓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중심 집단과 주변집단 사이에는 당연히 문화적인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성도 고려해야죠.

박순발 오케이, 지금 두 개가 섞였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종족과 정치체는 다른 개념이다. 종족은 상위, 정치체는 하위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과 물질문화의 관계에서는...

김창석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종족의 차이가 문화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정치체간의 차이보다는 작다는 것이고...

박순발 여기서 중요한, 한국 고고학에서 늘상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종족집단과 정치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김창석 선생에 대해서 김창석 선생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창석 코멘트라기보다도, 먼저 김창석 선생님한테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종족이라는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순발 예를 들어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종족이 아닌가?

김창석 말씀드렸듯이 예(濊)나 맥(貊)이나 한(韓)이라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단 예, 맥, 한은 정치체는 아니거든요.

박순발 아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걸요 다음 질문에 나올 부분이긴한데, 위지 동이전에서 문화적 그룹이라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고구려, 부여 등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착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종족이라는, 우리는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정치체라고 표현하니까 그대로 좋은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이걸 코멘트해주시죠.

김창석 예를 들어서 예족같은 경우에 예족의 정치적인 수장이라는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예족 중에서 동예 같은 경우는 읍락의 거수(擧首)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예라고 했을 때는 정치체입니다. 하지만 동예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인간집단, 이것은 종족인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지배체제랄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김창석 그러니까 종족집단이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혈연을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시는 걸로.

김창석 예. 맞습니다.

김창석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파악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각각의 개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까

지 파악해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보이니까 붙렸겠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걸 보고 편견에 사로잡혔던시간에 어쨌든시간에 나누어 놔줬죠. 그것이 아마 종족집단일 것 같구요, 정치체라하면 당연하겠지요. 어떤 정치적인 지배력을 가진 집단 및 그 정치권력이 미치는 범위 정도가 정치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치체같은 경우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많이 분화가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일겠지요. 그런데 종족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결국 종족은 혈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무언가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 보이느냐는 사실 굉장히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순발 일단 종족하고 정치체가 둘 다 어떤 관계라는거죠? 중복적인 말이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개념상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김장석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두가지 단어인거죠.

박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구하고 해서 다수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소수민족이 많은가하면 그건 중국의 정치체 통합과정과 일정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산 많고 이래서 직접 통치가 어려우니까, 심지어 명·청대까지 간접지배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치체가 강제적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한족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漢)이라는 국가 때문에 융합되어 나중에 한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제, 삼국이 왜 삼한 일통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삼국이라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겁니다. 결과적으로 종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우린 같은 종족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지 동이전 수준에는 Ethnography 밖에서 봤을 때 표리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종족성이 겉으로 드러난 그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있다는 거죠. 내재적 관점이나, 외재적 관점이나에 따라 다른데 정치체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용합니다. 어떤 시대이건간에 그 사회를 의사결정 하는 최고의 단위,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에는 밴드겠지요. 그러나 국가 사회에 이르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정치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위지 동이전 단

계의 종족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고구려 등 빠른 것은 이미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있는 반면, 어떤 종족들은 추장은 있으나, 혹은 대의는 있는데... 등등 이것이 바로 정치체를 실증하는 말이죠. 정치체라 하면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어디있느냐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말하자면 청동기시대 취락이 모여면서 정치체가 커지죠. 커져서 오늘날 군, 면, 내지는 하나의 국가로 되는데, 거기에서 종족성과 정치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계속 용어가 착종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창석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의 종족이 여러 개의 정치체를 형성할 수 있고요, 하나의 정치체 안에 다수의, 복수의 종족이 속해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구요, 그 각각이 종족과 정치체 범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분명히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영위했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순발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순발 제가 제 의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고학에서 쓰이는 라는 폴리티(Polity)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치체로 번역했어요. 그 폴리티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즉, 가장 큰 사회단위라는 것이죠. 근데 종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Ethnic 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달리 위지 동이전에서 보이는 종족은 사실은 예족이든 예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정치체이기도 하고, 정치체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몽이 문화적인 Ethnic은 부여에서 왔지만 고구려 왕이란 말이죠.

김창석 고구려 같은 경우도 맥국이라고 하거든요.

박순발 어쨌든 예든, 맥이든 그건 별도의 문제로 하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종족성과 정치체 문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면 안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치체라는 이야기는 특정한 어떤 사회의 복합수준에 대한 명칭은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있던지간에 그 사회에 유사 계층에서 최고의 단위가 된 것이 정치체입니다. 그 정치체의 형성 이면에는 분명히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 대외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집단, 그 명칭이 국가 명칭으로 되기도 하구

요, 초기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백제나 신라도 크거나 신라가 크면 다른 곳에 있던 Ethnist가 이전에 달랐던 사람들이 거기와는 같은 정치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김장석 선생이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김장석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개념과 정치체가 가리키는 개념은 다릅니다. 종족이 두 개가 섞여서 하나의 정치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서 정치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구분할 때, 즉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을 종족으로 봐야하느냐, 정치체로 봐야하느냐 이걸 이 사람들의 성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문화적으로 구분이 되어야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종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의 가나, 수단 이런 나라들, 사실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스케일에서 이야기하느냐, 실제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물질문화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다만 아까 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내의 서로 다른 물질문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구요,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분명히 서로 다른 의미에 의해 구분이 되고 있고, 그 양자가 가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어떻게든지 설명이 되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종족 집단이나 정치체냐를 가지고 무 자르듯이 구분해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순발 자 지금 무 자르듯이 이야기 하지는 게 아니고, 정치체라는 것, 그 개념과 종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관계이냐, 한국 고고학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건 더 이상 안 되니까, 제가 아는 정치체란, 특정한 사회 통합 수준에 이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 집단도 정치체는 될 수 있는데, 정치체가 혼자 있을 수는 없지만 세 사람이 있다가 열 사람이 있다가 천명, 만 명이 되면 그 의사결정을 혼자 못하는 것, 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단위가 정치체로 우리가 부르는 개념일 뿐이고, 종족성이라는 문제는 언제든지 외부에서 이걸 타자적 입장을 먼저 전제로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포

함하여 동조하느냐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정치체와 어떤 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설명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체라고 보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개념이 어떤 정치체에 이르렀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니까 혹은 종족성이라는 뭔가 문화적인 연계성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걸도는거야. 하나의 정치체, 몇 개의 정치체 등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죠. 정치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고착되면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종족성, 하나의 국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없이, 우리가 한민족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삼한시대 같으면 흔히 말하자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인데 그들은 한민족으로 생각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체와 밀접한 관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전체 진행을 위해서 이견 한번 얘기해야겠다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윤용구 네 뭐 저는 뭐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질문화, 종족과 정치체가 동일한가, 정치체와 종족은 또 어디가 상이한가의 문제인데요, 많이 한 얘기구요. 예를 들어 선비가 생겨 남하하면서 큰 세력을 만들면서 종족이자 정치체의 이름으로 선비가 되었죠. 선비족에는 과거의 초원에 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종족이 초원을 통일한 어떤 한 중심부족의 간판을 달았고 살아왔습니다.

박순발 바로 그 얘기에요.

윤용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합일점이 생길수가 없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문화와 종족,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망라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빼낼 수 있는데, 지금 대상은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을 대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결론이든 다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아까 김장석 선생님이 두 가지 의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한강유역이 아닌 남부지역의 수 없이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마한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가, 또 북쪽에서는 백제는 중도문화유형에 가까운데 왜 구분상으로는 마한으로 되어있을까 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꺼풀 벗겨 내보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한이라는 표현 안에 여러 개의 문화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얘기 해서 삼국지 동이전 안에 마한의, 그것이 종족인지 물질문화의 차이인지 정치체의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삼국지 동이전 마한전(馬韓傳) 안에 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군현에 가까운 지역과 먼지역이 주거하고 예속이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같은 마한이지만 제주도 지역은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다 하지만 다 마한이라 부른다. 그래서 마한이라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라던가 그것을 리드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한을 종족으로 혹은 정치체로 보는 이런 흔히, 지금 제가 한국 고대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한, 변한, 마한 연맹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순발 네, 지금 또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물질문화의 매칭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마한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한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별도의 문제죠. 특히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종족이라고 하는 의의가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대체로는 그것은 문화적 동질성이라는게 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로 설정하는 종족이라는 것과, 정치체라는 것과 같은 말이나 다른 것이냐... 그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물질문화에 보이는 하나의 정형성, 그걸 고고학적 문화로 가칭을 하겠습니다. Archaeological Culture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고고학적 문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유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어떤 단계의 인간 집단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계가 되느냐. 김장석 선생의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흔히 우리가 지금 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종족명인지 정치체명인지 아니면 연맹체인지 혹은 국가 단계의 어떤 정치체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있다면 복수의 고고학적 문화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고고학적 문화로 범주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개 유형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마한에 소국이 있으니까, 그 소국들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물질문화의 동질성이 있는지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간에 현재 한국 고고학에서 우리가 소국이라고 말하는 위지 동이전의 마한의 54국 등 이런 수준의 물질문화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만, 정인성 선생님 가능합니까? 어쨌든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수준까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한국 고고학 개론서에, 마한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내용을 차트로 묶어놓은 것이 있고 진한, 변한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유사성을 찾으려

고 무척 노력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하나의 말하자면 통일성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통일성 내부에서도 쪼개놓고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중도 문제와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수준, 우리가 중도 유형이라고 하는 수준의 고고학적인 하나의 말하자면 물질문화상의 어떤 형태상이, 그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범위에 어떤 성격의 인간 집단과 관계되었나 이 문제가 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문헌사에서는 어떻게 부르는데,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3,4,5의 주제가 성립가능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앞의 논쟁만 엄청 하고 작년의 재판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뒤의 논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석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용구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마한이라고 왜 통칭되었는가의 문제이구요 저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간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한으로 통칭되었느냐.

박순발 그 문제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하죠. 그건 마한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적 연맹체인지 진국인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중도 유형이라고 하는 혹은 예를 들면 삼한 지역에 보이는 예를 들면 노형토기(爐形土器), 주머니호(袋狀壺) 이런 건 우리가 영남권의 원삼국(原三國) 이렇게 말하고 동시에 영산강 유역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전남 동부지역은 또 다르게 보고, 그런 수준의 것들이 도대체 어떤 단위의 인간 집단을 대표하는가 한국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내재하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실용화 시키는 의미에서 한마디씩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있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걸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장석 저는 유형(類型)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집단을 말해야된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사를 얘기했을 때 그 자체가 어느 목적이 있었던 개념이었고 그 개념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통성으로 묶어서 하나의 지역적인 차이를 드러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니까 어디랑 연결시킬 수 있다 이 정도니까 정치체다 이 정도니까 종족이다 라고 하는 자체는 한국 자체뿐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점 여기에서 이것들이 왜 차이가 나는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 이 정도의 단위는 이 정도로 등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나타내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발 근데 지금 역시 제가 의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갈 때까지 가서 방법론적으로 완벽 뭐 이렇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수준에서 분명히 물질자료상 변별력을 부여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취지에 나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계시죠? 정인성 선생님 한마디.

정인성 좌장 선생님의 정리를 위한 노력, 그리고 윤용구 선생님이 선비족을 들어 말씀하신 내용, 김창석 선생님 말씀하신 종족과 정치체가 사실은 제법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이제 한 정치체 내에 여러 종족이 있다 그런 이야기. 대체로 이제 좌장 선생님의 의도대로 수렴되어가는 분위기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정인성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진·변한사회는 이제 와질토기문화(瓦質土器文化)로 뚜렷하게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진·변한은 분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중도식토기문화(中島式土器文化)를 설명할 때는 그야말로 김창석, 윤용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적합한 설명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발 아니 김창석 선생의 학사정리에도 나와 있지만 중도문화라는 것이 통용될 때마다 발굴장에서 자료가 많아지니까 소위 다양성이 더 부합되면서 아 이게 쪼개야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정인성 예를 들어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 자료로 소백산맥을 넘어서 영주나 이런 쪽의 중도식(中島式) 주거지하고 철기를 생산하고 토기를 쓰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위 정치체의 예라고 추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김창석 선생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되지만 전부가 그렇게 교조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아까 처음에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팩트 체크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종합적인 논의를 하자고 잡아주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순발 그래서 지금 쪼개져서 처음에는 이게 중도유형이 예하고 함의가 되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쪼개지니까 예 안에서 쪼갤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빠졌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보는지 김창석 선생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김창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라는 어떤 고고학적인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문헌에 나타나는 종족이든 정치체든 어디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경기 북부 지역, 하나는 강원도 중북부 중에 영서, 영동입니다. 제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일단 영동하고 영서는 전부 ‘예(豫)’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의 집단이 주민이었구요, 그리고 정치체로 볼 때는 영동같은 경우는 동예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대국가수준은 아니지만 동예가 있는 것이고, 영서지역에는 특별한 정치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삼국사기 초기에 맥국(貊國)이라는 게 나오는데, 맥국이 하나의 정치적 센터가 되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족으로 볼 때는 예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김창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상 마한(馬閑)이라고 되어있지만 문화양상은 다른 마한지역과는 다른, 오히려 ‘예’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지역이 일종의 접이지대(漸移地帶)였기 때문이 아닌가, 마한에서 가장 북쪽 지역이었구요, 예하고 서로 접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종족으로 따지면 한족, 예족이 섞인 상황이고 정치체로 따지면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 나오는 여러 54개 소국 중 북부에 있는, 예를 들어 신분고국(臣濱沽國) 이나 아니면 백제국이나 이런 게 중도유형문화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순발 지금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특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현안이 아니고, 단지 종래의 중도 유형 문화라고 하는 것이 뜯어보니 다른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새로운, 이것 역시 종족적인 지금 해석으로는 거의 대응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창석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시기에 따라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발 오케이 어쨌든 이게 개인의 어떤 해석,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프레임이 그대로 가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인성 선생은 다른 길로 새버렸는데, 김재홍 선생은 반

고고학 반문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고고학자로 표현을 할까요?

김재홍 오늘은 문헌상의 입장에서, 제 연구방식이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논의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연역적으로 좌장님의 전체적으로 동의하구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헌사료를 먼저 대입하고나서 세부적으로 고고학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결국 예(濊)족에서 못 벗어나고 마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고고학 발굴성과로 보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족과 정치체 다 떠나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자료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대입시키냐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지 현재 대전제인 종족, 그리고 정치체를 아까같이 꼭 그렇게, 저는 좌장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막연한 대입은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유형 문화에 대응할 부분과 세부적으로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진·변한을 차치하고 마한 같은 경우에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기존의 종족과 정치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의 문제, 김장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논의가 물질자료를 1차적인 기준을 해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큰 틀이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고 해서 폐기할 수는 없지 않나 싶구요, 빨리 2장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박순발 네. 우리의 시각 방법론, 여러 가지로 따져 보면 허점이 있겠죠. 그러나 비유가 적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 물리학의 발달, 이론 물리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뉴턴의 그 생각이 상당부분 지구 안에서의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은, 그것이 이론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허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 고고학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장석 선생님이 학사적으로 정리해 주신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문화의 단위, 그 정형성을 같이 고고학적 문화로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종족단위의 혹은 그 아랫단위의 인간집단과 연결되어도 좋은가 아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견 전혀 쓸 수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용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려고 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도 유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고고학적인 실체인데, 이 실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하는 과정, 그 형성되

는 과정의 대외적인 요소 이걸 말해주는 것이 두 번째 발제였어요. 그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펙트 중심으로 거기에서 정인성 선생이 그걸 담당을 하셨죠.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성 강인욱 선생님하고 오늘 발표하신 고영민 선생,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진한 땅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직접 발표를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결국은 강인욱 선생의 문제 제기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동해안 지역이겠죠, 중도식토기문화(中島式土器文化), 고고학자들이 중도식토기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방적인, 그러니까 소위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와질토기(瓦質土器)로 이어지는 소위 고조선과 군현과 삼한과 삼국으로 이어지는 이 일변도의 시선을 거두어야 된다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중도식토기문화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는 전부다 편년론 내지는 계보론이었다. 중도식토기문화에서 보이는 토기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문토기(無文土器), 또 하나는 회도(灰陶)입니다. 이것들이, 늦은 무문토기죠 경질무문토기. 이게 처음부터 같이 나오느냐 혹은 그 출발이 낙랑이나 뭐 이런 이야기만 정말 십수년 줄기차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만하고 소위 환동해권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동해안, 중도식토기문화가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하니, 정선 아우라지에서도 최근에 청동기 시대인데 시베리아하고 연계되는 청동기가 있다라고해서 북과 남이 통하는, 소위 말해서 서북한 지역을 통하지 않는 물질문화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사실은 청동기시대 동해안 지역의 나진(羅津) 초도(草島) 지역을 보면 하가점상층(夏家店上層)에 해당하는 동탁이라든지 이런 청동기 문화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인욱, 고영민 선생은 환동해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동해안권에 있는 북방유목민과 관련된 그런 물질문화요소는 언급을 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갔다는거죠. 이런 돌발적인 문화형성의 중층성이나 돌발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지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고조선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시베리아, 두만강 유역을 거쳐서 동해안 유역까지 옥저계 문화를 가져오면서 그 왼쪽에 고조선을 두고 중원과의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고고학적 근거가 너무 단편적입니다. 위나라 화폐 한점으로 중원권으로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은 우리 고고학

계가 확보해 놓은 다른 원격지의 물질문화요소가 훨씬 많단말이죠. 영남지역의 동북이나 최근에 나온 부여계 철검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개별 정치체의 원거리 교역의 산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메인 스트림하고 통하지 않는 동해안 지역의 중도식 무문토기, 늦은 시기의 경질무문토기가 사실은 그 계보가 어디냐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두 분은 옥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문헌과 관련해서 이야기 폭이 넓어졌습니다만은 옥저(沃沮), 소위 말하는 읍루(挾婁) 문화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했거든요. 옥저계 무문토기와 빨체 무문토기와 강원도 지역의 중도식무문토기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시기 문제입니다. 강인욱 선생이 비판하는거죠. 서북지역의 군현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게, 심재연 선생과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은, 함흥(咸興)지역에 사실은 회도문화가 있습니다. 현도군(玄菟郡)과 관련된 유적들이라고 일제강점기부터 설명이 되었는데, 회도, 기와 토성도 있죠. 소라리토성(所羅里土城)이죠. 이게 사실은 옥저 문화가 확산되서 내려오는 길목에 있던 말이죠. 기원전 1세기 이전이라면 당연히 이 문화가 반영이 되어서 내려올 것인데, 초기 중도식무문토기에는 그런 요소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연대론으로 돌아가서 시기에서 기원전 1세기 이것이 가능한가 결국 그 출발이 기원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을 끌어왔어요. 온돌만 있으면 강인욱 선생님은 예전부터 온돌이 ‘단결-크로노브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천 늑도에 있는 온돌은, 물질문화, 토기, 주거지의 형태, 온돌 전부 다 세죽리-연화보입니다. 오히려 후기고조선과 연관지어야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거론하면 오히려 중도식토기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발 자 여섯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연대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구요, 하가점상층문화, 문화적 중층성, 돌발성 뭐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생략하시고 사실 위주로, 그리고 늑도 온돌 이것이 과연 옥저 문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기원론, 중도 유형이라는 기원을 옥저 지역에서 끌어들이고 있는거죠. 답변 바랍니다.

고영민 네. 먼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단계에 함흥평야에서 회도와 기와들이 출

토가 되었는데 중도식토기문화가 이 시기에 확산되었다면 강원도에서, 다른데서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대해서 시기 비정이 다른 결론이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함흥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회도와 기와들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 비정을 만약 다른 식으로, 늦춰서 보신다면 강원도 지역에 연대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함흥 지역의 회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성지 안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그 외의 다른 유적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동의는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서 자료가 추가된다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발 잠시만요, 지금 그 말씀하는 논리는, 마치 괴뢰성처럼 그것만 달랑 있고 군현에, 이른바 토착문화, 재지문화는 상관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고영민 자료가 일부만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성 성 밖에도 사실은 회도, 기와들이 나오지요.

박순발 다시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위지 동이전에서 논의한 수준을, 여기가 뒤에 속하죠? 소라리토성(所羅里土城)을 뭘로 보시죠?

정인성 문헌에서는 현도군(玄菟郡)이라고 하죠.

박순발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현도(玄菟)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라면, 그 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외지에서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로마가 켈틱으로 들어갈 때 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건 빼고 누구든지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자료로서 해석의 관점은 그게 옥저하고는 관계없고 저로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건 그 토착문화로 관계가 없는, 그게 아니고 그 토착문화의 기반 위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전혀 다른 논점이 되어버려요.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근거는 논점이 성립되지 않는거죠.

정인성 그러니까 아까 한예강성(韓豫強性) 시기에 군현계 기와, 토기가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는 확산이 되는데 중도식토기문화 속에, 그러면은 그 길목에 있다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문화권을 따라서 이렇게 문화가 아래위로 움직이는,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길목에 있는 요층에 있는 토기 기와 문화가 왜 남쪽에 있는 거점에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걸 설명을 좀 해야하거든요.

박순발 그러면 늑도 온돌도 ‘단결-크로노브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거?

고영민 늑도 같은 경우는 ‘빨체계문화’, ‘올가문화’ 토기라든지 ‘크로노브카’ 토기 계통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순발 한참 뒤의 것인데 올가문화는...

정인성 그게 원래 실크로드 이야기 하고 있는, 강인욱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빨체토기가 아니었고 일본 내에서, 구주지역이 아니고 구주를 벗어난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고영민 그건 제가 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늑도는 당시에 사통팔달의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죽리-연화보(細竹里-蓮花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유형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북지역과 교역도 충분히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돌 형태와 주거지가 세죽리-연화보의 유형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늑도에서는 원형 주거지 벽을 따라서 좀 간략하게 설치를 한 건데요, 연해주 불로치카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발 사실은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상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강인욱 선생님이 오시면 더욱 좋을법했는데, 이 큰 범주에서 말이죠 환동해권이라는 말 그 자체는 사실 연동해권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다소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토론자가 말씀하신바와 같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관점도 신선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 관계에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 구체적으로 중도유형의 대외 문제 이런걸 거론하는 이 시

점에 있어서는 ‘단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할 것이 많다는 정도로 남기죠. 참고로 구들 문제 대해서, 오승환씨라고 있죠 옛날 개명하기 전엔 오후배라고 하는 오승환씨가 학위논문이 한반도 구들의 확산과정 연구라고 작년에 그걸 받아봤어요. 구들 문제를 잘 정리했는데, 결국 현 시점에선 ‘세죽리-연화보’로 오고 이 정구현에서 동쪽으로 ‘단결-크로노브카’ 이렇게 가는거예요. 왜냐하면 연화보 같은 곳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단결문화(團結文化)에서 많이 보이는데, 오늘 보이고 있는 봉산성지서 보이는 건 상당히 늦은 겁니다. 위진(魏晉)시대의 것이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최근의 연구성과를 같이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심층적으로 아 환동해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상당히 논점을 흐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새로운 자료가 있다 하시는 분은 이따가 발언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문화의 형성단계, 소위 옥저라고하는 거대한 문화권 설정,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정치체 이름들의 흐름, 이걸 작년에 토론이 많이 되었던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번째가 3세기 이전의 한반도 중부지역에 등장한 여러 정치체명, 종족명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용구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윤용구 네, 전진국 선생님은 진국(辰國)에 대해서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석사 논문도 진국, 박사 논문도 확장해서 쓰셨는데요, 사실은 문헌에 답이 없습니다만은 정면으로 문헌 고증을 다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중부지역, 한강유역을 이야기 하는데 위만조선단계에 진번이 임진강 예상장 이정도, 황해도를 끼고 존재했다고 하는 그 기준의 학계의 통설을 부정하시고 진번은 중부지역과 관계없다. 진번은 북쪽의 무순(撫順), 신빈(新賓)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구요, 중부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는 진번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국을 한강유역으로 보신 분이 있고, 삼한 전체로 보신 분이 있고, 금강 유역, 충남과 전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한강 유역에 한정하고 그것도 한강 유역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한강 상류, 영서 지역, 더 좁게 가면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 상류 지역에 중심지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세기 들어서 대방군이 설치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 학설을 본인이 정리하신 부분인데, 강조하신 부분은 영서예(嶺西濊)라는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논지의 중심은 진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이 진한이자 그 전에는 진국이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질문화는 북한강 상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북부 여러 곳에도 있고, 또 같은 청동기 시대에 집적된 문화는 경주 쪽이 더 많고 금강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제에 따라서 진국의 위치를 여러 곳으로 비정할 수가 있구요, 진국이 삼한의 전신이라는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진국은 삼한 전체로 볼 수도, 진한의 전신이 진국이라는 위략과 위지의 기록을 따른다면 경남지방이나 또는 일부 영서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토론문을 썼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토론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강 유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차별화하는 점인데 이것은 한강 유역을 진한으로 보는 것은 이병도 선생의 견해와 같아요. 또 천관우 선생과는 비슷해요. 천관우 선생은 신채호 선생의 견해에 따라서 삼한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북진번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진이 진한이 되고 번이 변한이 되었다는 논리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한강 유역에서 스승인 이병도 학설을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부진국계라고 해서 한동안 거기에 진한, 진국이 있었다가 경남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진국 선생님은 북진번(北眞番), 남진번(南眞番)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하간 한강유역에서부터 영남지역까지 진한이 있었고 그것은 이동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한강유역을 굉장히 별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구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질문화에 있어서 한강유역의 중도문화유형인지 중도유형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물질문화의 양상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걸 처음에 얘기한 분이 이병도 선생인데 이렇게 본 이유는, 첫 번째 진한은 마한의 동쪽 경계를 마한이 떼서 준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 본기에 보면 백제가 국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한왕으로부터 동북의 백리를 떼어갔습니다. 이 두 점을 착안하신거죠. 백제가 진한의 일부라 보신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진한으로 확실하다고 본거고, 한강유역은 그 남쪽의 충북이나 영남지역과는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본거죠. 그 뒤에 천관우 선생이 그걸 다시 구진국계(舊辰國系)라 표현을 하셨지만, 문헌에서 지금 뭔가 한강유역이 충남이나 영남지역과는 다르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오랫동안 잠재되어 왔었는데 진한을 영남으로 보는 통설에 따라서는 이병도, 천관우 선생

은 견해는 최근에는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가 한강유역에 새로운 물질문화에 마한이라고 하는 범주로 이해되는데, 전혀 한(韓)과 다른 물질문화의 양상을 박순발 선생이 80년대에 제기하시면서, 이병도 선생의 아이디어, 박순발 선생의 아이디어가 내용적으로 같아요. 하나는 물질자료로 설명하신 것이고 하나는 문헌으로 설명하신 건데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창석 선생이 춘천에 오셔서 맥국(貊國)과 전투를 하시면서 많은 글을 쓰시면서 상당히 중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대사의 흐름 속에서 물질자료를 이어보려고 노력해오셨습니다. 그런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병도 선생이 한강유역을 별개로 생각했던 그 논리, 마한 안에서 별개로 생각했던 그 논리와 물질문화는 뭔가 매칭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중부고고학회에서 임진강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한예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라는 것을, 일단 문헌사에 한예(韓豫)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전진국 선생의 이런 노력들이 세부적으로 문헌고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한강 유역이 갖고 있는 문헌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정면에서 도전해보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박순발 결국은 한강유역이 진국(辰國)이다 하는 전진국 선생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맞던 틀리던 간에 대안으로서,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는 먼저 선행이에요. 고고학상에서는 패턴이 보이는데, 이것을 기준에 우리 특별히 생각 없이 ‘마한’ 내지는 ‘예’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시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진국이라하는 것, 나머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진번 재복설 이건 관계없고, 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국 네, 진국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본 부분이 위략(魏略)에 있는 사료입니다. 위략에서 보이는 진국은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이고, 그 기사에서 진국을 비정해 보자면 저 남쪽, 금강유역 그런 쪽보다는 한강유역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합니다. 저는 사실 진국 논문을 앞에서 썼을 때, 실존의 명칭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한곳을 뭉뚱그려서 부른 그런 존재의 명칭이지 이것이 실제로 한강유역에 한정해서 실존했던 그런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한과 관련해서, 제가 진한의 영역을 영남지역 뿐 아니라 강원 영서지역까지 확대해서 보는 그런 논문

을 썼고, 이번 발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강 하류의 백제 지역까지 진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르는 진한은 삼국지(三國志) 사료에 입각해서 보자는 말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마한지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한의 대표가 백제이고, 그 백제의 동쪽이면 강원 영서지역이지요. 그리고 진한을 단순히 영남지역이라고 해석하려 들면은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서지역까지 넓혀서 보면 조금 해석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발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여기서 결판날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는 적어도 하나의 장이 필요한데, 진한의 여러 가지 위치문제 등 이런 것들, 최근의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중부지역에 영남권의 무덤이 보여요. 집단체화 되어있는 지역 고분군 안에, 원삼국시대 지역 고분군 안에 같이 차지하고 있어요 몇 기가. 이런 정도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현지인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현대의 고고학적 해석상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의 당면한 문제는 중도 유형 내지는 중도 문화를 어떻게 볼 것 인가인데 그것을 진국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나는 한예(韓豫)라고한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의 영서예(嶺西濊) 내지는 예(濊)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를 않고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가 성립기 무렵, 이른바 고고학 실체로서의 중도문화 내지는 예계든 뭐든 좋지만 그 문화가 어떻게 대외관계를 했느냐입니다. 신광철 선생이 발표를 하셨고 토론은 황보경 선생님, 오랫동안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황보경 네, 신광철 선생님이 많은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주제가 상당히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삼국형성기라는 시기와 대외교류라는 커다란 주제에 맞춰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강원도에 있었던 제(諸)세력들에 대해서 문헌과 고고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志)에서 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각 읍락마다 산천의 경계가 있고 상호불가침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 이것과 연계시켜서 본다면, 예는 그 세력을 온전히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가 어떻게 그걸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지, 당시 정세와 관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각 읍락마다 산천의 경계가 있다고 했지만 2~3세기 대 보면 불내예왕(不耐濊王)이 그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면 성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곽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 아무래도 거점지역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맥국과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신라가 맥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42년에는 짐승을 바쳤다, 그리고 맥국의 중심지가 춘천이고 3세기 말까지 존재가 인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98년 백제 책계왕(責稽王)이 한과 맥인들과 전투를 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당시 맥인들의 거점, 춘천이었는지 춘천이라면 어느 지역에 비중을 두고 계신지, 당시 백제의 영향력이 춘천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제세력과 관련해서 동북지역과의 관계입니다. 대외교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점진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발표문에서 보면 동북지역의 토기 전통이 4~5세기 무렵에 주로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되는데 고구려의 동북지역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책성(柵城)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 지역이 어떠한 세력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신광철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치와 거점지역의 성이라고 볼 수 있는 책성이 어떤 구조의 성이었을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일단 대외교류 측면을 많이 설명하셨는데, 여길 거점으로 두고 중국, 낙랑 등과 많은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본다면, 또한 한성백제, 일본, 호서, 호남 등 따로따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서와 영동에서 발견되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받아들인 유구나 유물에 대한 설명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졌었는지, 진서에는 마한과 진한이 진나라에 왕래를 했다는 서로 외교관계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세력들은 어떠한 교통로, 항구를 중심으로 움직였을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순발 네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세 번째는 우리 전체의 지명상으로 보는 다음 단계, 삼국국가가 완전히 형성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논하는걸로 하죠. 지금 하면 문제를 선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내부적으로 정치체의 구조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른바 고고학에서 말하는 중심취락이 어떤 구조인가 이것이죠. 크게 1,2,4 중심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철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豫)’만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와 ‘예’의 성곽이 있었을텐데 구조적으로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강원도 쪽에 있는 여러 집단들 중에서 ‘예’만 특기해놓은 몇몇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천에 경계가 있다던가, 산천의 경계를 넘어서면 가축으로 보상을 한다던가 등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환동해지역 산악집단들을 봤을 때 산천의 경계가 나눠졌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걸 보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표지석이 됐든 어떤 특정 지형지물이 되었건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지역사회에서 공유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 남아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련된 것이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게 관직이 있다는 기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문화가 침략했을 때, 종족이라든가 다른 사회라든가, 그것이 폭력이나 투쟁 등 전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있는,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문화를 공유했고, 중국 사가들이 얘기했을 때 예(濊) 문화가 다른 곳에 비해 선진적인 것처럼 기록 되어있는 것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 시스템 자체에 의해서 ‘예’ 지역만 사회를 유지를 했고 기록에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곽에 대한 것은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성곽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국지 단계에서 얘기했을 때 강원도 지역 집단을 얘기했을 때 성시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시의 유무를 따지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동시기에 성곽축조기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곽인지, 아니면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인지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곽이 있었고 성곽이 있어야만 국가단위의 정치체라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문헌에서 보면 성곽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병졸, 군사문화를 얘기할 때 보면 ‘장창으로 교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방패라던가 화살이라던가, 장거리 무기 어떤 방어 성벽을 넘어가는 병졸이 없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병졸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 반대로 성책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맥국은 실제로 신라와의 관계기사에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춘천지역에서 나타나는 고고자료가 맥국과 동일한지, 동일했던 적이 있는지, 어떤 변화상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맥국이 정말로 춘천지역의 강력한 존재

로 있었고 장기간 유지가 되었다면 삼국지가 쓰였을 당시, 2~3세기 때 동북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때, 그 정보가 습득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있어도 예전의 제목에 예맥이 같이 언급된 걸로 보면 맥이라는 혈통적, 종족적 부분이 정확히 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뛰어넘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계왕에서 나왔을 때 맥이라는 것도 어떤 맥국의 백성이라는 뜻일지 아니면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되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춘천과 관련된, 춘천 예(濊) 사회와 관련된 건지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구요, 네 번째 같은 경우 교통로나 항구를 이야기하셨는데,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전쟁사, 6.25때를 보면 영동지역과 북한강 유역, 과거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교통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동지역에서 북으로 넘어가서 함경도 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서지역이랑 영남지역과 교류를 한다면 오히려 전라도, 경남지역에서 남해안이나 동해안을 따라서 이동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표류한 사람이 전라도에서 울릉도까지 흘러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실제 울릉도에서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투리의 상당수가 전라도 사투리인걸 보면 그런 루트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산맥 넘어서 남한강으로 흘러가서 호서나 호남지역 쪽으로 가는 루트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 그 루트가 정확히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순발 사실은 첫 번째 문제는 예계와 삼국지 위치에 나오는 동예에 대한 문헌을 참고해서 말하라는 것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논의하는 중도문화의 고고학적 주체에 바로 대입하는 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이곳에 아직 고고학 자료상으로 환호취락은 발견이 되었지만 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해야될꺼예요. 그리고 맥국의 문제는 신라 초기의 기년조정의 문제가 있고, 그걸 전제로 하고 문헌을 다시 고고학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맥국을 춘천지역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교통로 문제는 사실 영산강 유역 내지는 한반도 마한지역 남쪽에 보이는 경구돌대호,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 이런 것이 동래패총(東萊貝塚)에서 보인다면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갔다던지 이걸 동해안 루트가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해안을 따른 연안항로에 관한 부분은 고고학적으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이쪽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이 없어 다음으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구려 치하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직접 다이어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마지막에 삼국항쟁기, 이제 삼국이 성립하면서 상당히 원심력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발표이고 그 토론을 김창석 교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창석 네, 전진국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대 강원지역의 주민 집단이 주변의 고구려, 백제, 신라, 낙랑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변천해왔는가를 주로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있는 것을 조리 있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걸리는 게 고대 강원지역의 주민집단을 삼국사기 초기기사에 보이는 말갈(靺鞨)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진국 선생님 논문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글에서도 그런 경향이 엿보이는데요, 고고학 쪽에서는 그렇게 써도 의사소통에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헌사학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삼국사기 기사에 보면 말갈을 고구려 주변에 있는 어떤 불특정한 집단들, 그리고 이주민 집단이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은 경기도 북부, 강원도, 함경남도 일대라고 비정하고 계시고 이것을 재지세력이라고 범주화를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발전 수준이 훨씬 높은 그런 정치체들하고 대비해서 재지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갈이라고 지칭을 하고 계신단말이죠. 말갈이라는 용어는 6세기 중엽에 중국인들이 만주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과는 다른 특정한 이종족 집단을 말갈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갈이라는 것 자체, 말갈이라고 인식한 주체도 명확하고 6세기 중엽 이후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기록에는 6세기 중엽 이전에도 말갈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갈은 만주지역에 있는 말갈하고는 분명히 다른 실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것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한반도 지역에도 말갈이 있었다면, 그것을 수용하신다면 과연 만주지역의 말갈하고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는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삼국지 이래 중국 정사에 실려 있는 여러 열전들을 보면 말갈들의 문화나 습속이나 여러 가지 생업경제양상은 한반도 지역의, 말갈로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중부지역의 주민집단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말갈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떤 근거로 말갈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번인데요, 사실 삼국사기는 한참 후대의 기록이구요 당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헌 사료 안의 사료성이 있는 것이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고 가치가 굉장히 작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대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국지와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414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5세기 초의 상황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새롭게 획득한 주민을 한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5세기 초의 상황인데 말갈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광개토대왕릉비의 중부지역에 광개토대왕의 군사가 남진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 주민집단은 한(韓) 아니면 말갈 이렇게 나와야 선생님 논리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갈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한과 예라고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말갈과 예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번은 건너 뛰구요, 6번인데요, 특히 영서지역에 있는 말갈집단이 고구려에 4세기 말에 복속이 된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군사적인 조력을 하는, 부용세력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서지역에 있었던 말갈의 명맥이 꽤 그 이후에도 유지가 되다가 6세기 중엽에 신라가 장악을 하면서 비로소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영서지역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방식과 신라가 지배하는 방식, 그리고 고구려가 내려오기 이전 백제가 통제하던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재지세력이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멸을 했다는 것인지, 지배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발 네,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비교적 명확하게...

윤성호 네,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1,3,4번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중국지역에 있는 숙신계(肅愼系) 말갈과 삼국사기 초기 기록 대신에 삼국사기 한전(韓展)기에 나오는 말갈은 동일한 말갈로 보고 있지 않구요, 단지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되, 사실은 재지세력이지만 예계, 내지는 예맥계 재지세력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대로 사실은 삼국사기에 나온 표현대로 말갈을 쓴 이유는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서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구요, 단지 예를 들어서 가야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가야의 경우 일본서기에서 보면 타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타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료에 있는 용어를 그냥 썼던 부분도 있구요 661년에 고구려의 뇌음신(惱音信)하고 같이 내려왔던 말갈장군 생해(生偕) 같은 경우는 사실 함경도나 강원도 북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위에서 있던 숙신계가 끌고 내려왔을 가능성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구요, 675년에 아달성을 공격하는 말갈세력 같은 경우는 모호한 점도 있어서 저도 동일한 말갈은 아니지만 용어 자체는 이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강원지역 재지세력들을 간접 통치했던 차이점을 말씀해주셨고, 부용과 관련해서 신라는 그런 재지세력들을 전투에 어떤 역량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백제는 크게 화천지역이나 남한강지역, 원주, 충주일대까지 진출하고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없어서 비교가 힘든 것 같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광개토왕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대했는지 이 부분을 아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묘(守廟)를 위해서 일부 사민(徙民)했던 기록도 있구요, 이 세력들을 부용세력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신라가 영동지역으로 진출했던 상황이나 고구려가 지배했던 상황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재지세력들을 동일한 민(民)으로 대하지 않고 간접지배를 했던 것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북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뒤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고 그에 앞서서 가야 지역에서 지역 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민을 했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한 지방 지배를 시도했던 것 같은 면이 고구려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원 영서지역이 신라와 백제와 통해있는 남쪽 변방에 불과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북진해서 올라갔을 때 고구려를 대항하는 태도가 굉장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훨씬 신라 입장에서는 절실했고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차지해야했기 때문에 고구려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성곽을

축조를 해서 방어시설을 갖췄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강원지역의 재지세력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신라는 기록들이, 사실은 고구려는 여기서 말갈로 표현된 재지세력들을 본인들과 다른 세력으로 생각을 했고 군사를 동원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부가 된 외부세력들, 재지세력들을 동원했던 기록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삼년산성 고간(高干) 도도(都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위(外位)를 받아서 신라의 군으로 들어갔지만 중앙군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재지세력, 어떻게 본다면 재지세력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했던 것도 확인되는 것 같구요, 아달성에서 죽었던 소나(素那)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버지 대부터 안성지역에서 백제를 막던 재지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군사적으로 동원된 게 확인이 돼서 같은 식으로 군사를 동원했지만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록의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발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 뭔가, 예비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최후로 아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오늘의 큰 주제는 강원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실체가 인정되고 있는 중도유형 내지는 중도문화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형성단계에서 주로 대외교섭, 교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형성된, 고고학적으로 실체는 인정된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말하자면 문헌에 보이는 강원지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의 문제. 이견 작년에도 치열하게 했지만 그게 진국이나 아니면 뭐 한예나 맥이나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주로 다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래에 통설적으로 늘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예계(濊系)라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해도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가 된 걸로 생각되구요, 그리고 중도문화가 존속한 단계에 있어서 대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했는데, 이견 관련된 세력이 많다, 그러나 주로는 아마, 가까이는 이런 세력들인데 구체적으로 문헌에도 낙랑도 보이지만 실제 고고학 자료상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낙랑(樂浪), 정인성 교수의 영역 빈번한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후에 말하자면 백제가 그 세력을 끌어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삼국이 이제 덩치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각축 단계에서는 첨예한 활용의 영역이니까, 주로 용병으로 많이 하는 것이 누구였느냐 낙랑이었어요. 낙랑이 그걸 차지하고 고구려 나중에 많이 용병을 쓰죠. 그러나 최종적으

로는 신라가 전국을 석권하면서 신라의 1소경 2주가 설치되면서 이제 자체의 말하자면 동력은, 정체성은 소멸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때의 모습은 마치 부용의 역사 대단히 듣기 싫은 이런 부분인데, 이 비슷한 게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마한박물관이 만들어진 영산강 유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백제하고는 좀 다르고 영산강 유역 자체의 원삼국시대의 어떤 편년, 그리고 그 실체를 어떻게 말 할 것인가 마한이나 뭐다 이렇게 나오죠. 전남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에는 여기도 그렇지만 뚜렷하게 정치체의 형성이 국가단계로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걸 최근에는 가야다, 이전에는 백제라 했다가 최근에는 가야사가 중심이 되니 가야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중국은 무수히 많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키 중심의 역사 속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그런 세력들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아요이시대(弥生時代)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죠, 조문시대(繩文時代)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비슷한 게 많은데, 유독 우리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구요.

오늘 대외교류라는 이런 각도에서 고고, 문헌의 중간점점 단계로 제가 취합한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각자 1~2분씩 해도 20분 이상 소요가 되니 아 나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하면 기권하셔도 좋고 30분을 목표로 해서 아 이 발언은 하고 싶다 이 발언은 내가 못하면 섭섭하다 이런 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김장석 선생님부터 최대 2분입니다.

김장석 네, 오늘 계속해서 좌장님이 많이 개입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중도 유형을 그림 필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느냐라는거죠. 아까 제시했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계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마한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물질문화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라고 하는 문헌사의 명칭을 붙이자마자 이것들이 확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종족이라 하니까 종족, 그럼 종족은 어디인가? 우리나라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고대사, 고고학의 특징, 어디엔가 원형지가 있을 것이다 어디인지 찾자라고 하면서 약간의 불필요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었구요 그럼 이 ‘예’는 문헌사에 나온 역사지리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으로 예국이나, 맥국이나 하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물질문화를 문헌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연결시켜서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옳은 방법일지는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편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학사 초기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과생되는 문제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구요, 이 과생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순발 개입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사실은 김장석 선생이 이걸 얼마나 빨리 썼냐하면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합니다. 제가 6월 5일에 전화했을 때 술 마시고 있다 하던데, 6월 6일에는 착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오늘이 28일이니까 얼마나 빨리 썼어요. 그래서 역시 프레스를 줘야 나오는구나, 안 그랬으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이와 같은 좋은 글이 나왔다고 보고 나중에 별도로 완고가 있으니까 그때 글로서 충분히 표현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어려운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나간 부분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장석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홍 네 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장석 교수가 중도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고학과 고대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저의 입장에서 하자면 고고학의 현재 문화유형, 발굴조사의 양적 증가와 마찬가지로 문헌사는 그중에서도 실은 밝힌 것이 상당히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와 맥,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만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된 것 중 하나가 진한8국이 다시 소생했다는 점, 가야로 치면 포상8국이 다시 가야 속에서 소생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문헌도 마찬가지로 고고학이 층위가 있듯이 문헌에도 층위가 있고 그것을 다루는 문헌학자도 그 층위에 따라 연구를 한다는 건, 그것은 각자가 보는 것인데, 또 하나 제가 오늘 정리한 것은 지금까지 일국사 중심, 큰 나라, 강한 나라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점이지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상고사학회에서는 그 작지만 강한나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진한을 구성하는 것 중에 경상도 북부, 그리고 9월에는 남해안 지방에 나타나는 작은 나라들이 많은데 객관적인 사실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할까합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고고학 자

료가 계속되듯이 문헌도 거기에 맞는 전형적인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나는 시점이 중요하고 오늘 특히 저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민 정인성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환동해 문화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경시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논지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성 고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반대로 지금까지 사실은 뭐 중국이나 고조선, 그다음에 군현세력, 서해안, 남해안의 진·변한 세력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실은 연결되는 이런 문화권과 그 흐름을 강조하는 한국 고고학에서의 분위기, 이와는 별도로 동해안을 타고 넘는 또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에 크게 동의하고, 그런 맥락이 아니면 우리 토기 문화의 흐름 속에서 동해안 지역의 중도문화권에 보이는 경질계 무문토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사실은 ‘단결-크로노브카’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기 문화의 유사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서 조금씩 정교하게 정리를 확인을 하면서 논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전체적으로 좌장 선생님의 마지막 정리는 매우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창석 선생님 토론문에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자료집 145페이지 5번 강원지역의 재지세력이 소국,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그러면서 낙랑군의 존재와 그 문화의 유입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도석토기문화와 관련된 오랜 고고학계의 토론과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짚어서 이런 이야기를 안했었거든요. 아까 현도군(玄菟郡)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시, 그러니까 함흥 평야에서 보이는 토기나 기와의 특징들은 소라리(所羅里), 영흥읍(永興邑) 근처 등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평양 지역과 많이 통하고 그게 일순 나타났다가 성곽과 외부지역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건 분명하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도군입니다. 사실은 옆에 윤용구 선생님이 제1,2,3현도군 관련해서 가나카 선생님과 통하는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고학적 물질문화로 보면 사실은 동해안 지역하고 압록강 중류지역의 토기문화, 기와문화와 사실은 통하는 바가 좀 드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2현도군의 영릉진고성(永陵鎭古城)에서 발굴조사가 있었고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소위 제1현도군의 치소라고 불리는 동해안 지

역하고 그 물질문화가 다르다 이런 부분은 동해안의 중도식문화, 예, 현도군 관련해서 학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순발 내년도 주제가 나왔습니다.

전진국 저는 아까 삼국지에서 그리고 있는 게 마한, 진한 그 세계에 의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창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국지에서 말하고 있는 한예(韓豫), 그것은 종족성,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체로 분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한은 토착인, 진한은 이주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령 진한12국 왕, 진왕에 대해서 마한 사람을 세워서 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맥을 보면 그때의 마한은 진한에 있는 토착인들을 말하는거죠, 진한은 곧 이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삼국지에서 그리고 있는 한예의 개념이 찬자(纂者)조차도 정확히 뚜렷하게 알고 쓴 것일까 하는 의심이, 상당히 다의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명확하게 개념을, 그런 종족에 대한, 종족 명칭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고 썼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들자면, 과연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치밀하게 실제, 실상을 조사해서 썼을 것인가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쓴 것에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쓴 하나의 시대의 산물 그거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고학적 유물의 양상과 문화양상이 많이 다르죠. 가령 중도문화가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의 부분도 그렇고 부여로부터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과연 부여의 예족과 한반도 중부지역의 예족이 얼마만큼 친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부여의 예족이라 하면 고구려에 가까이 붙어있는, 고구려와 더 가깝겠죠. 제가 아까 말한 진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요지역을 저는 강원 영서지역도 진한의 범위로 잡지만 삼국지에서 그렇게 그랬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영남지역보다 오히려 서쪽에 있는 백제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삼국지에서 쓰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과연 실상이 얼마나 실체를 얼마나 명확하게 쓴 건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명칭들, 삼국지에 나오는 예니 맥이니 그런 명칭들로 오늘날 문화, 예계 문화권 뭐 이런 것들 잡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표할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맺음말에 썼습니다. 특히 이제 개념사가 코젤렉(R. Kosellek)의 개념사를 조금 인용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의 언어에 의해서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박순발 네, 시간이 있으면 다시 발표를 들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회 가서 들으시고
윤용구 선생님.

윤용구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문헌해석에 대해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랄까, 오래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문헌도 충분히 재해석하고 훨씬 더 많은 해석을 풍부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은 뭐 저로서도 반성을 충분히 하겠구요,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오신 김창석 선생님과 또 새롭게 등장한 전진국 선생님 오늘 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씩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통상 동예의 범주로 봅니다. 예맥 물론 아주 조선시대 때 이래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계문화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온건데, 강원도를 동예의 범주에 안 넣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한의 범주로 본다든지요. 진한의 북쪽에 예맥이 있다, 마한의 북쪽에는 대방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예맥으로 보면 한이 동서가 바다로 막혀있다는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강원도를 동예의 범주로 넣느냐, 한의 범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40년대 이후에 군현의 주변민족 지배방식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랑군이 있다가 대방군이 설치되서 대방군이 한을 다 통할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구검 때에 들어와서 한번 뒤집어엮으면서 동예가 이군에 각 조세를 냅니다, 이군에서 동예 사람들을 다 징발을 하고 있어요. 진·변한의 철을 이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8국을 낙랑군에 떼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춘천지역이 낙랑군에 통할을 받았는지 대방군의 통할을 받았는지가 외래계 문물을 설명할 때 중요한데, 동예도 이군의 통할을 받고 진·변한도 이군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마도 내륙 쪽에 통하는 영서 지역은 낙랑, 대방군하고 다 교섭을 갖는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낙랑외이(樂浪外夷)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낙랑외이한예맥(樂浪外夷韓濊貊)’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아마도 영서지역이랑 북한강 상류는 낙랑을 중심으로 교섭을 하고 대방군도 교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240

년대 이후에 군현이 주변 지역을 통괄하는 게 뭔가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발 네, 다음에 신광철 선생님.

신광철 저는 오늘 발표에서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박순발 1분 아시죠??

신광철 네,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성이 굉장히 많고 산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구려에서 산성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은 3세기 후반, 4세기 넘어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성 분포도라는 그런 영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나온 책성(柵城)이 얘기하실 때 훈춘(琿春)에 있는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이라던가 그것과 짝을 이루는 살기산성(薩其山城), 뭐 팔련성(八連城)도 거론이 된 적이 있구요, 연길(延吉)의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같은 경우 왜 이견이 되고 있냐면, 거기서 책성이라고 비정되는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 안팎에서 수습되는 고구려 기와들, 이어서 나오는 발해 기와들, 또 하나는 산성 같은 경우 축성기법이나 위치가 고구려 산성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정도인데, 거기 나오는 고구려 기와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는 고구려계 기와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한 출토양상이 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부분들 가지고 책성이라고 하기에 아직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만강 유역에 책성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 성이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썬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책성이 없다, 책성이 어디에 있는지 비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발 없다고 하는건 아니죠?

신광철 네, 맞습니다.

황보경 책성(柵城)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신라 고고학 쪽이긴 한데, 목책(木柵)에 관심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일단 책성은

삼국사기 기록에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까지 등장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등장하는 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그 다음에 구조적 변화 양상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성이 435년경에는 목책성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까지 하시는데 일단 남한에서 발견되는 성을 보면 안성 도기동 산성이라든가 남성골성은 목책을 일단 기초로 해서 지었죠. 그러다보니까 책성도 적어도 217년, 3세기 대까지는 그런 모습, 근데 435년대까지는 과연 목책을 유지했을까 아님 토축을 가미한 성으로 변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위치 고증부터 물론 되어야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성의 등장 이 시기가 예맥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발 네, 윤성호 선생님.

윤성호 네, 처음 발표를 맡고 토론자가 김창석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 큰일났다. 재지세력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선생님 의견을 어떻게 풀고 설명을 드려야하는 것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대방군 같은 경우는 사실 멸망한 이후에도 한(漢)인들에 의해서 전축분(塼築墳)이 계속 만들어지는걸 보면 어떤 세력이 무너지고 그 재지세력들은 남아있기도 한 것 같구요, 소위 말하는 재지세력들이 예맥계냐, 비예맥계이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다양한 세력들이 섞여 있었고 시간의 폭에 따라서 이 집단들이 재지화 되고 토착화 되는 변화상들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에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구별성이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이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들에서 나오는 토기들 양상을 보면 아무리 지방이지만 조잡한 토기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동원된, 사료에 나오는 말갈과 관련된 건 아닐까하는 고민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발 네, 김창석 선생님.

김창석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도유형문화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저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영서지역입니다. 영서지역

을 저는 영서예라고 보고 있구요, 삼국지 예전에서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에는 그게 ‘예’가 아니라 맥국(貊國)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하필 ‘맥’이라고 불렀을까 이거를 문헌사학 쪽에서 파고 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신라 사람들이 ‘맥’이 살던 어떤 정치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가 올라오기 전에 고구려가 상당기간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상하고 다른 거지요. 예족의 정치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맥’을 갈다 붙인건 분명히 신라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근데 그 오해가 당나라 때의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 채록이 됩니다. 그래서 <고금군국지>에 보면 영동에는 예국이 있고 영서에는 맥국이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가탐이 채록을 하게 된 거는 신라 사람들의 오해가 당나라 사신 한조채(韓朝彩)라는 사람이 7세기 후반에 신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신라 사람들의 인식을 전해 들었고, 그 한조채가 가탐에게 그 말을 전해줬고 가탐이 <고금군국지>에 영동은 예, 영서는 맥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비판 없이 삼국사기에 그대로 채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영서지역의 맥국이라는 것은 신라 사람들의 인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역사적 실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윤성호 선생님도 말갈의 실체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해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퀴텐션 마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맥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말갈이라고 “퀴텐션 마크(™)”를 붙이면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순발 시간이 없습니다.

김창석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전진국 선생님이 삼국지의 기록이 실상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체나 종족 구분을 할 때 주로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습속(習俗)이라든지, 이것은 대단히 사실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성의 근거는 삼국지가 편찬되기 전에 한반도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체하고 낙랑, 대방군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구검이 국내로 왔을 때 등 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당시 실상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라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족의 차이 또는 정치체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발 네, 시간이 30분까지 했는데 5분이 경과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최후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남아있다는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두번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중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학회가 합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프로젝트예요. 그걸 중국말로 공정(工程)이라하는데 적어도 중도유형문화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 든 고대 정체성에 대한 공정, 이런 것이 아마 강원학연구소나 앞으로 할 과제들, 특히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새롭게 또 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적출된 문제를 다시 또 하면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은 6분 넘겼지만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서 시종 아침부터 계셨던 우리 고대사학회 회장님께 아, 청중도 보니까 이제 원로라 해야겠네요. 정년하신 최성락 선생님도 와계시고 그 옆에 김권구 선생님도 계시고 토론적인, 누구든지 관계 없습니다만은 코멘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순발 사회권이니까 제가 정하겠습니다.

최성락 목포대학교 최성락입니다. 오늘 모처럼만에 강원도까지 와서 공부 많이 했구요,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사회자 파워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발 네, 귀한 시간에 저까지 챙기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홍 선생께서 폐회사를, 학회장님이 하게 되어있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자가 안계시니까 하세요.

김재홍 네, 제가 또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지역사회 분들과 발굴단에서도 많은 성과인데 오늘 저희들은 조사 성과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했구요,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핵심은 춘천과 강원도 문화를 더 나아가 전국

적으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측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강원 고대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에는 이론적인 것, 올해는 세부적인 것인데 내년에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동아시아 속의 강원 고대문화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괄하는 큰 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토론동안 고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박순발 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학 학술총서 12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

古代 江原 對外 交流

인쇄 2019년 12월 5일

발행 2019년 12월 8일

발행처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 National Museum

인쇄처 도서출판 산책

ISBN 978-89-5705-734-6

